

2015년 중부고고학연구소 학술대회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학술대회 일정

사회 : 김선주(중부고고학연구소 부장)

| 일시 | 2015년 12월 11일(금) 13:30~18:00

| 장소 | 고궁박물관 본관 강당

13:30 ~ 13:40	개회사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장)
13:40 ~ 14:10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 성과	박현준(중부고고학연구소)
14:10 ~ 14:40	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	안성현(고려문화재연구원)
14:40 ~ 15:10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
15:10 ~ 15:20	휴식	
15:20 ~ 15:50	덕진산성의 축성법 검토	심광주(서울시 문화재위원)
15:50 ~ 16:20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이한용(전곡선사박물관)
16:20 ~ 16:30	휴식	
16:30 ~ 18:00	종합토론	좌장 심정보(문화재위원) 최종택(고려대학교)·조순흠(중원문화재연구원)
18:00~	만찬	

목차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 성과	9
박현준(중부고고학연구소)	
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	63
안성현(고려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91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	
덕진산성의 축성법 검토	117
심광주(서울시 문화재위원)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149
이한용(전곡선사박물관)	
토론문	165
최종택(고려대학교) · 조순흠(중원문화재연구원)	
파주 덕진산성 학술대회 토론 요약문	177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 성과

▣ 박현준(중부고고학연구소) ▣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 성과

박현준(중부고고학연구소)

- I. 머리말
- II. 연혁
- III. 조사내용
- IV. 출토유물
- V. 자연과학적분석
- VI. 맺음말

I. 머리말

덕진산성은 경기도 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성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번지 일원에 해당하며, 전체면적은 171,835㎡(내성 길이 약 600m/외성 길이 약 1.2km)이다.

덕진산성은 임진강의 하류에 위치하며,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이곳은 초평도를 감싸고 남서쪽으로 곡류하는 임진강의 북안에 해당되며, 남동쪽으로 초평도가 인접하여 과거로부터 이를 통해 임진강을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초평도 서쪽에 있는 수내나루와 동쪽의 임진나루는 조선시대에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덕진산성은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지표조사¹⁾에서 그 존재가 처음 알려졌으며, 1994년과 1999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과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²⁾에 의해 내성과 외성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 의해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벽의 구조와 시설물의 존재 등이 알려지게 되었다.³⁾ 특히 1999년도 조사에서 북쪽 봉우리 절토면[치3 토축부]에서 고구려 토기인 장동호가 수습된 것과 2004년도 북서쪽 치 및 치와 성벽 연결부[치2 주변]에 대한 조사에서 고구려 축성기법인 ‘들여쌓기’ 기

1) 國立文化財研究所, 1992,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2)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4,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파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파주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법이 확인되어 고구려 성으로 보는데 증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를 통해 덕진산성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학술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2012년~2015년까지 총 4차례(1~4차)에 걸쳐 학술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내성은 고구려에 의해서 초축되었으며, 이후 통일신라시대에 대대적으로 수축되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조선시대까지 수축하여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성은 내성[치3]을 기저부로 활용한 점과 토축부 상·하층에서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여러차례 수축이 행해졌다. 한편 내성의 내부시설로 집수지가 2기 조사되었으며, 내성벽의 토축부를 ‘L’자상으로 절토하여 축조하였다. 초축은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며, 이후 조선시대까지 사용과 폐기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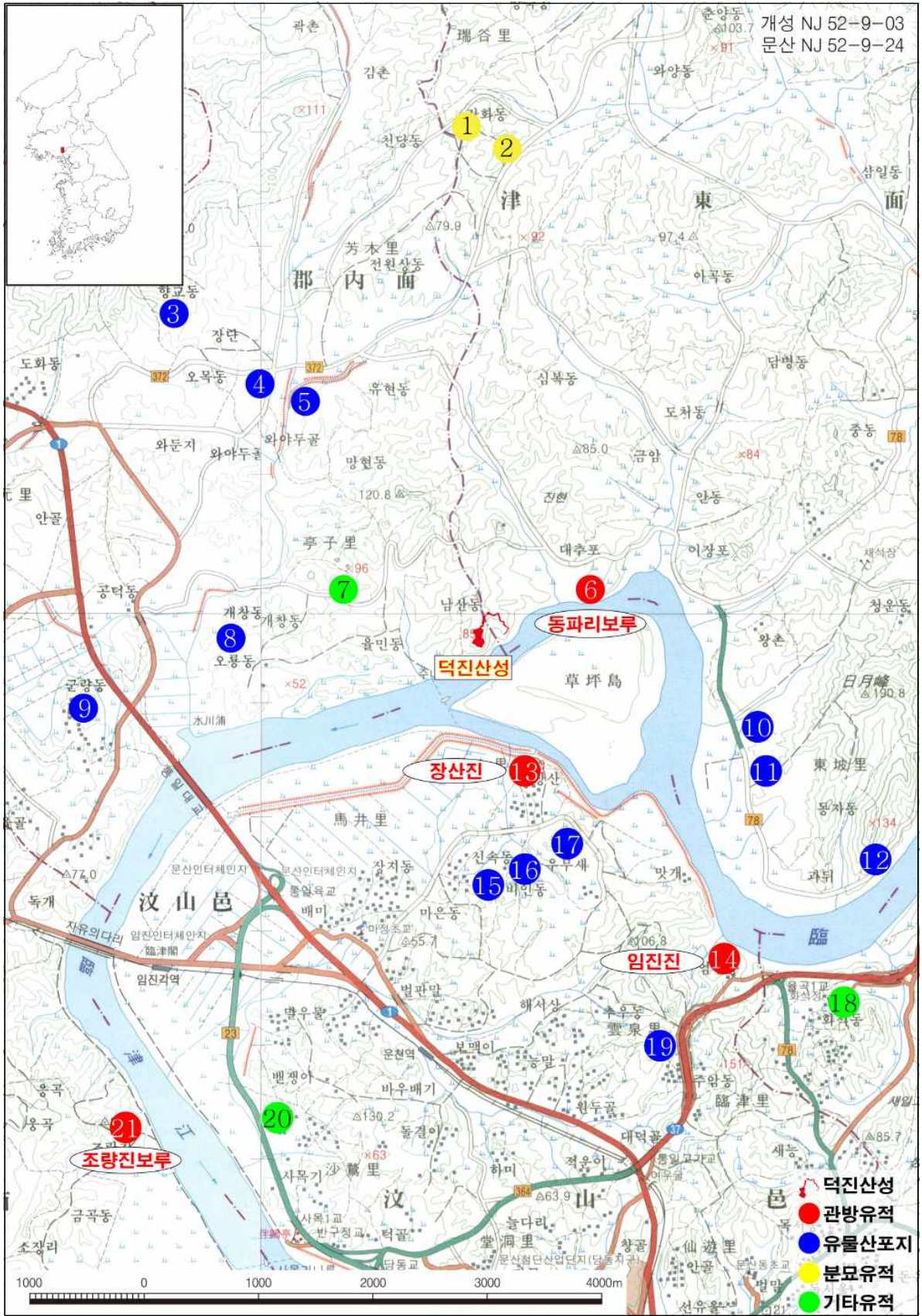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현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덕진산성 조사현황

구분	허가	면적	내용	비고
1차 (2012)	제2012-0693호	시굴-1,856㎡ 발굴-800㎡ (총 2,656㎡)	· 치1(북서쪽) · 북동쪽 성벽[치3(북쪽)] · 12-Tr.1~3 · 집수지 트렌치 조사(기조사 내용 확인) ⁴⁾	
2차 (2013)	제2013-0122호	시굴-1,800㎡ 발굴-700㎡ (총 2,500㎡)	· 치2(남서쪽) · 13-Tr.1~3	
3차 (2014)	제2014-0391호	시굴-2,100㎡ 발굴-1,000㎡ (총 3,100㎡)	· 북쪽성벽[치3(북쪽)] · 내·외성연접부[치3(북쪽)] · 외성문지 · 14-Tr.1~6	
4차 (2015)	제2015-0288호	상반기-2,080㎡ 하반기-144㎡ (총 2,224㎡)	· 치3(북쪽) · 집수지 및 주변 · 15-Tr.1	

본고에서는 4차례의 학술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성과를 차수별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4) 이에 대한 내용도 4차조사에서 기술하였다.



도면 1. 덕진산성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0 편집)

표 2. 덕진산성 주변유적 현황표

번호	유적명	소재지	시대	성격
1	서곡리 고려석실 고분군	진동면 서곡리 산 104번지	고려	고분
2	서곡리 벽화고분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	고려	고분
3	향교동 유물산포지	군내면 읍내리 향교동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4	읍내리 유물산포지	군내면 읍내리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5	와야두골 유물산포지	군내면 읍내리 와야두골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6	동파리 보루	진동면 동파리 일대	삼국	관방
7	이서 선정비	군내면 정자리	조선	선정비
8	오룡동 유물산포지	진동면 동파리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9	통일촌 유물산포지	군내면 통일촌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10	동파리 유물산포지	진동면 동파리 462·463번지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11	동파리 구석기유적	진동면 동파리 88·89번지 일대	구석기	선사
12	전진교 유물산포지	진동면 동파리 산 2번지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13	장산진	문산읍 장산리 산 7-1번지	고려	관방
14	임진진	문산읍 임진리 3-1번지	조선	관방
15	임진리 와적지	문산읍 임진리 8번지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16	장산리 구석기유적	문산읍 장산리 306-2번지 일대	구석기	선사
17	장산리 유물산포지1	문산읍 장산리 396번지 일대	청동기	유물산포지
18	장산리 유물산포지2	문산읍 장산리 378번지 일대	조선	유물산포지
19	화석정	파평면 울곡리 산 100-1번지	조선	전·각
20	반구정	문산읍 사목리 190번지	조선	전·각
21	조량진 보루	장단면 노하리 조량진	삼국	관방

II. 연혁

1. 축성관련 기록

1) 宣祖 34卷, 26年(1593년) 1月 17日(壬申) 8번째 기사

- “포천(抱川)에 주둔한 적이 김화(金化)·철원(鐵原)의 적과 서로 연락하며 사방으로 나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습니다. 또 토벌한다는 기별을 듣고 한 곳에서 합동으로 진을 치고 있으며, 개성의 적은 임진강 하류인 덕진단(德津壇) 근처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참호를 뚫으니 이곳에 웅거하여 지킬 계획인 듯합니다.”

2) 仁祖 1卷, 1年(1623년) 3月 13日(癸卯) 1번째 기사

- 상이 의병을 일으켜 왕대비(王大妃)를 받들어 복위시킨 다음 대비의 명으로 경운궁(慶運宮)에서 즉위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을 폐위시켜 강화(江華)로 내쫓고 이이첨(李爾瞻)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 ... 중략 ... 임술년 가을에 마침 이귀가 평산 부사(平山府使)로 임명되자 신경진을 이끌어 중군(中軍)으로 삼아 중외에서 서로 호응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모의한 일이 누설되어 대간이 이귀를 잡아다 문초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김자점과 심기원 등이 후궁에 청탁을 넣음으로써 일이 무사하게 되었다. 신경진과 구인후 역시 당시에 의심을 받아 모두 외직에 보임되었다. 마침 이서가 장단부사(長湍府使)가 되어 덕진(德津)에 산성 쌓을 것을 청하고 이것을 인연하여 그곳에 군졸을 모아 훈련시키다가 이때에 와서 날짜를 약속해 거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이 당시 정승 박승종(朴承宗)과 서로 인척이 되는 사이라 못 의논이 모두들 “도감군(都監軍)이 두려우니 반드시 이흥립을 설득시켜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장유의 아우 장신(張紳)이 흥립의 사위였으므로 장유가 흥립을 보고 대의(大義)로 회유하자 흥립이 즉석에서 내놓을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이서는 장단에서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고 이천부사(伊川府使) 이중로(李重老)도 편비(褊裨)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파주(坡州)에서 회합하였다.

3) 仁祖 3卷, 1年(1623년) 11月 10日(丙寅) 1번째 기사

- “평산산성(平山山城)은 기보(畿輔)와 매우 가까우니 이 성의 수비가 매우 긴요합니다. 일찍이 황해 감사 임서(林愔)로 하여금 이 성에 들어가 지키게 했는데 요즘 조치하는 상황을 전혀 치계하지 않고 있으니, 속히 하유하여 힘쓰게 함으로써 반드시 지킬 계책을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본사 당상 한 명을 보내어 평산 및 덕진(德津)·파주(坡州) 등 성의 수비 상태를 살피게 하소서.”

4) 仁祖 19卷, 6年(1628년) 10月 12日(己亥) 2번째 기사

- “과주 산성은 사면이 가파르나 우물이 부족한데, 남북의 언덕에는 다 솟는 샘이 있습니다. 만약 각각 2백여 보를 물려 쌓는다면, 샘이 밖에 있으나 화살이 닿는 곳이라 적이 감히 접근할 수 없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덕진산성(德津山城)은 산세의 높고 가파름이 파주정보다는 못합니다. 남쪽으로 큰 강에 임했으나 서쪽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외성은 이미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 중략 ... 다만 본성이 터가 있기는 하지만 성은 다 무너져버려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은 수축이나 공사는 실로 새로 쌓는 것입니다. 근처 서너 고을의 백성을 부역시키지 않는다면 석 달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신은 확신합니다. 하물며 굶주린 백성에 대한 진휼은 열흘치 지급하는 것이 쌀 7되에 불과한데, 이것도 오히려 계속하기 어려울까 걱정인데 어떻게 1백명에게 10말씩 석 달 치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하략”

5) 『東國輿地志』 長湍都護府 古蹟條(1670년대)

- 덕진고성은 석축성으로 산을 잘라 걸쳐있고, 단수(湍水)를 굽어보며 제압하는 형세를 지니고 있다. 오래전에 허물어져 성 둘레는 알 수 없고, 광해군시 장단도호부사 이서(李曙, 1580~1637)가 수축하였으나 다시 허물어졌다.

6) 『大東地志』 長湍 城池條 (1864)

- 덕진고성은 장단 남쪽 15리 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해군시 고성을 수축하였다.

7) 『增補文獻備考』 輿地考 關防條(1909)

- 덕진산성 : 장단도호부의 서쪽에 있는 석축으로 오래 동안 허물어졌다. 광해군시 수축하였지만 지금은 허물어진 상태이다.

8)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3)

- 덕진산성이라 칭하고 있으며, 석축의 둘레가 약 600간⁵⁾이며, 도처가 붕괴되었고 축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광해군 때 수축하였다고 한다.

상기내용들은 덕진산성 축성과 관련된 기록이다. 이들 기록은 모두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것들로 초축시기를 파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를 통해 덕진산성이 고려~조선시대 이전에 축조되어 어느 시점에 폐기되었으며, 이를 광해군(재위 1608~1623)대에 수축되었다는 것을

5) 1간은 6자로 1.81818m이다. 따라서 당시 측량된 성벽의 둘레는 약 1,091m로 추정해볼 수 있다. 2004년 육군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지표조사 당시 측량한 성벽의 둘레는 내성이 481m, 외성이 948m였다. 그러나 2013년 13-Tr.3의 남동성벽 조사에서 성벽의 상당부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살펴보면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서는 붕괴된 성벽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외성과 남아있는 내성 일부만이 측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선조 26년(1593) 기사(①)는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전쟁기사로 개성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왜군이 덕진산성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목책을 설치하고 진지로 이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인조 1년(1623)의 기사(②)로 덕진산성이 인조반정(1623)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광해군 재위시에 이서가 장단부사가 되었는데, 이때 덕진산성의 수축을 건의하여 산성을 수축하고, 그곳에 군사를 모아 훈련을 시켜 인조반정에 참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인조실록 3권의 기사(③)는 덕진과 파주 일대의 관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상관을 파견하기를 중용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기사(④)는 무너져 버린 파주성 및 덕진산성에 대한 수축관련 기사이다. 이 기사는 인조 6년(1628)의 것으로 이 시기에 이르면 산성이 대부분 무너져 버려 실상 새로 쌓는 것과 다름없고, 국가 재정 상태를 통해 보아도 많은 인력을 수축공사에 동원하는 것은 어려우니 이는 파주 목사에 게 일임하고 국가에서는 군량과 기계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그치자는 내용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덕진산성은 이미 조선시대 이전에 허물어져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1623년에 장단부사 이서가 수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덕진산성은 1628년에 거의 새로 쌓을 정도로 무너져 버려 수축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을 쌓고 5년만에 새롭게 축성할 정도로 허물어져 버렸다는 점은 그 견고성은 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성벽 발굴조사시 많은 수·개축 흔적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후 어떠한 기록(⑤~⑧)에서도 덕진산성에 관한 축성기사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지 과거 수축한 내용과 무너진 산성의 상태만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덕진산성은 장단부사 이서가 수축한 이후, 즉 17세기 이후에는 대대적인 축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성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퇴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사관련 기록

1) 太祖 9卷, 5年(1396년) 4月 17日(甲辰) 1번째 기사

- 내시(內侍)를 유후사의 박연(朴淵)과, 임진현(臨津縣)의 덕진(德津)과, 개성현(開城縣)의 대정(大井)과 해풍군(海豐郡)의 남진(南津)과, 연안부(延安府)의 대지(大池)에 나누어 보내어 제사지내고, 포주(抱州) 해룡왕사(海龍王寺)와 강음(江陰) 천신사(天神寺)에도 제를 올려 비를 빌게 하였다.

2) 太宗 1卷, 1年(1401년) 4月 16日(甲戌) 3번째 기사

- 대신(大臣)을 개성(開城)의 대정(大井)·박연(朴淵)·덕진(德津)에 나누어 보내어 비를 빌었다. 임금이 비를 빌고, 성변(星變)을 없애기 위하여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신(朴信)을 신도(新都)의

소격전(昭格殿)에 보내어 태일초재(太一醮齋)를 별전(別殿)에서 행하게 하고, 시독(侍讀) 김과(金科)로 하여금 궐내(闕內)에서 재계(齋戒)하고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進講)하게 하였다.

3) 世祖 8卷, 3年(1457년) 8月 2日(癸巳) 3번째 기사

- 세자(世子)의 병(病) 때문에 행 상호군(行上護軍) 김수온(金守溫)을 소격전(昭格殿)에 보내고, 행 상호군(行上護軍) 이중(李重)을 송악(松岳)에 보내고, 행상호군(行上護軍) 이연손(李延孫)을 감악산(紺岳山)에 보내고, 판서운관사(判書雲觀使) 양성지(梁誠之)를 대정(大井)에 보내고,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성임(成任)을 덕진(德津)·양진(楊津)·덕적도(德積島)에 보내어,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려서 기도(祈禱)하게 하였다.

4) 光海 16卷, 1年(1609년) 5月 4日(甲申) 4번째 기사

- 예조가 아뢰기를,
“기우제를 절목에 따라 차례차례 거행하여 이미 네번이나 지냈으나 가뭄이 날로 심하여 그 재해가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릴 듯합니다. 이는 바로 모든 귀신에게 빌어야 할 때이니, 전례에 따라 맹인과 무너는 경회루 연못 옆 석척기우처(蜥蜴祈雨處)에서 오는 6일에 기우제를 거행하여 3일 동안 지내도록 하며, 오방토룡제(五方土龍祭)도 날을 택하여 거행하며, 삼각산·목멱산·한강에는 근신(近臣)을 파견하고 풍·운·뇌·우와 산천·우사(霧祀)에는 중신을 파견하여 모두 6일에 기우제를 올리며,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송악(松岳)·오관(五冠)·감악(紺岳) 등 산과 덕진(德津)·양진(楊津) 등에는 중신을 파견하여 오는 8일에 기우제를 올리도록 하되, 정성스레 기도하여 귀신이 감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

5) 肅宗 15卷, 10年(1684년) 7月 4日(戊辰) 3번째 기사

- 가뭄이 마르는 것이 더욱 심하니, 중신(重臣)을 보내어 양진(楊津)·덕진(德津)·오관산(五冠山)에 기우(祈雨)하고, 또 특별히 근시(近侍)를 보내어 나라 안의 옛 싸움터 여러 곳에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6) 五禮 / 吉禮 序例 / 辨祀

◎ 변사(辨祀)

○ 대사(大祀) -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이다.

○ 중사(中祀)

- 풍운뢰우(風雲雷雨)와 【산천(山川)과 성황(城隍)도 붙여 제사한다.】 악·해·독(嶽海瀆) 【지리산(智異山)은 전라도 남원(南原)의 남쪽에 있고, ... 중략 ... 덕진(德津)은 경기(京畿) 임진(臨

津)에 있고, ...두만강(豆滿江)은 함길도(咸吉道) 경원(慶源)에 있다.】 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와 【구망(句芒)은 목정(木正)이요, 축융(祝融)은 화정(火正)이요, 후토(后土)는 토정(土正)이요, 옥수(蓊收)는 금정(金正)이요, 현명(玄冥)은 수정(水正)이요, 후직(后稷)이다.】 문선왕(文宣王)·조선(朝鮮) 단군(檀君)·후조선(後朝鮮) 시조(始祖) 기자(箕子)·고려 시조(高麗始祖)이다. ... 하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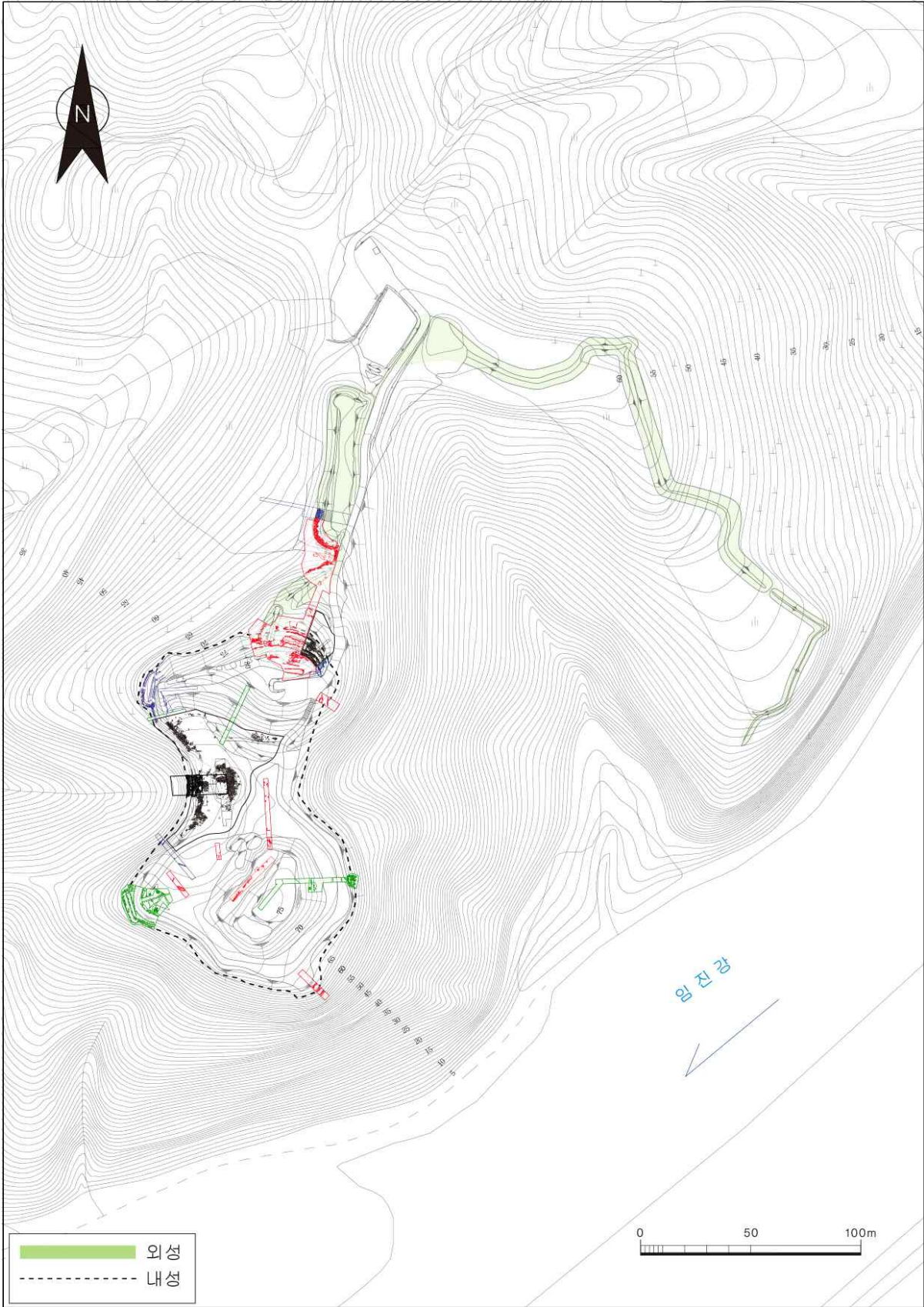
7) 地理誌 / 黃海道 / 延安都護府 / 牛峯縣

- 이상한 일(靈異). 박연(朴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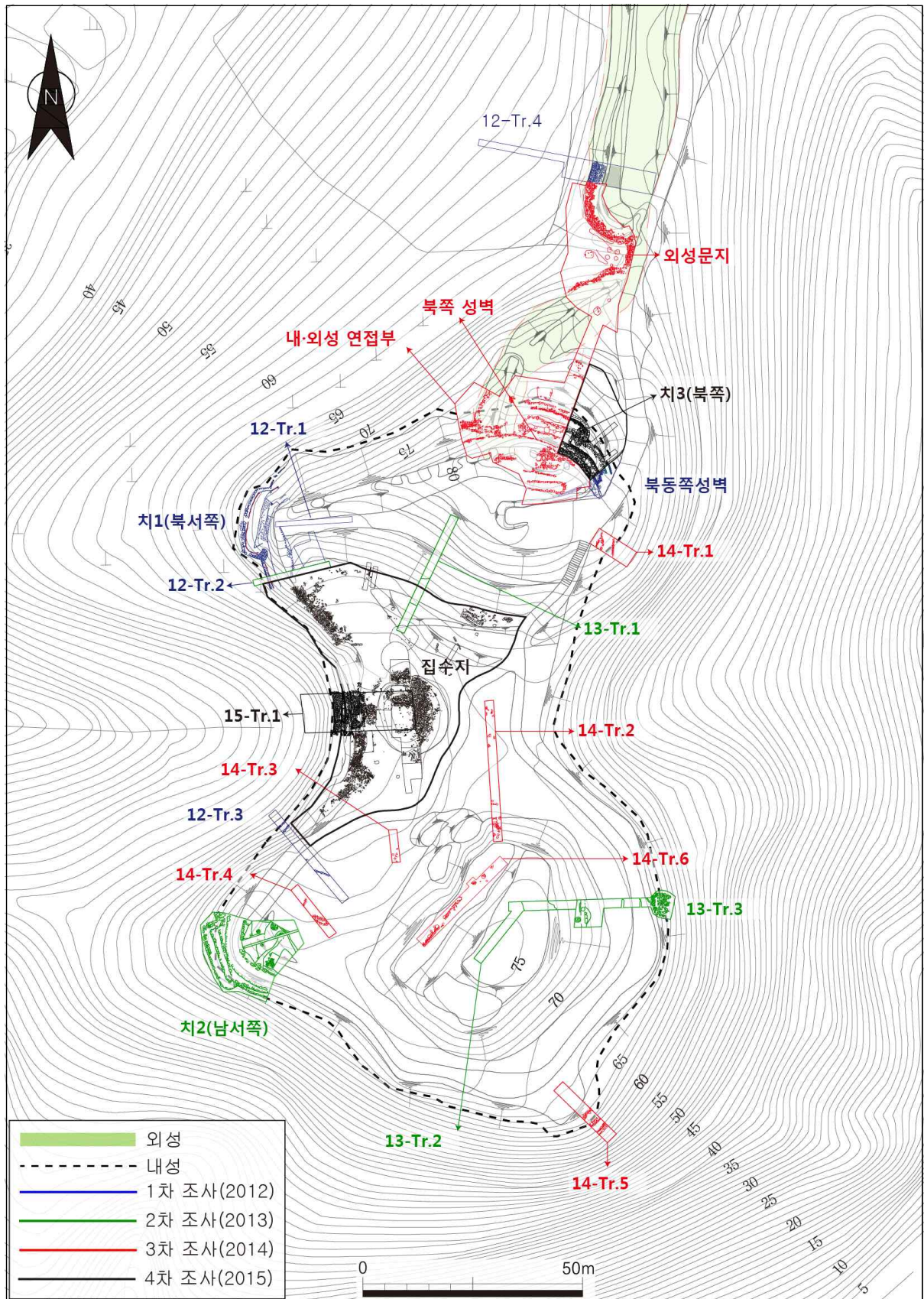
이규보(李奎報)가 이르기를, “예전에 박진사(朴進士)라는 자가 있어, 피리를 못 위에서 부니, 용녀(龍女)가 감동하여, 그 남편을 죽이고 〈박진사를〉 데려다 남편을 삼았으므로, 박연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위·아래 못이 있는데, 모두 그 깊이를 알 수 없다. 개성(開城)의 한우물(大井)과 임진(臨津)의 덕진(德津)과 함께 세 곳 용왕(龍王)이라 하여, 가물 때 비를 빌면 응험이 있으므로, 지금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게 한다... ..

태조, 태종, 세조, 숙종대의 기사는 덕진단 관련 기사 중 대표적인 것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기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덕진단 기사(①~⑤)는 모두 제사에 관련된 것이며, 그 중에서도 기우제에 대한 기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의 제사는 조선 초부터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제사의 예법(⑥)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덕진단에서의 제사는 풍운뢰우(風雲雷雨)와 산천(山川) 성황(城隍)에 제사지내는 중사(中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지리지의 기사(⑦)는 덕진이 용왕이 사는 곳이고 이에 대한 기이한 일들에 대한 내용이다. 용왕은 물의 신으로 비와 관련 있는 신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매년 제사를 지냈던 것이고, 특히 가뭄이 있을 때 기우제를 올렸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덕진단에서의 기우제는 덕진산성이 더 이상 산성으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덕진산성에서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유물과 함께 조선시대 유물도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 유물의 일부는 덕진단과도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2. 덕진산성 전체현황도



도면 3. 덕진산성 조사현황도

Ⅲ. 조사내용

1. 1차 조사(2012년)

1) 치1(북서쪽) 및 12-Tr.1~2

치1은 해발 77.1m 지점에 위치하며, 2004년도 조사에서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다. 현재 확인되는 성벽 중 가장 바깥쪽 성벽의 축조수법을 통해 덕진산성이 고구려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근거가 되었다.⁶⁾ 조사결과 치1은 석축부와 토축부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축부는 내성 북서쪽 해발 74.7m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선축된 토축부의 외벽을 완만한 경사로 절개한 후 쌓았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2,450.6cm, 높이 540.7cm이며, 다단(5단)의 형태로 남아있다. 조사결과 1차성벽과 그 외벽에 덧대어 붙여진 2개의 치와 기단보축, 그리고 2차성벽이 확인되었다.

1차성벽은 선축된 토축부를 완만한 경사로 절개한 후 성벽을 쌓았다. 외벽은 치3(북쪽)에서 확인되는 1차성벽과 축조수법이 동일한데, 20~50cm 내외의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그리고 면석사이의 빈틈은 잔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으나 잔돌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수한 흔적이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1,993cm, 높이 320cm, 기울기는 약 81° 이다.

1차치는 2차치와 접해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 1차성벽 기단보축과 이어진다. 평면은 사다리꼴이며, 단면은 성 안쪽을 향하여 비스듬하게 쌓았다. 전체적인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벽은 20~50cm×15~25cm 내외의 방형 및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나, 치1보다 축조수법이 조잡하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147.2cm, 높이 163.7cm, 기울기는 약 6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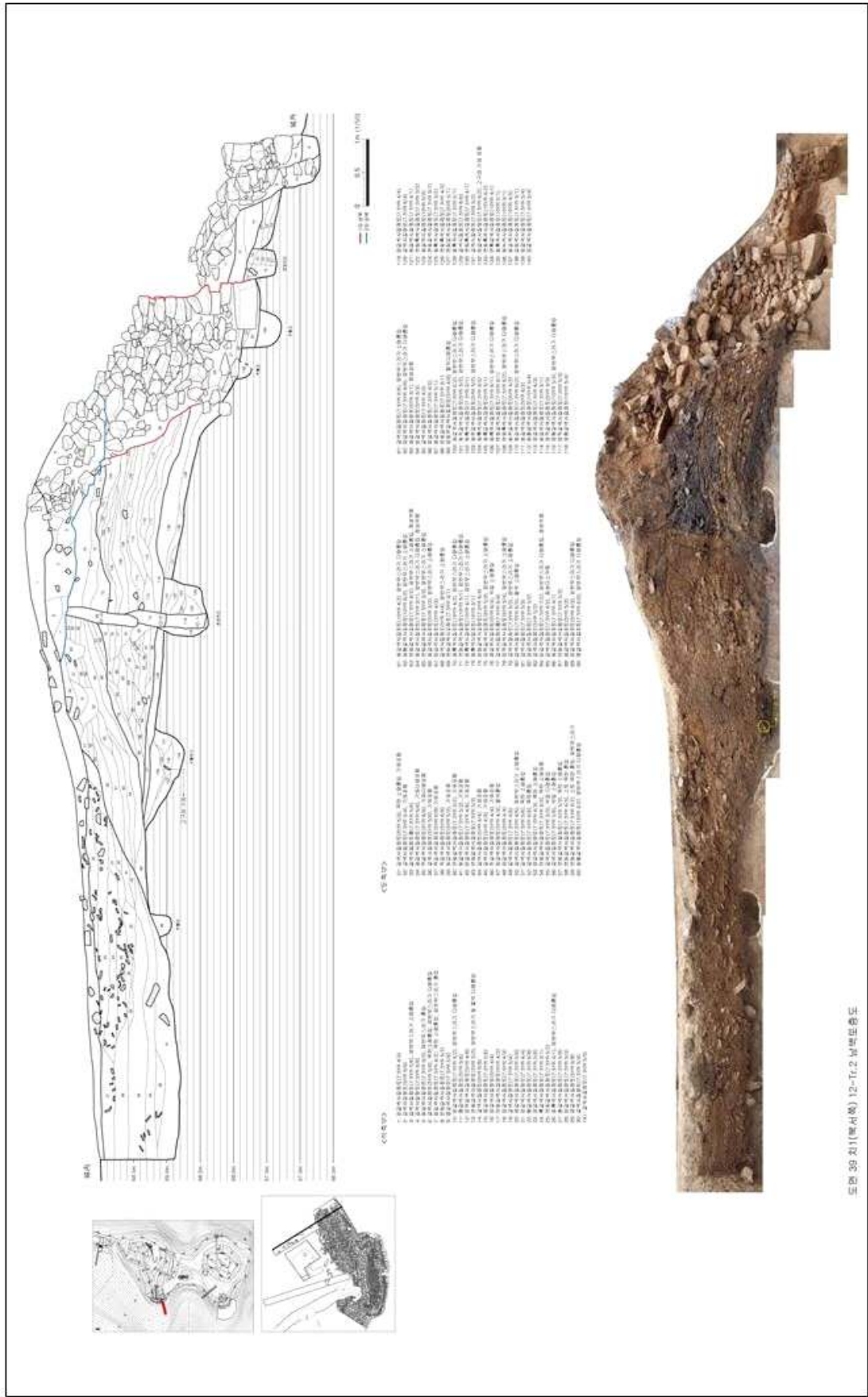
2차치는 1차치 상면에 축조되었으며, 일부가 균 참호로 인하여 유실되었다.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으로 추정되며, 단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다.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벽은 30~60cm×15~30cm 내외의 방형 및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면석 사이의 빈틈을 잔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740.1cm, 높이 121.1cm, 기울기는 약 66°이다.

치 기단보축은 1차와 2차치의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다. 평면형태는 직사각형이며, 단면형태는 성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쌓았다.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벽은 30~60cm×10~30cm 내외의 장방형계 및 부정형 할석을 이용하여 조잡하게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적심은 소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전체적으로 축조수법이 조잡스러운 것으로 볼 때, 여러차례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464.8cm, 높이 285cm, 기울기는 약 53°이다.

6) 이 바깥쪽 성벽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1. 치1(북서쪽) 전경 및 세부



2차성벽은 既조사에서 고구려에 의해서 축조된 성벽으로 알려져 있었던 곳으로, 금번 조사 결과 치 기단보축보다 후대에 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돌이 많이 유실되어 1단정도만 남아있다. 기저부는 암반을 정지한 후 성벽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비 15~20cm, 깊이 20cm정도로 굴착하였으며, 내부는 회갈색과 암갈색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다졌다. 외벽은 30~60cm×10~30cm의 화강암제 할석으로 바른 층쌓기를 하였으며, 상부로 갈수록 5~10cm 들여서 쌓았다. 적심은 10~30cm의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토축부[12-Tr.1~2]는 해발 77.1m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후축된 석축부와 접해있다. 기반을 정지하고 영정주를 설치한 후, 암적색 암반토와 사질토를 이용하여 층층이 쌓고 다졌다. 영정주의 위치는 하부와 상부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벽을 쌓으면서 영정주의 위치를 옮겼음을 알 수 있다.

2) 12-Tr.3

12-Tr.3은 집수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31m 떨어져 위치하며, 곡부를 두르는 성벽 남서쪽으로 돌출된 부분에 해당한다. 남서쪽 트렌치는 내성의 기준 토층을 설정하려는 의도로 길이 26.5m, 폭 1.65m의 규모로 설치하였으나, 문화층이 확인되어 초축성벽과 관련된 층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사결과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진 1차성벽과 그 외벽에 덧대어진 기단보축, 보강토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석축부 안쪽으로 시기를 달리하는 내벽과 후대 성벽, 그리고 와적층과 건물지 기단석렬 등이 조사되었다.



사진 2. 12-Tr.3 전경

2. 2차 조사(2013년)

1) 치2(남서쪽)

치2(남서쪽)는 해발 68m 내외에 위치하며, 남서쪽으로 뺏어내리는 능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치1(북서쪽)이 넓은 곡부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며, 남쪽으로 임진강이 곡류하고 있다. 조사결과 치1(북서쪽)과 유사한 형태이며, 토축부와 석축부로 이루어졌다.

석축부는 선축된 토축부를 절개한 후 쌓았으며, 계단상(4단)으로 남아있다. 조사전 상황은 후대 유실로 인하여 외벽의 성돌이 많이 훼손되고 적심이 다량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경사가 급해지는 남쪽부분은 외벽뿐만 아니라 적심까지 유실된 상태이다. 조사결과 선축된 토축부에 덧대어서 1차 성벽이 축조되었으며, 그 외벽에 2개의 치가 설치되었고, 2차성벽이 축조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2,004cm, 너비 632cm, 높이 519.5cm이다.

1차성벽은 초축된 토축부 일부를 삭토한 후 성벽을 쌓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형태는 호상(弧狀)이다. 후대 유실로 인하여 외벽의 성돌이 많이 훼손되고 적심이 다량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경사가 급해지는 남쪽부분은 외벽뿐만 아니라 적심까지 유실된 상태이다. 외벽은 길이 25~40cm, 높이가 15cm 내외의 (세)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면석 사이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쌓았다. 적심은 다양한 크기의 거친 할석과 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내벽은 외벽에서 약 2.5m 지점에서 확인되며, 유물은 고구려 기와편 1점이 제토중에 수습되었으나,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다량 출토되었다. 규모는 길이 1,717cm, 높이 519cm, 기울기 88° 정도이다.

1차치는 1차 성벽과 2차치 사이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쪽과 남쪽에 위치한 1차성벽 기단보축과 이어진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확인된 잔존규모는 길이 11.2m, 너비 1.0m, 높이 1.6m 정도이다. 외벽은 길이 35~40cm, 높이 15~20cm의 (장)방형의 할석으로 조잡한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면석 사이의 빈틈은 작은 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 단면형태는 거의 수직에 가까우나, 일부는 비스듬한 형태가 확인된다. 축조방식이 상부와 하부가 다른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보축의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할석을 이용하지 않고 적갈색점토와 흑갈색사질점토+암반부스러기[보강토]를 이용한 점이 특징적이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대부분편과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2차치는 1차성벽의 불룩한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사다리꼴이다. 외벽에는 가설목 흔적으로 추정되는 수직홈이 5개가 확인되며, 규모는 폭 30~40cm, 높이 80~95cm이다. 수직홈 간의 거리는 대체로 180~23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치의 외벽은 전체적으로 5개의 수직홈을 기준으로 각각 다른 축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길이 25~30cm, 높이 10~17cm 내외의 (장)방형계 할석을 이용하여 거의 수직에 가깝게 쌓았으며, 내부는 25~45cm의 거친 할석과 황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운 양상이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확인된 잔존규모는 길이 10m, 너비 50cm이며, 높이 125cm, 기울기 81° 정도이다.



사진 3. 치2(남서쪽) 석축부 전경 및 세부



사진 4. 치2(남서쪽) 토축부 전경 및 세부

2차성벽은 1차성벽과 치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2차치의 보강토 일부를 삭토한 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확인된 규모는 길이 14.8m, 너비 170cm, 높이 60cm 정도이다. 외벽은 길이 30~35cm, 높이 15cm 정도의 잘 다듬은 (장)방형계의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하부에서 중간까지는 바른층쌓기로 수직에 가깝게 쌓았고, 상부로 갈수록 6~13cm로 들여쌓아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적심은 약 30~50cm의 할석과 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토축부는 후대 보수와 석축부로 개축되면서 원래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다. 층위는 초축층(기저부 정지층, 다짐층)과 수축층(보수, 시설물 설치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총 3회 정도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축조방식은 기저부를 정지한 후, 영정주를 세우고 암반부스러기와 고운 점토를 이용하여 호상(弧狀)으로 단단히 다져서 조성하였다. 이후 흑색사질토+암반부스러기와 적갈색사질토+암반부스러기 혹은 황색사질점토와 사질토를 이용하여 층층이 교대로 쌓아올렸으며, 부분적으로 황색점토를 깔아서 층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트렌치 장벽과 단벽의 토층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축조방법은 유사하나, 사용된 토질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징적이다. 특히 단벽의 축조양상이 층층이 교대로 쌓아올린 것이 아니라 장벽에서 이어져오는 각각의 층들이 교차되고 있다. 이러한 교차양상은 토축부를 축조할 때 일정한 구역을 설정한 후 쌓아올린 것으로 판단되며, 각 구역의 경계부분으로 추정된다. 평면에서는 토축부 보수층, 석축부가 조성될 당시 토축부를 삭토한 흔적, 석환군, 추정 투석기 지지목주, 수혈 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후대 건물지와 구상유구가 토축부 내측 평탄면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인화문 토기 뚜껑편, 대부완편, 기와편 등과 고려~조선시대 청자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비율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압도적으로 높다.

2) 13-Tr.1

13-TR.1은 집수지 북쪽 사면부에 성벽과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성벽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건물지 흔적을 확인하였다. 해발 71~78m에 위치하며, 경사가 비교적 급한 편이다. 토층은 표토층-흑색사질토+암반부스러기층-풍화암반층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단부는 흑갈색사질토+암반부스러기층 아래로 황갈색사질점토층(문화층)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트렌치 남쪽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1기를 확인하였다. 내부토는 황갈색사질점토로 채워져 있으며, 건물지와 관련된 석재가 일부 노출되었다. 유물은 황갈색사질점토층 상면에서 적갈색과 회청색의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2) 13-Tr.2

13-TR.2는 덕진당 정상부에 대한 유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해발 75m 내외의 구릉 정상부에 설치하였으며, 주변은 넓은 평탄지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토층은 표토층 아래



사진 5. 13-Tr.3 전경 및 세부

풍화암반층이 바로 확인되었으며, 균 참조 조성으로 인한 교란층도 일부 확인된다. 유물은 지표면에서 회청색을 띤 경질의 기와편이 산발적으로 확인되나, 이와 관련된 유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3) 13-Tr.3

해발 60~75m에 설치하였으며, 사면부는 비교적 경사가 급하다. 조사전 상황은 탐방로 개설과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지형훼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덕진당 남동쪽 사면 하단 부에서 건물지 1기를 확인하였고, 내성벽 일부를 확인하였다. 건물지와 관련된 기단석렬과 담장열, 적심, 주혈을 각각 확인하였으나, 후대의 훼손으로 인하여 잔존상태는 매우 불량하다. 유물은 적갈색과 회청색 기와편이 확인되며, 문양은 승문, 격자문, 무문이 주를 이룬다. 성벽은 토축부와 석축부로 이루어졌다. 토축부는 기저부를 정지한 후, 사질토와 점질토를 교대로 층층히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토축부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기단석렬을 설치하고 그 위로 기와편을 다량으로 깔아 성벽을 수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부는 선축된 토축부 외벽을 절개한 후 쌓았으며, 일부만 조사되어 명확한 구조파악이 힘들다.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2차례 이상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벽은 1단 정도만 확인되며, 길이 35~45cm, 높이 15~20cm의 잘 다듬은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적심은 35~50cm의 거친 할석을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토축부에서 인화문토기 구연부편과 적갈색과 회청색 계통의 기와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석축부에서는 회청색 계통의 기와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3. 3·4차 조사(2014~2015년)

1) 치3(북쪽)

치3은 내성 북쪽 봉우리 해발 약 80m 내외에 위치한다.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주능선 최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내성에서 제일 높으며, 사방을 조망할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성 안쪽에 토축부와 성 바깥쪽에 석축부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고구려에 의해 초축된 토축부와 통일신라~조선시대에 수축된 석축부를 확인하였다. 석축부에서는 선축된 토축부를 완만한 경사면으로 절개한 후 쌓은 1차성벽과 그 외벽에 덧대어진 2개의 치와 치 기단보축, 그리고 2차성벽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치1(북서쪽)과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외성과 이어지는 부분도 조사가 되었으며, 트렌치 조사를 통하여 내·외성의 선후관계 및 외성의 축조시점을 확인하였다. 토축부에서는 삼국(고구려)시대 수혈건물지·건물지·수혈유구와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그리고 고려~조선시대 고대지·건물지 등이 토축부 초축층을 중심으로 상·하층에서 확인되었다.

(1) 석축부 - 성외(城外)

1차성벽은 선축된 토축부의 외벽을 완만한 'L'자형으로 삭토한 후 축조하였으며, 후대 유실로 인하여 성돌이 많이 유실되어 적심이 다량 노출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토압(土壓)으로 인하여 배가 불러 있는 곳도 있다. 길이 약 25m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남동쪽과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호상(弧狀)이며,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저부는 토축부 외벽과 생토면을 별다른 시설없이 정지하였으나, 지대석이 놓이는 부분은 성벽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턱을 두었다. 지대석은 60cm 정도의 치석(治石)된 세장방형의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외벽은 지대석에서 성 안쪽으로 약 20~30cm 들어서 쌓았다. 축조방식은 바른층쌓기이며, 크기 40cm 정도의 장방형계 할석을 이용하였고 잔돌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지대석을 포함하여 약 20단이 남아있다. 적심은 크고 작은 거친할석을 이용하여 채웠으며, 보강토는 갈색 계통의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1차성벽 기저부를 강화하였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3,430cm, 높이 400cm 정도이다. 유물은 1차성벽 적심 내부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어 그 축조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1차치는 1차성벽에서 약 60~110c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그 사이에는 2차치가 자리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2차치와 열을 맞추어 사다리꼴로 돌출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를 볼 때 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동쪽과 서쪽에서 확인되는 1차 성벽 기단보축과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다. 외벽은 1~10단이 남아있으며, 1차성벽으로부터 약 60~110cm 이격하여 성벽보다 낮은 곳부터 외벽을 쌓았다. 약 30~60cm의 장방형 및 부정형할석으로 조잡하게나마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면석사이의 빈틈은 잔돌을 끼워 견고성을 높였다. 적심은 갈색 혹은 흑색 계통의 사질점토로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소토와 목탄이 확인되었다. 1차치를 보강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치 기단보축과 유사한 형태로 보강한 보축성벽이 확인된다. 이 보축성벽 기저부에서 통일신라시대 완편이 확인되었다. 규모는 길이 1,420cm, 높이 64cm 정도이다. 한편 1차치 상면에 외성과 관련된 점토층과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치의 적심 상면을 점성이 강한 황색사질점토로 피복하였으며, 그 위로 외성과 내성을 이어주는 출입시설이 축조되었다. 층위상 제일 상층에 있어 외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차치는 1차치 상면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1차치의 적심을 굴착하여 정지한 면에, 그 위로 크기 90cm 이상의 세장방형의 치석된 장대석을 놓은 후, 크기 30~55cm의 장방형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3~5단 정도가 남아있다. 적심은 흑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와 크고 작은 거친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보강토는 1차성벽 기단보축이 조성되면서 유실되어 약 20cm 정도의 두께만 남아있다. 1차치와 2차치의 서쪽부의 사이에는 허튼층쌓기로 30~40cm의 할석이 쌓아올려져 있는데, 성벽 수축흔으로 보인다. 규모는 길이 850cm, 높이 133cm 정도이다.

치 기단보축은 2차성벽과 1차치 사이에 위치하며, 치의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다. 전체적으로 2차치 중단부까지 쌓은 것으로 보인다. 1차치에서 북쪽으로 약 1.5m, 2차치에서 남쪽으로 약 4m 떨어져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외벽과 적심, 그리고 보강토로 이루어졌다. 기저부는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단면 'L'자상으로 굴착하였으며, 외벽은 크기 40~80cm의 다듬지 않은



사진 6. 치3(북쪽) 석축부 전경

할석과 점성이 강한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성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허튼층쌓기를 하였다. 그리고 상부 쪽에 납작한 석재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1단 정도가 남아있다. 보강토는 적갈색사질점토가 단면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2차성벽이 축조되면서 유실되었다. 보강토 내부에서 통일신라시대 암키와가 출토되었다.

2차성벽은 1차치와 2차치의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축조하였으며, 치 기반보축의 보강토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구조는 외벽과 적심 그리고 보강토로 이루어졌다. 기저부는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평평하게 정지하였으며, 그 위로 크기 50cm 정도의 치석된 장대석을 기초로 놓았다. 전체적으로 하단부에는 1~2단만 잔존해있으나, 일부 측면부에서는 5~6단이 남아있다. 적심은 갈색 계통의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보강토는 황색 계통의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외성연접부에서의 트렌치 조사를 통해 기와를 겹겹이 쌓아올린 두터운 보강토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성벽이 축조된 이후, 1차례 수축이 이루어졌다. 성벽의 보강을 위해 와적층을 조성한 후, 1차성벽의 반 이상까지 무질서하게 쌓아올린 것으로 보이며, 계단상으로 조성한 것으로 볼 때 등성시설의 역할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토축부 - 성내(城內)

① 삼국(고구려)시대

삼국(고구려)시대 유구들은 既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선축된 토축부 초축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그 종류는 수혈건물지 1기(내부시설:부뚜막 2기, 주혈 1기)·건물지 1기·수혈유구 2기·주혈 1기이다.

수혈건물지는 1기가 조사되었으며, 잔존상태는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유구와의 중복과 후대 교란으로 인하여 좋지 않다. 수혈건물지 축조 전에 대지를 조성하였는데, 토축부 초축층(중심토루 및 내피토루)과 생토면에 황색점토를 이용하여 평평하게 깔았다. 이후 점토층을 완만하게 굴착하여 벽면을 만들었으며, 바닥면에도 점토를 깐 것으로 판단된다. 평면형태는 동쪽과 남쪽 벽이 유실되어 정확하지 않으며, 내부시설은 부뚜막 2기를 확인하였다. 서쪽에 있는 것이 1호, 동쪽에 있는 것이 2호이다. 잔존상태가 양호한 1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부뚜막은 점토 띠를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만들었으며, 잔존규모는 길이 120cm·너비 60cm이다. 중앙에 위치한 붓돌을 경계로 아궁이와 연도부로 구분된다. 아궁이쪽은 낮게 굴착하여 불효율을 높였으며, 연도부는 약간 경사지게 굴착한 후 납작한 할석 3개를 올려놓아 연기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부뚜막 바닥면과 점토띠에는 피열흔이 관찰되며, 목탄도 소량 출토되었다. 바닥면에 지각 혹은 지각공은 확인되지 않았다. 2호 부뚜막은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와의 중복과 후대 교란으로 인하여 바닥만 남아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1호 부뚜막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1·2호 부뚜막 사이에서는 주혈 1기가 조사되었는데, 직름 약 25cm 정도의 목주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수혈건물지 북서쪽에 위치하며, 일부만 확인되었다. 건물지 축조를 위한 대지조성층과 주혈 3기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형태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확인된 주혈 3기 중 중앙에 위치한 주혈에 대한 단면조사가 이루어졌다. 목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질점토와 목탄, 소토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매몰한 층위양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기둥을 뽑아낸 후 매몰하여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수혈유구 1기가 통일신라시대 2호 수혈유구 동쪽 부근에서 확인되었는데, 상층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4호 수혈유구와 상·하층으로 중복되어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형태나 성격은 알 수 없다. 유물은 수혈건물지 바닥면과 1·2호 부뚜막 내부, 그리고 건물지 대지조성층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②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유구는 수혈유구만 확인되었으며, 총 4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토축부 수축층, 즉 고구려 유구조성층 상면에서 확인되었으며, 서쪽에 있는 것부터 1호·2호·3호·4호 수혈유구로 구분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유구는 1·2·3호 수혈유구이며, 전체적으로 후대 교란이나 성벽 수축으로 인하여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평면형태는 2호 수혈유구만 말각방형으로 확인되었을 뿐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내부토층은 단일하게 확인되며, 특히 2호 수혈유구는 크고 작은 할석과 기와편이 매몰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수혈유구 내부에서 확인되는 시설은 없으나, 2호 수혈유구에는 4개의 주혈이 네 모서리쪽에 편중해서 확인되었다. 모든 주혈에서 지름 약 15cm의 목주흔이 확인되며, 깊이는 얇은 편이다.

유물은 1·2·3호 수혈유구 바닥면에서 기와편과 철기편이 출토되었다. 기와편은 선문, 태선문 계통의 연결 기와가 주를 이루고 있다.

③ 고려~조선시대

고려~조선시대 층은 표토층 아래에서 확인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토축부 수축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고대지(高臺址) 1기와 건물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층위상 고대지가 나중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대지는 내성 제일 높은 곳에 축조되어 있어 주변을 조망하는데 매우 좋다. 전체형태는 동쪽일대가 군 참호 조성으로 인하여 크게 훼손되었고, 장방형으로 추정된다.⁷⁾ 외벽은 동쪽을 제외한 서·남·북쪽에서 확인되었다. 북쪽 일대는 통일신라시대 석축부를 이용하여 증축(增築)하였으며, 남쪽은 크기 30~45cm 정도의 거친 할석과 45cm의 잘 다듬은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주위에 위치한 성동을 재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에는 흑갈색과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작은할석을 이용하여

7) 발굴조사 당시 동쪽 일대만 조사가 되었다. 정확한 범위 파악을 위하여 남쪽 외벽과 서쪽 일대를 노출한 결과 모서리 부분이 확인되어 그 대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었다.



사진 7. 치3(북쪽) 토축부 전경

채웠으며, 상면에는 크고 작은 거친 할석을 이용하여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선축된 석축부의 남쪽 일대에 신축(新築)하여 협축식으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고대지 북쪽 끝단부, 즉 석축부와 접하는 곳이 약간 도드라지는데, 여장과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납석제 소호와 통일신라~조선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그 외 건물지는 1기가 확인되었으며, 토축부 수축층 상면에 축조되었다. 고대지와 관계는 주축 방향이 다른 점과 층위상 고대지가 상층에 위치하고 있어 시기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기단석렬 2열만 남아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특히 남쪽일대는 후대 교관으로 관련시설물이 모두 유실되었다. 건물 축조에 앞서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와 다량의 기와편을 이용하여 평평하게 대지조성을 한 후 그 위로 35~45cm 크기의 잘 치석된 석재를 이용하여 성 바깥쪽으로 면맞춤을 하여 기초를 마련하였다. 내부시설은 적심 3기가 확인되었으며, 주칸거리는 동쪽에 비해 서쪽이 넓은 편이다. 적심 내부에는 작은 할석과 기와편을 이용하여 채웠으며, 그 위로 잘 치석된 석재를 올려 초석으로 사용하였다. 잔존하는 형태를 참고하면 정면 3칸, 측면 2칸 이상의 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고려~조선시대 호, 막새편(귀목문 등), 통일신라~조선시대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2) 내·외성 연결부

내·외성 연결부는 북쪽성벽 서쪽에 위치하며, 치3의 1차성벽, 기단보축, 2차성벽 그리고 후대에 덧붙여진 외성이 맞물려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치3의 1차성벽 기단보축과 치 기단보축, 2차성벽을 기저부로 활용하여 외성을 축조하였으므로 시기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성 남쪽 끝단부(내성 1차성벽과 외성 연결부 사이)에서 암문형태의 출입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층위상 제일 나중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형태는 동-서방향으로 주축을 두고 있으며, 성 바깥쪽과 안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북쪽 1차성벽과 외성 남쪽 끝단부에 폭 120cm 정도를 두고 3~5단 정도 쌓았다. 북쪽 벽은 크기 30~35cm의 거친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남쪽 벽은 크기 50~60cm 정도의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하였다. 이 출입시설이 축조되면서 치3 1차성벽과 2차치 일부에 수축이 한차례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통일신라~조선시대 기와편들이 주로 출토되었다.

3) 외성문지

외성문지는 해발 65~66m 지점에 위치하며, 남쪽에 위치한 내성 북봉우리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주능선 서쪽 사면에 축조하였다. 북쪽과 남쪽으로 외성이 연장되고 있으며, 문지 동쪽에 연결해서 내성으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개설되었다. 동쪽과 서쪽은 구릉 사면부로 이루어졌는데, 동쪽에 비해 서쪽이 경사가 급하다. 평면형태는 ‘ㄱ’자 모양이며, 서쪽으로 부채꼴로 개구(開口)되었다.



사진 8. 치3(북쪽) 내·외성 연결부 전경 및 토층



사진 9. 외성문지 전경 및 세부

전체적인 지형은 남쪽일대가 높으며, 북쪽으로 갈수록 완만해진다.

우선 남쪽에 위치한 외성을 살펴보면, 최대한 지형경사면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토축부와 석축부로 이루어졌으며, 잔존상태는 후대에 성돌이 많이 유실되어 외벽 일부와 적심이 다량 노출되어 있다. 일부는 토압으로 인하여 경사면 아랫방향으로 쏠려있다. 외벽은 2열이 확인되는데, 층위상 제일 바깥쪽 성벽(1차성벽)을 먼저 축조한 후, 안쪽으로 들어서 수축(2차성벽)하였다. 1차성벽은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2단이 남아있다. 외벽은 크기 30~40cm 정도의 거친 할석을 이용하여 쌓았으며, 적심은 작은할석과 흑갈색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전체적인 형태는 치3(북쪽)에 연접해 있는 외성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2차성벽은 1차성벽의 적심을 기저부로 사용하였으며, 지형경사가 낮아지는 남쪽으로 갈수록 견고하게 쌓았다. 외벽은 3~4단 정도가 남아있으며, 크기 45cm 정도의 치석된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적심은 연갈색사질점토와 작은할석을 이용하였으며, 1차성벽 적심에 비해서 큰 석재를 사용하였다.

문지의 북쪽외성은 완만한 경사면에 축조하였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북쪽으로 호상(弧狀)이다. 2열의 외벽이 확인되었으며, 선후관계는 북쪽성벽과 동일하게 바깥쪽 성벽(1차성벽)이 먼저 축조되었고, 이후 성 안쪽으로 들어서 수축(2차성벽)하였다. 1차성벽은 1~4단 정도가 남아있으며, 대체로 크기 30cm 정도의 거친 할석을 이용하였으나, 일부 70cm 이상의 대형할석도 확인된다. 적심은 크기 20cm 내외의 작은할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2차성벽은 1차성벽 적심을 정지하여 쌓았는데, 1단 정도만 남아있다. 외벽은 크기 20~25cm의 거친할석과 치석된 할석이 혼재하며, 일부 성돌은 치3(북쪽)에 사용된 석재와 동일한 것도 있다. 적심에 사용된 석재는 1차성벽 적심과 큰 차이는 없으나, 큰 돌의 비율이 많다.

동쪽성벽은 남쪽과 북쪽성벽의 중간에 해당하며, 성 안쪽으로 들어서 축조하였다. 이 곳이 기존 조사에서 알려진 문지의 주출입구에 해당하는데, 잔존하는 구조로 볼 때 현문식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북쪽과 남쪽성벽으로 이어지는 1차와 2차성벽으로 이루어졌다. 1차성벽은 외벽과 적심이 확인되며, 남쪽성벽과 동일한 석재를 이용하였다. 최하단부 1열만 남아있으며, 적심은 흑갈색사질점토와 작은할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2차성벽은 1차성벽 적심을 기저부로 사용하였으며, 그 위로 약 30~40cm크기의 거친 할석과 치석된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로 외벽을 쌓았다. 4단 정도가 남아있다. 적심은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북쪽성벽 2차성벽 적심과 유사하다. 일부 석재들 중에는 연자방아돌도 확인된다. 그리고 문지의 중앙 평탄지에서 4개의 주혈을 갖춘 굴립주 건물 1기와 구(溝) 2기가 확인되었다. 굴립주건물지의 평면형태는 사각형이며, 1칸짜리 건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4개의 주혈에서 모두 목주가 확인되었으며, 각각의 주간거리는 약 120cm이다. 굴립주건물의 위치나 평면형태를 참고하면 성 안쪽과 바깥쪽을 연결해주는 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통일신라~조선시대 기와편과 도기편, 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4) 집수지 및 주변

집수지는 내성 서쪽에 치우쳐 있으며, 해발고도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2004년에 트렌치 2개소를 설치하여 기초자료가 확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도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집수지와 대지의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⁸⁾ 금번조사는 기존 조사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집수지의 성격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1호 집수지는 기왕에 설치한 트렌치를 정리하여 대략적인 현황을 재확인하였으며, 2호 집수지는 총 3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호 집수지

1호 집수지는 내성 서쪽 일대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2호 집수지와 인접해 있다. 지표에서 약 265cm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안석축과 도수시설(추정)이 확인되었다. 집수지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 약 800cm로 추정된다. 호안석축도 일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된다. 호안석축은 최대 7단 정도만 확인되었으며, 규모는 지름 550cm로 추정되며, 바닥면이 확인되지 않아 깊이는 알 수 없다. 호안석축의 뒷채움은 할석과 점토를 혼합하여 다졌으며, 남쪽 일대는 2호 집수지가 조성되면서 유실되었다. 그리고 노출된 집수지의 남동쪽 모서리에서 도수시설로 추정되는 시설물이 확인되었으며, 1·2호 집수지와 이어주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 같이 운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구조는 유실이 심하게 진행되어 정확하지 않지만, 장방형의 판석이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암거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안석축의 맞은편의 북쪽벽에서는 북쪽으로 연장되는 석축열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나, 일부만 확인되어 정확한 규모와 형태는 알 수 없다.⁹⁾

유물은 통일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과 도기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2호 집수지

2호 집수지는 1호 집수지 남쪽에 위치하며, 내성에서 가장 낮은 곡부에 위치한다. 여러차례 수축이 이루어져,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 2호 집수지는 총 3차례에 걸쳐 수축되었으며, 그 주변도 함께 대지조성이 이루어졌다. 육안으로 보이는 집수지는 3차 집수지이며, 그 아래로 1·2차 집수지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1차 집수지의 호안석축과 바닥면은 3차 집수지까지 연속적으로 재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지름 약 1,700cm, 깊이 약 390cm이다.

8) 中部考古學研究所, 2014,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9) 집수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사진 10. 집수지 전체 전경 및 1호 집수지 전경 및 세부

우선 집수지 내부에 퇴적양상과 축조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퇴적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반층-1차 집수지 대지조성층[흑회색사질점토층;점성이 강함]-1차 집수지 점토시설층[갈색점토층]-1차 집수지 퇴적층[흑색사질점토층;사질성이 강함-회백색점토층]-1차 집수지 폐기후 퇴적층[회흑색사질점토층;사질성이 강함]-2차 집수지 퇴적층[회청색점토층]-2차 집수지 폐기후 퇴적층[황갈색사질점토층;사질성이 강함]-3차 집수지 퇴적층[회백색점토층]-3차 집수지 폐기후 퇴적층[갈색사질점토층+할석;사질성이 강함]의 순이다. 그리고 이러한 퇴적양상을 통하여 집수지의 축조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내성벽 토축부와 암반층을 굴착한 후, 흑회색사질점토층을 암반층 위에 일정한 두께로 깔아 평평하게 대지조성을 하고 그 위로 갈색점토를 시설하여 집수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점토시설 상면에 작은 할석이 혼입된 점토를 이용하여 뒷채움하여 1차 집수지 호안석축을 축조하였다. 2차 집수지는 1차 집수지를, 3차 집수지는 2차 집수지를 기반으로 수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운영과 폐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퇴적양상이 점토층과 사질층이 교차되면서 확인되고 있어, 1차 집수지의 바닥면을 2·3차 집수지와 함께 운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차례에 걸쳐 변화된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차 집수지

1차 집수지는 2호 집수지 내에서 가장 먼저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나, 전체적으로 층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 호안석축은 곡부지형을 따라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다리꼴에 가까운 평면형태를 나타낸다. 규모는 모두 노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호안석축은 서쪽과 북쪽에서 확인되며, 최대 5단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전면 가공된 화강암질의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석재의 가공형태를 볼 때 2차 내성벽의 석재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뒷채움은 내성벽의 토축부를 단면 'L'자상으로 삭토 후, 그 면을 따라 작은 할석이 혼입된 점성이 강한 점토를 이용하여 다져 축조하였다. 유물은 고구려 토기편, 분청사기 저부편,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청동젓가락 등과 목제품이 출토되었다.

② 2차 집수지

2차 집수지는 1차 집수지가 폐기된 후 그 상면을 이용하였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추정되나, 트렌치 조사만 이루어져 정확하지 않다. 호안석축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1차 집수지 호안석축과 뒷채움을 기저부로 하였다. 북쪽과 서쪽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규모는 모두 노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우선 호안석축 북쪽 벽의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공하지 않은 할석을 점토와 섞어 기저부를 먼저 조성하고 잘 다듬은 장방형 석재와 다듬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흐트러진 양상이었다. 9단 정도가 남아있다. 그리고 목재 구조물로 보이는 나무 기둥(지름 4~8cm)이 확인되는데, 대체로 간격 30~40cm로 정형성을 나타내며 시설되었다.



사진 11. 2호 집수지 전경 및 세부



사진 12. 집수지 주변 층위

북벽 기저부 석축 사이로는 목재가 위치하고 있어서 북벽의 축조와 동시에 시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쪽 벽의 축조양상은 1차 집수지 서쪽 호안석축에서 서쪽으로 약 30cm 안쪽으로 들어 쌓기를 하였으며, 잘 다듬어진 장방형 석재와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조잡하게 난층쌓기를 하였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등과 철축, 조선시대 백자편·기와편이 출토되었다.

5) 집수지 주변 현황

집수지 주변은 남쪽일대의 트렌치조사를 통해 확인된 토층을 볼 때, 대체로 서쪽사면으로 경사가 심해지는 곡부를 이루고 있으며, 지형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짐한 후에 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층양상이 확인된다. 토층양상과 출토유물을 살펴볼 때 크게 3개의 생활면이 확인되었다. 1차생활면은 황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진 상면에서 소결면이 확인되고 있으며, 상부로 승문암키와, 적갈색계통의 선문암키와, 연질토기가 확인되고 있어, 삼국시대의 생활면으로 추정된다. 2차생활면은 1차생활면의 상면에 암적갈색사질점토층-암갈색사질점토층-황적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진 후, 생활면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차생활면은 2차집수지와 같이 시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배수로 1기가 확인되고 있다. 내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확인되고 있다. 3차생활면은 2차생활면의 상면에 암적갈색사질점토층-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진 후, 생활면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3차집수지와 같은 시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상면에서는 북쪽으로 건물지가 확인되고 있다. 건물지의 주축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남서쪽은 일부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석렬은 안쪽(북쪽)과 바깥쪽(남쪽)으로 각각 면맞춤한 것으로 보아 건물지 벽으로 판단되며, 내부에서는 기와편,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초석은 건물지의 중심으로 약 250cm 간격으로 4기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전체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다.

6) 14-Tr.1

14-Tr.1은 내성 북쪽 봉우리 남동쪽 해발 80m 지점에 위치하며, 2012년도에 조사되었던 북동쪽 성벽과 이어지는 성벽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북쪽과 북서쪽 일대는 군 시설물 조성을 위한 터뒹기가 이루어져 평탄화가 되었고, 내성으로 이어지는 탐방로가 개설되었다. 남쪽과 동쪽 일대는 임진강 쪽으로 급한 경사면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조사결과 북동쪽 성벽과 이어지는 석축부를 확인하였으며, 1차성벽+기단보축+2차성벽으로 이루어졌다.

1차성벽은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성벽을 쌓기 위하여 기저부를 조성하였는데, 생토면을 계단상으로 굴착한 후 각각의 단에 맞추어 지대석(크기 60cm)을 놓았다. 부분적으로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암반부스러기와 사질점토를 혼합하여 깬 흔적도 확인되었다. 외벽은 지대석에서 성 안쪽으로 약 20~30cm 들어 잘 다듬은 장방형 석재와 거친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이때 생긴 공간은 작은 할석을 끼워넣어 견고성을 강화하였다. 부분적으로 석재와 축조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2차례 정도의 수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9~11단 정도가 남아있다.

적심은 크고 작은 거친 할석을 이용하여 채웠다. 보강토는 1차성벽 기저부 보강을 위하여 덧붙인 것으로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를 이용하였으며, 단면 삼각형으로 잔존한다.

기단보축은 1차성벽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다. 외벽과 적심, 그리고 보강토로 이루어졌으며, 기저부는 1차성벽의 보강토 혹은 선축된 기단보축의 보강토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기단보축 ①은 1차성벽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1차성벽 보강토와 생토면을 ‘L’자로 굴착한 후 축조하였다. 외벽은 다듬지 않은 할석과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성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5~6단 정도가 남아있다. 1차성벽의 압력으로 인하여 외벽 중앙부분이 성 바깥쪽으로 밀려 배가 불러 있다. 적심은 흑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으며, 보강토는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에 작은할석이 포함된 흙을 사용하였다.

2차성벽은 기단보축 보강토와 생토면을 ‘L’자상으로 굴착한 후 축조하였으며, 5단 정도가 남아있다. 기저부는 1차성벽과 기단보축과 동일하게 계단상으로 굴착한 후, 각 단에 장방형계의 잘 다듬은 할석(크기20~30cm)를 놓고 그 위로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계의 다듬은 할석(크기40~50cm)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적심은 점판암 계통의 납작한 작은할석을 이용하여 채웠으며, 치1(북서쪽) 치 기단보축의 적심 채움방식과 유사하다. 그리고 2차성벽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보강토를 마련하였는데, 후대 유실로 인하여 황색 계통의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만 얇게 확인되었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편들이 주로 출토되었으며, 이밖에 1차성벽 기저부 조성층과 1차성벽 보강토 하부, 기단보축 적심 하부에서 고구려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7) 14-Tr.2~4

14-Tr.2~4는 내성 중앙 평단지, 즉 집수지 남쪽과 남동쪽 일대에 유구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집수지를 중심으로 각각의 위치를 살펴보면 14-Tr.2는 남동쪽으로 약 18m, 14-Tr.3은 남쪽으로 약 26m, 14-Tr.4는 남서쪽으로 약 48m 떨어진 곳에 있다.

표 3. 14-Tr.2~4 현황표

구분	규모(m)	층위	유구	유물	비고
	길이×너비				
Tr.2	33×2	표토층(흑색사질점토)-문화층(황갈색사질점토)-기반층(풍화암반토)	건물지(기단석렬, 적심)	기와편(통일신라~조선) 백자편	
Tr.3	9×2	표토층(흑색사질점토)-문화층(황갈색사질점토)-기반층(풍화암반토)	건물지(기단석렬)	기와편(통일신라~조선)	
Tr.4	14×2	표토층(흑색사질점토)-문화층(황갈색사질점토)-기반층(풍화암반토)	건물지(기단석렬)	기와편(통일신라~조선) 철기편	12-Tr.3 건물지와 연결

조사결과 3개의 트렌치에서 건물지와 관련된 흔적들을 확인되어, 집수지 주변으로 다수의 건물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층위는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문화층(황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며, 이 층을 중심으로 적심과 기단석렬 같은 건축부재들이 확인되었다. 각 트렌치에서 확인된 건물의 흔적들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건물지와 연결선상에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선문·태선문·격자문 계통의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의 비율이 높으며, 고려~조선시대로 보이는 회청색 경질의 기와편과 백자편, 도기편, 철기편도 함께 출토되었다.

8) 14-Tr.5

14-Tr.5는 내성 남동쪽 돌출부에 위치하며, 既 조사에서 치로 추정된 곳이다. 조사목적은 치가 맞는지의 여부와 치라면 既 조사된 치1·2와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그 구조적인 차이는 어떠한지를 규명하기 위함이었다. 북쪽 일대는 해발 75m 정도의 덕진단으로 알려진 내성 남쪽 봉우리가 위치하며, 남쪽 일대는 임진강 단애면으로 이어지고 있어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트렌치 북서쪽 상단부 일대는 군 참호가 설치되어 성벽 일부가 훼손되었다. 조사결과 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4-Tr.1과 동일한 구조의 성벽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성벽-기단보축-2차성벽으로 이루어졌다.

1차성벽은 트렌치 북서쪽 끝단부를 기준으로 약 2m 떨어진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외벽의 성돌이 유실되면서 적심이 다량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1차성벽은 외벽과 적심, 그리고 보강토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차성벽을 쌓기 위하여 기저부를 조성하였는데, 생토면을 계단상으로 굴착하여 크기 60cm 이상의 지대석을 놓은 구조이다. 특히 지대석이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 20~30cm 깊이로 턱을 두었다. 이후 지대석에서 성 안쪽으로 약 20cm 들어서 장방형 계통의 잘 다듬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여 외벽을 축조하였으며, 거의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견고하게 쌓았다. 석재는 주로 편마암과 화강암 계통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상부로 갈수록 화강암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4~7단 정도가 잔존한다. 적심은 크고 작은 거친 할석을 이용하여 채웠으며, 1차성벽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점성이 매우 강한 황갈색사질점토와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보강하였다. 단면형태는 삼각형으로 보인다.

기단보축은 1차성벽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기저부는 1차성벽 보강토 일부와 생토면을 단면 'L'자형으로 굴착하였다. 이후 크기 30~50cm의 잘 다듬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허튼층쌓기를 하였다. 그리고 돌 사이사이에 점성이 강한 점토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외벽 축조시 점토를 같이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심은 1차성벽 보강토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암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보강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2차성벽이 축조되면서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14-Tr.1



14-Tr.2~4

사진 13. 14-Tr.1~4 전경 및 세부

2차성벽은 기단보축 기저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기단보축에서 약 30cm의 간격을 두고 덧붙였다. 이렇게 기단보축 간의 간격이 좁은 것은 치1·2 남쪽과 북쪽성벽 기단보축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기저부는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정지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암반부스러기와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를 깐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렇게 기저부를 조성한 후 잘 다듬은 장방형 혹은 방형계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1~2단만 잔존한다. 적심은 어두운 갈색 계통의 사질점토와 점성이 강한 점토, 그리고 작은할석을 이용하여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 보강토의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황색 계통의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가 외벽 중·하단부까지 덮고 있어 그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사진 14. 14-Tr.5 전경 및 세부

9) 14-Tr.6

14-Tr.6은 덕진단으로 알려진 남쪽 봉우리 북쪽 평탄지에 설치하였으며, 문헌기록에서 보이는 덕진단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동쪽으로 2013년도에 설치한 13-Tr.2·3이 위치하며, 동·서·북쪽 일대는 14-Tr.2~4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치한다.

조사결과 건물지 2기를 확인하였으며, 트렌치 북동쪽과 남서쪽에 각각 1기씩 위치하고 있다. 북동쪽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적심만 확인되며, 북서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속시설로는 적심 2기와 적심+초석 1기가 확인되었으며, 적심 내부에 작은할석과 기와편이 채워져 있다. 남서쪽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북동-남서방향을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부속시설로 기단석렬·초석·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기단석렬은 길이 약 25m가 확인되었으며, 남서쪽으로 연장되고 있다. 건물지 안쪽(북쪽)과 바깥쪽(남쪽)으로 각각 면맞춤한 것으로 보아 건물지 벽으로 판단되며, 내부에는 점성이 강한 황갈색사질점토와 기와편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초석은 약 260~300cm의 간격으로 확인되며, 정면 5칸 정도의 건물로 추정되나, 정확한 규모는 확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 없다. 특히 건물지 중앙부에 길이 약 2m의 빈 공간이 확인되는데, 건물지 출입시설이나 2동의 건물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건물지 내부와 외부에 성격을 알 수 없는 주혈 3기가 확인되었다.



사진 15. 14-Tr.6 전경 및 세부

10) 15-Tr.1

15-Tr.1은 집수지 서쪽성벽에 대한 조사이며, 집수지와 접하고 있어 배수로나 수구와 같은 시설물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집수지와 관련된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성벽과 이어지는 성벽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전체 규모는 너비 약 880cm, 높이 약 600cm이다. 전체적인 구조는 기존에 조사되었던 내성벽의 구조와 동일한 양상이며, 1차성벽-1차성벽 기단보축-2차성벽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차성벽 안에서 새로운 성벽이 확인되었는데, 층위상 1차성벽보다 먼저 축조된 것으로 주목되며, 선대성벽 상면에 후대에 수축한 흔적도 확인되었다.

선대성벽은 확인된 성벽 중에 제일 안에서 확인되는 성벽이며, 층위상으로 제일 먼저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구조는 석축부와 토축부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부는 외벽만 확인되며, 다듬지 않은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층과 면을 맞추어 쌓았다. 확인된 규모는 높이 약 140cm, 너비 약 880cm이다. 성돌 사이사이에 생긴 공간에 갈색사질점토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성벽을 쌓으면서 점토로 보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축부는 집수지 서쪽에 설치한 트렌치에서 확인되는데, 집수지가 설치되면서 일부만 확인되었다. 대체로 회청색 암반부스러기를 포함한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층층이 쌓았다. 석축부와 외벽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차성벽은 선대성벽에 덧대어 쌓았으며,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다. 외벽은 측면을 일부 가공한 장방형 석재와 다듬지 않은 할석을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으며, 빈 공간에는 작은 할석을 끼워넣어 견고성을 강화하였다. 석축은 7~9단이 확인된다. 적심은 크고 작은 할석과 갈색계통의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확인된 규모는 높이 약 120cm, 너비 약 880cm이다.

기단보축은 1차성벽 기저부 강화를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내성벽에서 확인되는 기단보축과 연결된다. 단면형태는 삼각형 모양이며, 구조는 외벽+적심+보강토로 이루어졌다. 외벽은 다듬지 않은 할석과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비스듬하게 허튼층쌓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석축은 4~5단 정도가 확인되었으며, 하부로 이어지고 있다. 적심은 크고 작은 할석과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보강토는 2차성벽이 축조되면서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규모는 높이 약 80cm, 너비 약 880cm이다.

2차성벽은 1차성벽 기단보축 보강토를 정지하여 성 안쪽으로 완만한 경사로 축조하였으며, 기단보축 상부와 1차성벽 중단부까지 비스듬하게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벽은 전면가공된 화강암질의 장방형 석재를 이용하여 바른층쌓기를 하였다. 10~15단이 확인된다. 적심은 크고 작은 할석과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채웠다. 확인된 규모는 높이 약 150cm, 너비 약 880cm이다. 선대성벽 상면에 축조된 수축성벽은 집수지와 집수지 주변에 대한 대지조성이 이루어지면서 축조된 것으로 조선시대 수축성벽으로 추정된다. 아래에 위치한 선대성벽과의 차이점은 ①할석의 크기가 고르지 못한 점, ②외성문지의 외벽 축조양상과 유사한 점, ③치3 최상면에 위치한 고대지 석축과 유사한 점을 들 수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외벽과 적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외벽은 크고 작은 할석을 허튼층으로 쌓아 올렸으며, 남아있는 석축은 3~4단이다. 적심은 사질점토와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였다. 선대성벽의 상면에 그대로 덧대어 쌓아올린 것을 볼 때, 수축할 당시에는 선대성벽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성벽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15-Tr.1 전경



좌-1:선대성벽, 2:1차성벽 기단보축, 우:1-선대성벽 세부, 2-1차성벽 기단보축

사진 16. 15-Tr1 전경 및 세부

유물은 성벽을 노출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기와편들이 출토되었으며, 2차성벽 적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주로 출토되었다.

IV. 출토유물

덕진산성에서는 삼국(고구려)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덕진산성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보이는 유물은 매우 소량이지만 6세기대로 추정되는 고구려 토기[시루편, 장동호 저부편]¹⁰⁾·기와편이다. 그 중 고구려 토기는 치3 토축부 고구려 생활면 [고구려 수혈건물지]에서 출토되었다. 이곳은 1999년 지표조사 당시 장동호와 탄화미가 수습된 곳이며, 2012년 조사에서 성벽과 중복된 수혈건물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출토된 유물 중 기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루편으로 도상복원하였을 때 증기공은 6~7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루편은 황색의 니질태토로 만들어져 있으며, 태토 속에는 망간과 산화철이 확인된다. 또한 치2의 상부퇴적도에서는 격자의 암문의 토기 동체부편이 수습되었으며, 이 역시 황색의 니질태토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3차조사에서 치3 성내에서 고구려 수혈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장동호 저부편과 함께 고구려 토기가 소량 출토되었다. 기와는 수량이 한정적이지만 치1(북서쪽) 남쪽성벽 토축부 기저부와 치2(남서쪽) 지표면에서 적갈색 태토의 격자문을 타날한 고구려 기와도 출토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유물은 덕진산성 내벽 전체에 걸쳐 확인된다. 주로 선문, 격자문, 사격자문의 기와가 수습되었다. 치2의 토축부 수축층 하부에 위치한 수혈유구와 남동쪽 성벽 트렌치인 13-Tr.3의 토축부 기저부에서는 인화문토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치2 토축부 상면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대옹이 완형에 가까운 상태로 수습되었다. 인화문 토기(뚜껑편)와 대부완편¹¹⁾도 출토되었는데, 주로 치2(남서쪽) 석환군 주변에서 수습되었다. 뚜껑은 주로 ‘ㅁ’자형이며, 8세기 중반에서 9세기 중반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조선시대 유물도 다수 확인된다. 주로 지표면과 집수지, 최후 대지조성층(집수지 주변), 외성 등지에서 수습된다. 종류는 기와편과 백자편이 주를 이루며, 일부지역에서 분청사기편도 출토되었다. 기와편은 주로 어골문, 복합문, 상하대칭어골문, 방격문 등이 타날되어 있다. 대체로 어골문과 복합문이 주를 이루다가 중호문과 청해파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외성 토축부 상층과 하층에서도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조선시대 백자편 등이 출토되어 그 축조시점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이밖에 철기류도 소량 출토되었다. 종류는 철촉, 철부, 철정, 칼 손잡이, 찰갑, 교구, 건축부재 등이 있다. 이 중 농경구로 알려진 벼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벼은 치1 토축부 수축층과 집수지 최후 대지조성층에서 통일신라시대 농경구의 한 종류인 벼 3점이 출토되었다. 대체로 통일신라시대 제 유적¹²⁾에서 출토된 철제 벼과 유사하며, 사용시점은 대략 9세기 중엽 정도로 알려져 있다.¹³⁾

10) 최종택, 2003, 「고구려 토기의 편년에 대하여」, 『제27회 한국고고학대회』.

최종택, 2006, 「남한지역 고구려토기의 편년 연구」, 『선사와 고대』 24, 한국고대학회.

김한성, 2013,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의 편년-장동호와 옹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형호,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11) 구자린, 2013, 「서울·京畿地域 統一新羅 臺附甕의 變遷樣相」, 『漢江考古』.

12)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龍仁彦南里-統一新羅生活遺蹟-』.

京畿文化財研究院, 2010, 『龍仁靈德洞遺蹟』.

13) 宋閔貞, 2009, 「統一新羅時代 鐵製牛耕具의 特徵과 發展樣相」, 『한국고고학보』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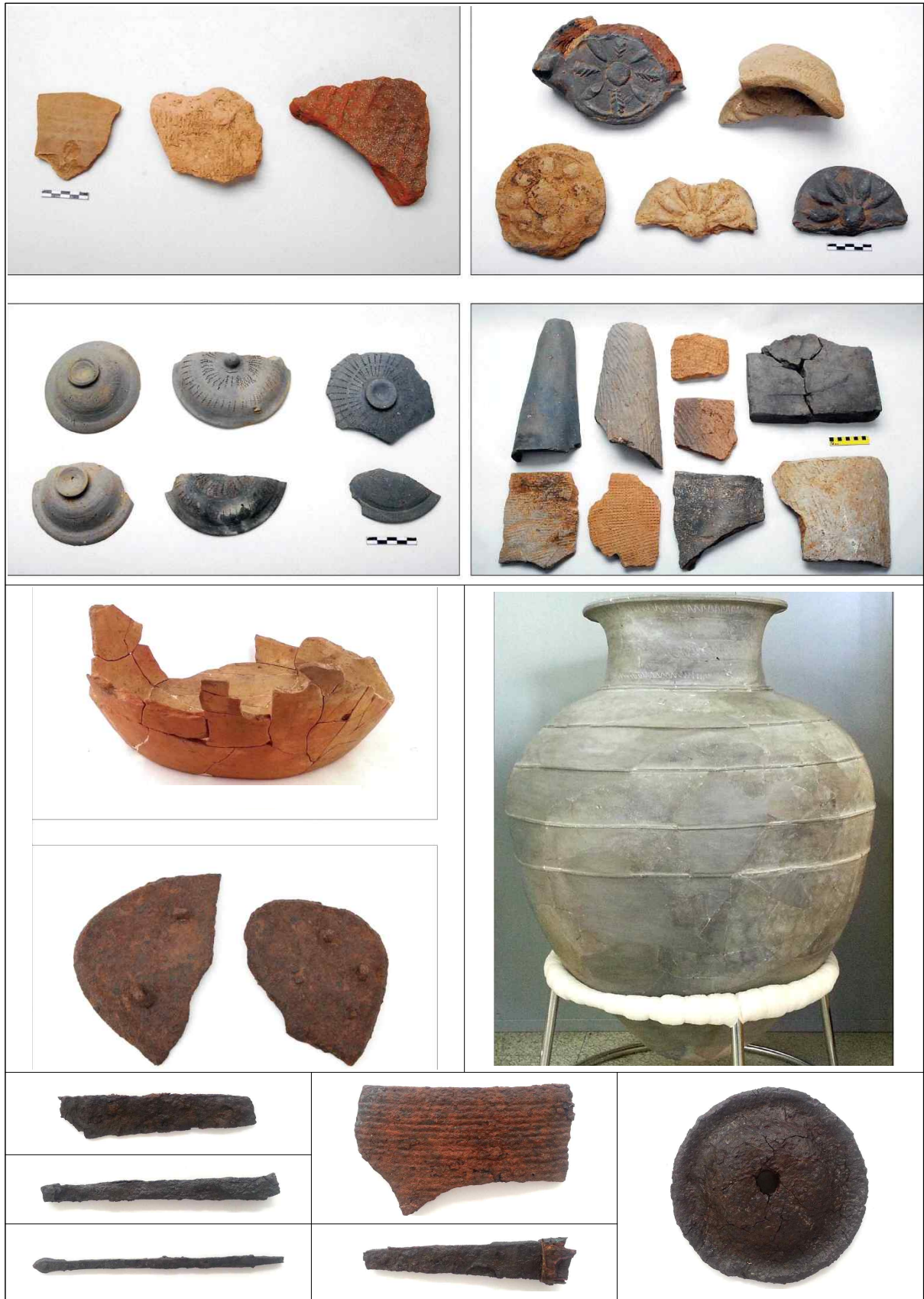


사진 17. 출토유물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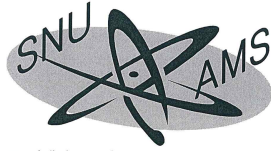
V. 자연과학적 분석

2013년 이루어진 2차조사에서는 방사선탄소연대측정을 위해 각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이를 통한 자연과학적 분석이 시도되었다. 시료채취된 유구는 치2 토축기저부, 치2 토축부 수축층 석환군, 치2의 1차성벽 기저부, 13-Tr.3 토축기저부이다. 구체적인 시료 채취 위치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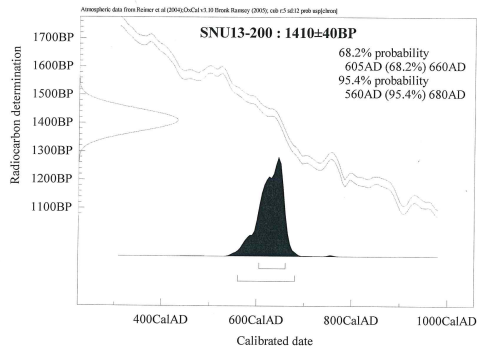
사진 18. 목탄 수습 위치

덕진산성에서 채취된 목탄시료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확보된 유구의 중심연대는 AD. 630년(1번-치2 토축부 기저부 조성층), AD. 720년(2번-치2 토축부 수축층 석환군 주변), AD. 610년(3번-치2 1차성벽 기저부), AD. 830년(4번-13-Tr.3 토축부 기저부)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덕진산성의 초축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이곳을 점유했던 세력은 고구려로 추정된다. 그리고 덕진산성과 함께 임진강유역이 고구려 관방체계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는 나제(羅濟) 연합군에 의해 한강유역을 빼앗긴 이후인 6세기 중엽 이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료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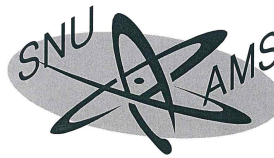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덕진선성 2차학술발굴 ① 치 2(남서쪽)-축성벽	1410±40	AD 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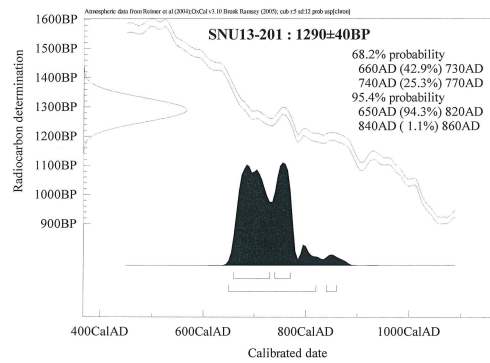


註) Calibration 결과는 IntCal04 ca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며 Bronk Ramsey C.,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iocarbon 43(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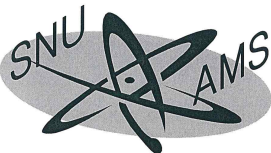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덕진선성 2차학술발굴 ② 치 2(남서쪽)-토축성벽	1290±40	AD 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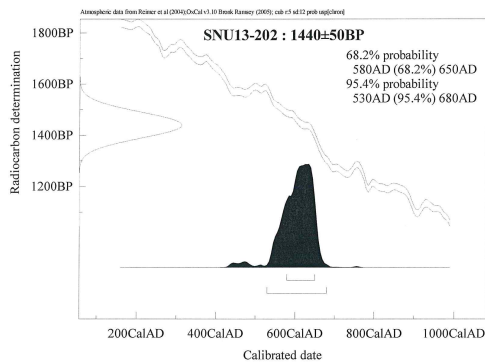


註) Calibration 결과는 IntCal04 ca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며 Bronk Ramsey C.,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iocarbon 43(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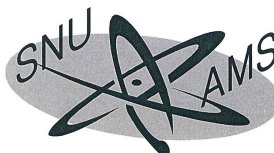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덕진선성 2차학술발굴 ③ 치 2(남서쪽)-축성벽	1440±50	AD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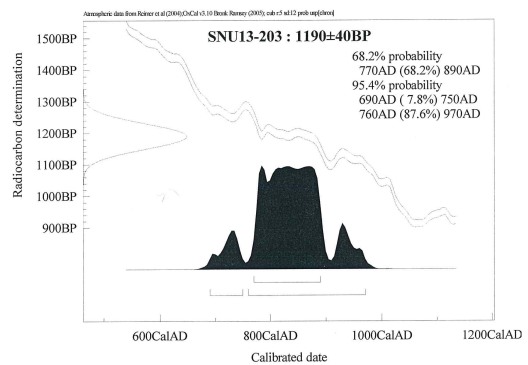


註) Calibration 결과는 IntCal04 ca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며 Bronk Ramsey C.,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iocarbon 43(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덕진선성 2차학술발굴 ④ 13-TR.3(남동쪽 성벽)-토축성벽	1190±40	AD 830



註) Calibration 결과는 IntCal04 ca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며 Bronk Ramsey C.,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iocarbon 43(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삼도 1. 시료 1~4번 분석결과

진산성의 치2 토축부 및 1차성벽 기저부와 13-Tr.3 토축 기저부의 연대는 그보다 더 늦은 시기인 7~9세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것이 덕진산성의 초축연대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덕진산성이 7~8세기 이후에도 중요 관방시설로 기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치2의 토축 기저부와 1차성벽 석축기저부 조성층에서 측정된 자료는 오차범위 내에서 AD. 530년과 560년의 연대치를 보이고 있어 고구려와의 상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후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대웅편이 출토된 토축부 수축층 석환군 주변은 8세기 전반, 인화문 토기가 출토된 13-Tr.3 토축 기저부는 9세기 전반의 연대를 보이고 있어 수·개축 및 구간별 성벽 축조연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덕진산성 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상당수는 통일신라시기로 편년되며, 내성 석축부의 개축시기 역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고 있어 조사결과와 자연과학적 분석결과가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7~8세기는 신라의 나당연합군과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신라의 삼국통일 후 일어났던 나당전쟁의 시기와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임진강 하구는 신라의 통일전쟁 및 나당전쟁과 관련하여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되며, 덕진산성일원도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임을 의미한다. 분석자료를 통해 확인된 상기와 같은 연대자료는 덕진산성이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지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임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번지 일원에 해당하는 덕진산성은 초평도를 감싸고 곡류하는 임진강의 북안에 위치한다. 이곳은 높지 않지만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으며, 특히 동쪽과 남쪽 초평도를 통한 임진강 도하로에 대한 감시가 용이한 위치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차에 걸친 조사를 통하여 내성 및 외성에 축조시점 및 구조에 대한 자료를 얻게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성벽[12-Tr.3·14-Tr.1·14-Tr.5]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였다. 내성벽은 토축부와 석축부로 이루어졌으며, 토축부가 선축되었고 이후 석축부가 축조되었다. 토축부는 후축된 석축부로 인하여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영정주를 설치하고 갈색계통의 사질점토와 암반쇄설물을 이용하여 층층이 다져서 쌓아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석축부는 선축된 토축부 외벽을 절개하여 쌓았으며, 기본적으로 1차성벽-기단보축-2차성벽의 구조를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수축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2. 치[치1·2·3]에 대한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였다. 치는 내성 중 돌출된 부분에 주로 축조되었으며, 그 위치는 북서쪽(치1), 남서쪽(치2), 북쪽(치3)이다. 전체적으로 치의 주 방향은 임진강 북쪽

을 바라보고 있어 그 일대를 주요 관망할 목적으로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는 선축된 토축부를 완만한 'L'자상으로 절개하여 덧붙였으며, 다단의 형태로 축조하였다. 맨 안쪽부터 1차성벽-1·2차치-치 기단보축-2차성벽의 구조이다. 그리고 치2 토축부 수축층에서는 추정 투석기 지지목주 및 석환군과 같은 시설물 흔적들이 확인되어 당시의 군사시설물 배치양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3. 치3(북쪽) 서쪽일대에서 내·외성이 연결하고 있는 양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내·외성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성 안쪽과 바깥쪽을 이어주는 출입시설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외성은 내성벽을 기저부로 활용하여 축조하였으며, 토축부 상·하층에서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이 출토되어 축조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외성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와 후대에 성벽을 축조할 때 선대 성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점 또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4. 치3(북쪽) 토축부에서 삼국(고구려)~조선시대의 유구가 중층으로 확인되어 덕진산성의 사용주체에 대한 의문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특히 고구려 생활유적이 토축부 초축층을 굴착하고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덕진산성의 초축세력[고구려]에 대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할 실마리로 보인다.

5. 집수지 및 그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적으로 알려져왔던 집수지의 구조와 축조시점, 그리고 주변 대지조성 양상을 파악하였다. 집수지는 2기를 확인하였으며, 2호의 경우 3차례 정도 수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호안석축의 형태는 1차가 사다리꼴로 보이며, 2·3차는 장방형으로 추정된다. 집수지는 내성벽 토축부 및 암반을 굴착하였으며, 이후 점토를 발라 방수하였다. 그리고 점성이 강한 사질점토와 잘 다듬어진 화강암제 석재를 이용하여 호안석축을 만들었다. 이후 2차 집수지는 1차 집수지를, 3차 집수지는 2차 집수지를 기반으로 수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과 폐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토기·기와편과 조선시대 분청사기편·백자편·기와편이 혼재되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과 폐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6. 집수지 서쪽성벽(15-Tr.1)은 집수지의 서쪽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집수지와 관련된 배수시설이나 수구와 같은 시설물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트렌치 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내성벽에 확인되는 구조와 동일한 양상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1차성벽-1차성벽 기단보축-2차성벽이다. 특히 1차성벽 안쪽에서 새로운 성벽을 확인하였는데, 층위상으로 1차성벽보다 먼저 축조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성벽, 즉 고구려 성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선대성벽 상면으로 집수지 최후 대지조성층과 맞물려서 축조된 조선시대 수축성벽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축조순서는 선대성벽[삼국(고구려)시대]-1차성벽[통일신라시대]-1차성벽 기단보축[통일신라시대]-2차성벽[통일신라시대]-수축성벽[조선시대]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덕진산성의 성벽 중 층위상 고구려 성벽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점도 큰 성과이다.

7. 외성문지는 既 조사에서 알려져왔던 외성 문지들 중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형태는 ‘ㄷ’자 모양이며,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외성벽과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외벽과 적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들의 재료나 층위양상을 근거로 한차례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성 바깥쪽과 안쪽을 연결해주는 굴립주건물 형태의 출입시설도 확인되었다. 유물은 선축된 토축부 성토층에서 고려~조선시대 기와편이 출토되어 축조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8. 유물은 삼국(고구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기와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토기는 고구려 토기(시루편, 장동호 저부편, 동체편 등)·기와편(내면-모골흔, 외면-격자 타날)과 통일신라시대 인화문 토기 뚜껑편·대부완편·대옹, 그리고 조선시대 분청사기·백자편 등이다. 특히 치3 토축부에 조성된 고구려 수혈건물지와 치2 남쪽성벽 토축기저부에서 고구려 토기 및 기와편이 확인되어 성벽의 초축시기가 고구려일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9. 치2의 토축기저부(중심연대 630년)·1차성벽 석축기저부(중심연대 610년)·수축층 석환군 주변(중심연대 720년), 그리고 13-Tr.3 토축부 기저부(중심연대 830년)에 대한 절대연대자료가 확보되어 그 축조 및 운영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와 분석결과만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서 초축된 성벽을 통일신라시대에 여러차례 이상 수축하였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략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초축시기는 6~7세기대로 추정되며, 축성주체는 고구려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공간적 범위는 내성 전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이와 관련된 근거로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토축부에서 출토된 장동호와 시루편, 그리고 주변에 위치한 호로고루와 보루들의 축조시점¹⁵⁾, 그리고 자연과학적 분석결과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7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에 의해 1차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개의 치와 치 기저부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단보축은 8세기대에 축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9세기대에 이르러 전면 가공한 화강암제 성들을 이용하여 2차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내성의 성벽을 기저부로 활용하여 외성을 축조하였으며, 외성문지 토축부와 내·외성의 연접된 토축부에서 고려~조선시대 기와편과 백자편이 출토되어 편년에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치3에서 확인된 치 기단보축의 축조수법이 주변에 위치한 고구려 보루[무등리 2보루, 흥련봉 2보루]의 축조수법과 매우 유사한데, 이는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축성기법이 유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성에 대한 초축시거나 축성주체, 그리고 동파리보루와 덕진산성과의 관계는

14) 다만 내성 남동쪽 성벽(13-Tr.3) 토축부 성토에서 인화문 토기편이 출토되었고, 기저부에 대한 AMS측정결과 9세기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가 남동쪽 일대에는 성벽을 축조하지 않고 지형조건(입진강 적벽 단애면)을 최대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후 남동쪽 일대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면 보다 구체적인 양상이 파악될 것이다.

1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漣川 瓠盧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輯, 고구려발해학회.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후속조사가 이루어지면 좀 더 구체적인 면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덕진산성의 전체적인 범위파악(내성과 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내성과 관련된 문지나 출수구, 집수지, 건물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덕진산성 성벽에 대한 축성공법에 대해 대부분 파악한 것을 지금까지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유적정비 및 보존,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학술조사 계획과 함께 탐방로와 군시설 정비방안, 그리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생태탐방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성곽의 특성상 토목과 건축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의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진산성 주변[동파리보루 등]의 고구려 보루의 조사가 병행되어 당포성이나 호로고루, 무등리보루 등 임진강변에 위치한 고구려 관방유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집목시켜 관광 및 체험학습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京畿文化財研究院, 2010, 『龍仁 靈德洞遺蹟』.
- 구자린, 2013, 「서울·京畿地域 統一新羅 臺附甬의 變遷樣相」, 『漢江考古』.
- 國立文化財研究所, 1992,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 김한성, 2013,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의 편년-장동호와 옹을 중심으로』, 송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宋閔貞, 2009, 「統一新羅時代 鐵製牛耕具의 特徵과 發展樣相」, 『한국고고학보』 72.
- 양시은, 2010,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高句麗渤海研究』 36輯, 고구려발해학회.
- 陸軍士官學校 陸軍博物館, 1994, 『京畿道 坡州郡 軍事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과주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 이형호,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토기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中部考古學研究所, 2014,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 최종택, 2003, 「고구려 토기의 편년에 대하여」, 『제27회 한국고고학대회-발표자료집』.
- 최종택, 2006, 「남한지역 고구려토기의 편년 연구」, 『선사와 고대』 24, 한국고대학회.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龍仁彦南里-統一新羅生活遺蹟-』.
-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2007, 『漣川 瓠盧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덕진산성 축조 연대와 의미

■ 안성현(고려문화재연구원) ■

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

안성현(고려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 II. 덕진산성에 대한 쟁점
- III. 축조연대와 성격
- IV. 덕진산성 축성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인 양성지가 우리나라를 ‘東方城郭之國’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성곽이 축성되었으며, 현재까지 남한에서 확인된 것만 약 2,137여개이고¹⁾,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363개소가 잔존한다고 알려져 있다.²⁾ 이러한 성곽들은 동시기가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축성되었다. 따라서 한 지역 내의 성곽 역시 축조시기와 주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특정 시기의 관방체계를 논할 때는 동시기에 축성된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³⁾

특히, 성곽은 유적의 특성상 독립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분포와 구조의 틀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으므로⁴⁾, 한 지역 내에 축조된 성곽들을 분석한 후 정확한 축조시기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⁵⁾ 다만 축성시기와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 성곽의 정확한 변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성곽은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다 폐기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장기간 사용되거나

1) 이춘근, 2006, 「중부내륙 옛 산성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방법」,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 세미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6~7쪽.

2) 백중오, 2002, 「京畿地域 高麗城郭 研究」, 『史學志』 第35輯, 단국사학회, 96쪽.

3) 안성현, 2015, 「거창지역 성곽연구」, 『居烈山城의 역사적 가치 조명-거열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경남발전연구원 연사문화센터, 108쪽.

4) 백중오, 2006, 『고구려 남진정책 연구-임진강에서 금강까지-』, 서경문화사, 24~25쪽.

5) 발표자의 생각으로는 개별 성곽에 대한 정확한 축조시기와 성격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성곽이 2,000여개소를 상회할 뿐 아니라, 이 중 서울·경기지역에는 360여개소가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성곽은 유적의 특성상 전반적이고 일시적인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한 지역 내의 성곽을 분석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아니면 후대에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축 시기와 사용 시기, 그리고 시기별 경관을 파악하는 작업 역시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주 덕진산성은 임진강 복안에 면한 구릉을 두르는 복합식산성이며, 고구려에 의해 축성된 내성과 조선시대 이서에 의해서 축조된 외성으로 알려져 왔으나⁶⁾, 2000년대 초반까지 덕진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간단한 지표와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므로 산성의 정확한 규모와 시기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덕진산성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2012년도 이후 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연차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 및 보루의 시기적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의 조사결과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점검한 후 덕진산성의 축조연대와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다만 기왕의 조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서 축조된 후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 외성이 가축되었으므로 이들 모두를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내성을 중심으로 산성을 처음으로 축조한 고구려와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⁷⁾

II. 덕진산성에 대한 쟁점

덕진산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조사에서 성벽의 축조수법과 중복관계, 그리고 내부공간의 시기적인 변화양상 등 많은 사실이 밝혀졌지만 각 연구자들 간에 유구를 해석하는데 이견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견해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기초와 조사한 유적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쉽게 동의하거나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확보되었으므로 이 장에서는 덕진산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석축성벽과 보축과의 구분

덕진산성의 성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축약된다. 토축부와 석축부를 공정상의 차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축된 성벽으로 볼 것인지로 환언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남한지역 고구려 보루의 성벽을 이해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견해는 토축부와 내부보강토, 그리고 석축부 및 기저부의 기반보

6) 고구려에 의해서 축성된 성곽은 내성의 북봉을 두르는 보루이고, 내성은 통일신라시대, 외성은 조선시대 이서에 의해서 축조되었다는 견해도 있다.(경기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08, 『경기도 고구려 유적』. 심광주, 2014, 「덕진산성과 고구려보루」, 『波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波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333~337쪽.)

7) 시기별 경관을 다룰 때에도 내성을 중심으로 하고 외성은 제외한다.

축을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최후대의 보축성벽(개축성벽)을 덧붙였다는 것이다.⁸⁾ 이중 최후대 보축성벽에 대해서는 고구려성벽⁹⁾과 통일신라시대¹⁰⁾에 개축된 성벽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성벽 구조를 파악하기 이전의 견해이므로 수긍하기 힘들다.¹¹⁾

이에 반해 두 번째 견해는 토축부와 내부보강토를 동시기에 축조된 토성과 부속시설로 파악한 후 석축성벽과 기단보축을 후대에 개축된 것으로, 최후대의 보축성벽을 가축함으로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형태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견해이다.¹²⁾ 즉 덕진산성 내성의 성벽은 초축시에는 토성이었으며, 석축성벽으로 개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외부에 보강시설이 지속적으로 가축되지만 2013-Tr.3의 외벽부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성벽이 구축되기 이전까지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성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토축부를 절개하고 구축된 석축부를 공정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수·개축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¹³⁾ 하지만 2015년 조사에서 이러한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내성의 북동쪽성벽 붕괴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지대석 내부를 비롯해 성벽 상·하부에서 출토되었으므로 1차 수축성벽은 통일신라시대 개축되었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덕진산성만으로 한정할 때 토축부와 석축부를 동시기로 보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¹⁴⁾ 만일 동시기로 볼 경우 토축부를 굴착하고 조성된 고구려의 수혈건물지를 층위 상에서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덕진산성에서 고구려의 성곽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고구려가 축조한 덕진산성은 현재의 내성을 두르는 토성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토성을 절개한 석축성벽이 가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통일신라시대 석축성벽과 외부의 기단보축 및 보축성벽과의 관계로 가축된 부속시설이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다. 1·2차 기단보축은 외벽 기저부를 보강하는 것이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통일신라시대 보축성벽이 성벽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북서쪽 치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북서쪽 치의 보축성벽은 잔존하는 통일신라시대 석축성벽의 최상단에서 100~200cm 아래에서 마감하였는데, 석축성벽(1차 수축성벽)이 축조될 당시에는 현재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벽으로 보기 힘들다.

8) 심광주, 2014, 앞의 책.

9)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국방유적연구소, 2004, 「과주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약보고서」.

10) 심광주, 2014, 앞의 책, 333~337쪽.

11) 심광주, 2014년, 앞의 책.

12) 안성현, 2014, 「덕진산성의 축조시기와 목적」, 『波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波州市·中部考古學研究所, 297~332쪽.

13) 성벽에서 확인되는 석축부와 토축부는 크게 석축성벽의 회곽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부와 내벽 사이를 다진 것과 토축부를 절개하고 석축부를 쌓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서영일, 2009, 「고대 석축 산성의 토축부 고찰」, 『東洋學』 46,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219~241쪽.) 이 중 전자는 특수한 몇 예를 제외하고 공정상의 차이로 인정된다. 하지만 후자는 동시기와 수·개축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동시기로 보는 연구자들은 박순발, 최종택, 심광주, 양시은 등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별다른 비판 없이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박태우, 안성현 등으로 후대에 수·개축으로 보고 있다.

14) 발표자는 남한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구려 성곽과 보루의 석축부 역시 토성에서 석축성벽으로 개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논지와는 관련이 적으므로 별도의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과주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 내성을 두르는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석축성벽으로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외부에는 기단보축과 보축성벽을 설치되었는데, 상당히 짧은 시기의 변화로 볼 수밖에 없을듯하다.

2. 덕진산성의 경관

성곽의 경관은 크게 성벽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내부경관과 주변지형 및 조망권 등의 외부 경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외부 경관은 성곽 주변의 지형변화와 주변 유적의 분포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산성은 임진강의 북안에 면하며, 남동쪽으로 초평도와 동파리 보루, 그리고 관방유적이 주로 위치한다. 주지하다시피 임진강 유역은 홍적세 중기 철원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산 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임진강·한탄강 일대에 두께 10~30cm의 용암층을 형성하였다. 이 용암대지 위로 강물이 흐르면서 암반을 침식하였는데 현무암의 주상절리 현상은 강의 양안 곳곳에 10~15m에 달하는 높은 수직 절벽을 만들어 놓았다.¹⁵⁾ 이러한 여울목 주변에는 강안평지성인 은대리성·호로고루·당포성 등이 축성되어 있으나 덕진산성의 지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사행(蛇行)하든 임진강은 산성 남쪽의 초평도에서 갈라졌다 다시 합류되며, 주변으로 저구릉성 산지가 이어지지만 단애는 보이지 않는다. 임진강을 면한 남쪽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므로 성내부로 진입하기도 힘들지 않다. 그리고 덕진산성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지점에 위치하는 동파리보루가 축성된 구릉 역시 최근에 변형된 지형을 제외하고는 고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덕진산성 주변의 지형과 경관은 축조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내부의 경관은 외부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성곽들은 축성 이후 단기간 동안 사용되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장기간 동안 사용되므로 다양한 시기의 성벽과 부속시설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¹⁶⁾ 따라서 성 내부의 경관은 시기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성벽은 초축 당시에는 토성이었으며, 후술하겠지만 서쪽 중앙의 곡부는 ‘ㄷ’ 자 형태로 절개한 후 석축으로 개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서 토성을 절개하여 석축성벽으로 개축이 이루어졌으며, 외벽 기저부에는 기단보축이 설치되었다. 그 후 기단보축과 보축성벽이 지속적으로 가축되었으나 토성을 절개한 석축부(1차 수축성벽)가 성벽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덕진산성 내부의 시기적 변화는 축조 목적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으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잔존하는 산성 내부의 경관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조선후기에 완성된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¹⁷⁾,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내용 역시

15) 심광주, 2009, 「임진강 유역의 역사와 관방유적」, 『임진강』, 경기도박물관, 178쪽.

16) 안성현, 2015, 앞의 책.

17) 안성현, 2014, 앞의 책.

발표자의 견해와 유사하다. 이중 고구려에 의해서 사용될 당시 성내부는 북쪽 봉우리와 성벽의 내탁부를 제외하고 대규모의 대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신라시대에 내성의 곡부 일부와 능선 주변부에 비교적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현재와 비슷한 경관을 보이게 되었다. 이후 고려·조선시대에는 이전 시기의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서쪽 중앙의 곡부는 이전시기의 집수지를 매몰한 후 대지를 조성하였다. 현재의 내부지형은 조선 후기에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조사 내용으로 고구려 운영기의 경관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므로 고구려의 보루들 중 변화양상이 비교적 명확한 구의동보루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구의동보루는 1977년 화양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백제의 분묘유적으로 빈전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론하는 동시에 이와는 달리 군사적 성격을 지닌 유적일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1997년도에 발간된 조사보고서에는 ‘성벽의 하단은 할석으로, 상단은 천석으로 쌓았다. 성벽 3개의 돌출부(추정치)와 1개의 석단이 설치되었고, 내부는 동시기의 구들과 토광(추정 저장공)이 설치된 수혈주거지를 조성하였다.’¹⁸⁾라고 기술하였다.

하지만 발표자가 분석한 결과 보고 내용과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먼저 성벽의 기저부는 대형의 할석 1단을 지대적으로 두었고, 그 위로 (장)방형 및 부정형 할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다. 잔존부 중 NW구역과 SE구역(돌출부 C주변)·돌출부 B주변은 할석으로 쌓은 성벽을 ‘L’ 자상으로 절개하고 천석의 성벽으로 축조하고 있으므로 수축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¹⁹⁾ 성벽 외부의 돌출부 A는 주로 천석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성벽과의 결합부가 상부의 천석과 연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부가되었고, 나머지 돌출부 B와 C는 도면과 사진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다. 다만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으로 보아 B는 A와 동일한 구조였을 것으로 보인다. 돌출부C는 돌출부A·B와는 달리 기초부를 할석으로 쌓았으나 성벽의 최하단석과는 차이가 나므로 성벽과는 시기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⁰⁾

보루 내부에 조성된 수혈주거지와 내부의 토광(저장공)을 동시기로 보고하고 있으나 몇 가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 유구배치도와 평면도에서 차이가 있다. 이중 배치도에는 평면도에 나타나지 않는 배수로와 토광을 표시되어 있으므로 평면도는 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조사과정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평면도상에 나타나는 유물의 분포양상으로 보아 중앙부는 바닥면이

18) 구의동보고서 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구의동유적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19) 심광주는 구의동 보루를 설명하면서 “성벽은 할석과 강돌로 쌓았는데 모두 점토를 사이사이에 충전하는 형태의 습식 공법으로 구축하였으며, 구간별로 천석과 할석의 사용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할석으로 먼저 구축한 성벽이 붕괴되자 천석으로 수축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주장하였다.(심광주, 2014,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방안』,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1쪽.) 위 논문은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의 축조기법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구의동보루에 할애할 수 있는 분량이 적어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천석으로 쌓은 부분을 수축으로 인식한 것은 타견이라고 생각하며, 수·개축의 개념은 아차산 보루군과 무등리보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 성벽의 외부 시설 중 석단은 성벽과의 토층이 잔존하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돌출부 A의 상부는 할석으로 축조하였으나 곳곳에 점토로 마감한 흔적이 확인하며, 하부와 축조수법이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규모도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치 이후 한 차례의 수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지만 토광의 윤곽선이 보이지 않으므로 수혈주거지 바닥에 목개한 것이 아니라 선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유물은 토광과 중복되는 주거지의 중앙과 남쪽에도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토광 바닥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구의동보루는 일시에 폐기된 이후 재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만일 토광 상부를 목개 하였다면 화재 시 상부의 유물들이 토광 내부로 매몰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토광 내부에서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거지 내부의 유물들이 토광 상부에서도 출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광이 폐기된 이후에 주거지가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토광 내부의 정확한 퇴적양상을 알 수 없으나 보고서에서는 ‘구덩이에는 목탄이 섞여있는 적갈색으로 불에 탄 흙이 채워져 있는데 이 목탄이 섞여있는 불에 탄 흙의 상면에는 두께 2~3cm의 갈색 점토가 깔려져 있고 갈색 점토의 아래에는 0.5~1.0cm 두께의 목탄층이 얇게 남아 있다. 구덩이 내부와 구덩이의 측면을 이루는 회색 구조의 점토에도 유물이나 잡석은 섞여 있지 않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토광 내부의 토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광과 주거지의 선후관계 이외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토광 내부에 채워져 있는 흙을 자연 퇴적토로 보느냐 아니면 다짐토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보고서의 토층사진 설명과 같이 자연퇴적토로 볼 경우 구의동보루는 폐기된 이후 토광이 매몰될 때까지 방치되었으므로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짐층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폐기된 후 재사용되었을 가능성과 보루의 붕괴나 정치상황의 변화로 인한 대대적인 개축으로도 볼 수 있다.²¹⁾ 다만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떤 이유로 변화하였는지 밝히는 것은 발표자의 능력 밖에 있을 뿐 아니라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남한지역 다른 보루의 변화에 대한 자료가 축적된 이후로 미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구의동보루는 최소 두 시기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초축 당시의 성벽은 최하단에 지대석을 두고 그 할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으며, 외부의 돌출부는 설치되지 않았다. 내부의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으나 구의동보루의 규모와 내부에 토광 및 배수로가 설치되었음을 감안할 때 다수의 인원이 상주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축이 이루어지면서 보루는 이전 시기와 상당히 다른 경관으로 변모하게 된다. 즉 성벽은 초축성벽 위에 천석으로 허튼층쌓기를 하였고, 외부에는 돌출부를 설치하였다. 이중 돌출부C는 할석으로 쌓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돌출부 A·B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된다. 다만 성벽에 가축되어

21) 발표자의 생각으로는 자연퇴적토보다는 다짐토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토층 설명을 음미해보면 목탄이 섞여있는 불에 탄 흙의 상면에 깔린 얇은 갈색점토, 그리고 그 층 아래의 목탄층 등은 자연퇴적층으로 보기 힘들며, 다짐층을 설명하고 있는듯하다. 둘째, 내부에 할석과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구의동보루의 내부는 수혈주거지를 조성하기 이전 토광과 배수로 등의 다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주변의 흙으로 다졌거나 자연 퇴적토라면 유물이 혼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곳의 흙을 가져다 사용하였음을 반증한다. 셋째, 토광의 단벽에서 붕괴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구조가 변모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있을 뿐 아니라 축조수법도 차이를 보이므로 성벽과는 동시기로 보기는 힘들며, 축조순서는 초축성벽→돌출부C→1차 수축성벽·돌출부A·돌출부B 순으로 상정할 수 있다.²²⁾ 내부는 선축된 유구-토광·배수로-의 상부를 정지한 후 수혈주거지를 조성하였으며, 구의동보루가 폐기될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기적 변화는 구의동보루와 유사한 구조의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 및 보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중간벽의 유무

2015년 조사 중 서쪽 곡부에서 1차 수축성벽 이전의 새로운 석축이 확인되었다. 이 석축에 대해서 조사단은 초축성벽으로 추정하였는데²³⁾, 발표자는 이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고구려 산성의 특징 중 하나인 중간벽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²⁴⁾

주지하다시피 고구려 성벽의 특징 중 하나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중간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겹성(二重城)이라고도 불리며,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이 대표적이다.²⁵⁾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성벽이 동시기인지 아니면 후대에 가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 있다.

① 초축성벽일 가능성인데 석축의 범위와 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석축은 2015년도 조사 지역인 곡부와 그 주변에서만 확인될 뿐 다른 곳의 성벽에서는 조사된 바 없다. 특히 곡부의 북쪽으로 절개조사가 이루어진 2012-Tr.2와 곡부의 남쪽인 2013-Tr.3에서도 보이지 않으므로 곡부 주변에만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석축은 선축된 토축성벽을 곡부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ㄷ’ 자상으로 굴착한 뒤 쌓은 듯하지만 동시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축성벽 중앙부분의 적심 폭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보아 250cm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1차 수축성벽의 폭보다 넓으며, 상부에 수축흔이 확인하다. 따라서 2015년도 조사에서 확인된 곡부의 석축은 성벽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② 중간벽이었을 가능성으로 1차 수축성벽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 문제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성벽은 면석과 적심을 동시기에 쌓는 것이 가장 견고하다. 석축산성이기는 하지만 수축이 이루어지면서 내벽을 가축한 청주 부모산성²⁶⁾과 함안 성산산성²⁷⁾, 내·외벽을 가축한 장성 진원성²⁸⁾

22) 구의동보루의 성벽 내부에 토축부가 구축된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양상은 아차산 보루군 및 무등리보루와 동일한 구조이므로 토성에서 석축성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 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덕진산성 5차 학술발굴조사 용역 약식보고서」.

24) 발표자 역시 조사단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므로 초축성벽이라고 기술하였다. 초축성벽이라는 것은 1차 수축성벽이 축조되기 이전의 성벽을 지칭하는 것이며, 토축성벽을 절개하고 후대에 가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확한 양상은 곡부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로 미루고자 한다.

25) 서길수, 1999, 「고구려 축성법 연구(1)-석성의 체성(體城) 축조법을 중심으로-」, 『高句麗山城研究』, 학연문화사, 303~361쪽.

등의 예에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가축부의 두께는 80~150cm내외로 얇은 편이므로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내벽 외부에 토축부를 완만한 경사로 다져서 마무리하였는데, 적십의 중요성을 당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덕진산성의 1차 수축성벽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장성 진원성의 경우 외벽에도 가축된 성벽이 보이지만 외부에 별다른 보강시설이 이루어진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내벽의 내탁부는 성벽의 붕괴 방지와 등성시설 등으로 기능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외벽은 적들을 방어해야 하므로 내벽과 같이 내탁부를 축조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대석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파주 덕진산성의 경우 1차 수축성벽이 통일신라시대로 밝혀졌으므로 석축부를 중간벽으로 보기 힘들다.

㉔ 중간벽이 설치된 성곽으로 자주 인용되는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문봉 주변의 성벽은 기왕의 연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중간벽 등 3개의 성벽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성벽들이 동시기에 축조되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가축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외벽과 동시기에 축조되었다면 계단식으로 성벽을 쌓은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벽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수축의 흔적이 나타날 수 없다. 소문봉 주변 성벽은 외벽과 중간벽 사이 간격이 380cm정도임을 감안할 때 계단식으로 쌓았다고 보기 힘들다.

먼저, 외벽의 상부는 하부와 달리 축조수법이 조잡할 뿐 아니라 가구목인 목주흔이 잔존하므로 수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간벽은 외벽과 달리 부정형에 가까운 활석으로 허튼층쌓기에 가깝게 축조하였다. 그리고 벽면을 따라 대략 200cm 간격으로 목주흔 잔존하지만 높이는 불규칙적이며, 축조수법은 잔존 목주의 최상단부를 중심으로 상부와 하부가 차이를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목주가 설치된 성벽은 소문봉 주변 성벽 외벽과, 연천 호로고루 및 당포성 등의 고구려성곽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의 덕진산성 보축성벽, 그리고 중세산성으로 알려진 보은 성점산성²⁹⁾, 제천 와룡산성³⁰⁾, 충주 대림산성³¹⁾, 춘천 삼악산성³²⁾, 영월 태화산성³³⁾ 등과 이 이외 많은 산성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중세산성의 기둥홈은 상단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구목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³⁴⁾ 소문봉 주변 성벽의 중간벽에서 나타나는 목주는 성벽의 상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부는 수축이 이루어졌

26) 忠北大學校博物館·청주시, 2014, 『淸州 父母山城-西壁區間 및 母乳井·第1堡壘-』.

2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 「함안 성산산성 17차 발굴조사 1차 자문회의 자료」.

28) 김경철·장성일, 2015, 「장성 진원성의 조사현황과 성과」, 『한국성곽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성곽학회, 115~147쪽.

29)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1998, 『報恩 昧谷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30)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a, 『堤川 城山城·臥龍山城·吾峙山城 地表調査報告書』.

31) 祥明大學校 博物館, 1997, 『忠州 大林山城-情密地表調査 報告書-』.

32)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b, 『春川 三岳山城』.

33)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2000c, 『寧越 王儉城』.

34) 조순홍, 2007, 「韓國 中世의 기둥 홈을 가진 石築山城에 대한 研究」, 충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청구 논문.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와는 달리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의 중간벽은 지상에 노출된 외벽이었으며, 현재의 외벽은 후대에 가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덕진산성에 확인된 초축성벽은 1차 수축성벽에 비하여 축조수법이 조잡하지만 적심의 두께가 최소 250cm 이상이라는 점과 상부에는 수축흔이 확인하다는 점, 그리고 1차 수축성벽이 통일신라시대에 수축되었다는 점 등에서 중간벽이라기 보다 일정기간 동안 성벽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내·외피 토루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토축성벽의 내·외벽은 안식각 이상으로 축조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성벽을 보강하는 토루를 보강해야지만 붕괴되지 않는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내·외피 토루와 토심석 축공법³⁵⁾ 등 다양한 견해의 근거가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안식각의 사전적 의미는 “흙을 자연 상태로 쌓아올렸을 때 그 경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각”을 지칭하는데, 입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25~40° 내외이다.³⁶⁾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붕괴되지 않은 안식각을 토축성벽이나 봉분과 같이 인공적인 구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성벽을 포함한 지상으로 쌓은 유구를 조사할 경우 상부의 구조물이 붕괴되어 가장 안전한 기울기로 잔존한다. 이러한 양상은 성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토성의 경우 붕괴부를 기준으로 경사도를 측정할 경우 안식각보다 경사도가 높기 힘들다. 따라서 안식각 이상의 경사도로 토축성벽을 축조할 수 없는데, 굳이 토성을 축조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상은 고총고분의 봉토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발표자는 고총고분과 성벽을 축조하는 기술력이 차이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³⁷⁾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경상도지역 고총고분 중 영일 냉수리고분·창녕 계성Ⅲ지구 1호분·의령 경산리 1호분 등의 봉분 기울기는 38~41° 정도로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② 효율성의 관점이다. 외벽과 내벽을 석재로 적심을 토축으로 쌓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벽을 나동욱은 ‘석축형토성’이라고 지칭한바 있으며³⁹⁾, 발표자 역시 이 견해에 동감한다. 추성산성 남문지⁴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석축형토성은 면석과 토축부를 동시에 쌓아 올리므로 절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남

35) 심광주, 2013, 「淸州 父母山城과 周邊 堡壘의 築城技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한국성곽학회, 37~76쪽.

-----, 2014, 「고찰 및 분석-1. 遺構와 遺物에 대한 考察-」, 『漣川 瓠盧古壘IV-第-3·4次 發掘調査報告書』, 425~436쪽.

36) 심광주, 2014, 앞의 책.

37) 안성현, 2015, 앞의 책.

38) 홍보식, 2012, 「횡혈식·횡구식석실분의 봉분 조성 방식 검토」, 『백제와 주변세계』, 진인진, 644~667쪽.

39) 나동욱, 1994, 「경남지역 토성연구」, 동아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40) 曾坪郡·中原文化財研究院, 2014, 『曾坪 柵城山城-4次(北城 1次)發掘調査 報告書-』.

한지역 고구려성곽의 성벽은 토축부와 석축부 사이에 절개선이 확연하다는 점에서 동시기로 볼 수 없다. 또 이들을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가정하면, 토축부를 먼저 축조한 후 석축부를 덧대어 쌓거나 아니면 잔존 성벽보다 넓은 폭으로 축조한 후 토축부를 절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성벽에 비하여 더 많은 공력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축성에 대한 관념은 최소한의 공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축성관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면석과 적심을 동시에 쌓아 올리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토축부를 먼저 쌓고 석축부를 부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③ 방어력과 견고성의 관점이다.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과 같이 토축부와 석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성벽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토성 외부에 석축이 부가됨으로써 석축성벽과 토축성벽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로 토성보다 방어력이 우수하다고 주장한다.⁴¹⁾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외벽의 축조수법을 중요시 여기는 듯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임진강 및 남한지역 고구려보루에서 잔존하는 성벽의 토축부와 석축부를 동시기로 보는데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발표자는 성벽의 견고성을 높이는 속성으로 외벽의 축조수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적심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적심은 채운다고 기술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적심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면석과 동시에 쌓아 올렸으므로 외벽이 붕괴되더라도 적심은 붕괴되지 않는 경우를 성곽 전공자들은 자주 목도할 수 있다.⁴²⁾ 이러한 관점에 서면 석축부가 가축된 성벽은 외부에서 보았을 때 견고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석축부의 폭이 일반적인 석축성벽보다 얇고, 토축부를 절개한 후 부가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로 인해 외부의 충격과 상부에 흙을 다진다고는 하지만 연결부는 우수와 같은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고구려 보루의 성벽 모식도나 토층도를 검토해 보면 석축부는 토축부를 수직 및 완만한 경사로 절개하고 있으므로 석축부가 슬라이딩 될 가능성 역시 높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성벽은 석축성벽과 토축성벽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결합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④ 만일 성벽에 외피토루가 설치되었다면, 성벽은 지상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축흔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 예로 흥천 신금성⁴³⁾과 거창 정장리 토성⁴⁴⁾의 성벽은 내·외벽을 쌓고 내·외벽쪽에 기단석렬을 놓고 토축벽을 가축한 형태이므로 원성벽에서 수축흔이 나타나지 않는다.⁴⁵⁾ 하지만 발표자가 토성의 성벽 내·외부를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 ㉠ 수축부가 성벽의 기저부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근접한 부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로 울주 화산리성지⁴⁶⁾, 울산 반구동토

41) 토심석축공법으로 성벽을 쌓았을 때의 효용성을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축성입지 선정이 자유롭다. 둘째, 성 내부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증진된다.(심광주, 2013b,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연천 대진리산성 학술대회』,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7~84쪽.) 한강유역의 고구려보루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 설정된 목책→석축성벽 단계와는 달리 토성 단계를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자 역시 이 견해에 공감하며, 석축부를 후대의 수축으로 보는 것이 다를 뿐이다.

42) 안성현, 2009, 「고찰」, 『金海邑城 北門址』.

43) 忠南大學校博物館, 1994, 『神衿城』, 忠南大學校 博物館叢書 第10輯.

44) (재)경상문화재단연구원·거창군, 2011, 『居昌 正莊里 遺蹟』, 學術調查報告書 第11冊.

45) 거창 정장리토성의 경우 원성벽의 내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한다. 이는 외벽을 덧대어 쌓기 이전의 수축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벽 축조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지⁴⁷⁾, 사천 선진리성⁴⁸⁾ 등은 기단석 상부까지 수축이 이루어졌다. 또 부산 구랑동성지는 토축성벽에서 석축성벽으로 개축된 흔적이 확연하며⁴⁹⁾, 기장 고읍성은 초축 외벽과 인접한 부분을 ‘L’자 형태로 절개한 후 수축성벽을 축조하였다.⁵⁰⁾ 또 회원현성⁵¹⁾과 앞서 살펴본 거창 정장리토성·신금성의 수축부는 초축성벽에 덧대어 쌓았는데, 수축부의 기저부에 외피토루의 흔적이 잔존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선진리토성의 북벽은 성벽 외부에 통일신라대시에서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180cm 정도의 두께로 퇴적된 상태로 조사되었다.⁵²⁾ 따라서 위의 토성들에서는 외피토루를 쌓았다고 상정하기 힘들며, 덕진산성의 토성벽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㉔ 성벽의 수축부가 성벽의 일정 높이까지 이루어진 경우인데, 고성 고읍성⁵³⁾, 사천 선진리성 남문지 주변, 동래 고읍성⁵⁴⁾, 대전 월평동성지 등이다. 이중 고성 고읍성과 사천 선진리성은 성벽 기저부에 사질점토를 30~50cm정도 덧대어 보강하였다. 이중 고성 고읍성은 보강토의 경계지점에 수축이 이루어졌다. 이와 달리 월평동성지는 판축토성 기저부 높이 100~120cm로 쌓았는데 잔존 성벽의 높이가 426cm임을 감안할 때 외벽을 피복할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월평동토성의 석축벽은 보강토를 단면 ‘U’자상으로 90cm정도 굴착한 후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들 토성들 역시 외피토루를 상정하기 힘들며, 성벽 기저부를 보강하는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㉕ 성벽에 수축흔이 나타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청주 우암토성 남벽⁵⁵⁾·김해 송정리토성⁵⁶⁾ 등이다. 이들 토성들은 단면상에서 외벽의 상당한 높이까지 보강토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우암산성의 성벽 상부에 수축흔이 잔존하므로 그 이상 쌓았다고 보기 힘들며, 보강부의 토층은 수평하다. 조사단은 후대에 개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김해 송정리토성은 내·외벽에 보축을 하였는데, 보강부의 토층은 성벽 내·외부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다만 이들 보강부가 성벽 전체에 걸쳐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이외 정북동토성⁵⁷⁾도 외피토루를 상정할 수 있으나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과 같이 성벽을 덮을 정도로 높게 쌓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번에 분석한 토성 성벽의 기울기는 비교적 수직에 가깝게 쌓고 있지만 외피토루를 상정하기

46) 東亞大學校博物館, 1990, 『蔚州華山里城址』.

47) 심봉근, 1992, 「蔚山 伴鷗洞土城址」, 『歷史考古學志』 第8輯.

48) 泗川市·慶南文化財研究院, 2008, 『泗川 船津里城-사천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49) 김갑진, 2009, 「부산 구랑동 유적 성격에 대한 검토」, 『한국성곽학보』 17집, 120~148쪽.

(재)동양문화연구원, 2013, 『부산 구랑동성지-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부지(H지구)문화재 발굴조사-』.

50) 기장군·(재)부경문화연구원, 2012, 『기장 고읍성 학술조사 보고서-기장고읍성 보존 및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비지정 문화재 기초조사-』.

51)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馬山市, 2007, 『馬山 會原縣城-馬山 會原縣城整備復元을 위한 發掘調査 報告書-』.

52) 泗川市·慶南文化財研究院, 2008, 앞의 책.

5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4, 「고성 서외리 49번지 일원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조신규, 2015, 「고성에서 새롭게 발견된 통일신라 토성」, 『한국성곽학보』 제27집.

54) 慶南文化財研究院·(주)대경종합건설, 2007, 『東萊 古邑城址-釜山 望美洞 共同住宅敷地內 遺蹟 試·發掘調査 報告書-』.

55) 백영중, 2015, 「청주 우암산성의 성격과 특징」, 『한국 성곽의 최근 조사 성과』 한국성곽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4~26쪽.

56) (財)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1, 「김해 복합스포츠허브·레저시설부지내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결과약보고」.

57) 中原文化財研究院, 2013, 『淸州 井北洞土城3-北門址 發掘調査-』.

힘든 경우도 있으며, 기저부만 보강한 형태 등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성의 성벽을 안식각 이상으로 쌓기 힘들다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논지의 수정

발표자가 2014년에 작성한 논고의 주장은 크게 7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덕진산성의 내성은 초축 당시 토축성벽이었으며,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내성 전체를 들렀다. **둘째**, 석축성벽은 후대에 개축된 것으로 고구려가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석축성벽은 지속적으로 성벽으로 사용되었으며, 성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보축과 보축성벽을 설치하였다. **넷째**, 덕진산성의 내성은 고구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각 시기별 경관은 달랐고, 현재의 경관은 조선시대 후기에 완성되었다. **다섯째**, 덕진산성의 외성은 통일신라시대에 초축되었으며, 조선시대까지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성곽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여섯째**, 북동쪽 성벽의 기단보축 중 가장 외부에 설치된 보축을 보축성벽을 보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보았다. **일곱째**, 덕진산성과 동과리보루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로서 선후관계를 알 수 없지만 동시기에 사용된 것은 분명하며, 동과리보루가 덕진산성에 편제된 보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발표자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과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누어지지만 두 번째와 여섯 번째 견해는 수정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후자는 지엽적인 것으로 트렌치 조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전면 노출 결과 2차 기단보축과 연결되므로 기단보축의 일부로 보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2차 기단보축의 경우 지형이나 구조물에 따라 축조수법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자의 경우 1차 수축성벽의 축조시기를 고구려로 본 근거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인데,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벽 내부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조수법과 중복 관계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성벽의 축조수법은 지대석을 두고 장방형의 할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서울·경기지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신라산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신라산성의 경우 지대석이 설치된 초현기 성벽은 면석과 지대석에 동일한 석재가 사용되었다. 면석은 경주 관문성이나 안성 망이산성과 같이 방형에 가깝고 치석상태도 삼국시대에 비하여 정연하다. 즉 지대석과 조합을 이루는 성벽은 방형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장방형의 할석으로 쌓은 성벽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1차 수축성벽을 통일신라시대로 볼 경우 덕진산성 성벽의 변화양상을 설명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발표자는 안성 망이산성의 초축 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주저되는바가 없지 않지만 유물이나 축조수법으로 볼 때 9세기 중반 이후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되며, 덕진산성의 보축성벽 역시 망이산성과 유사한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차 수축성벽을 7세기 후반이나 이보다 늦은 시기로 설정할 경우 150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대대적인 개축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셈이 된다. 덕진산성과

유사한 변화과정을 보이는 연천 대전리산성⁵⁸⁾ 초축시기가 신라의 북진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덕진산성과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1차 수축성벽의 시기를 신라보다는 고구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하지만 2015년도 조사결과 성벽 내부에서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출토되었으므로 더 이상 발표자의 견해를 주장하기 힘들어졌다. 따라서 1차 수축성벽의 시기로 조사단의 의견과 같이 통일신라시대로 수정한다.

III. 축조연대와 성격

1. 축조연대

성곽의 초축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곽의 특성상 군사 및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후대에 지소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지면서 초축 당시의 축조수법을 파악하기 힘들다.

둘째, 성곽 축조에 여러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구간마다 참여한 집단 간의 기술 수준 차이 등으로 각 구간마다 상이한 축조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조사지점에 따라 초축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⁵⁹⁾

셋째, 성곽 유적의 특성상 전면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므로 성벽과 부속시설간의 토층을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부속시설은 성곽이 사용되는 전 시기에 걸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축조되거나, 아니면 증축 및 수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부속시설에 대한 조사로 성곽의 초축 시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성곽 및 산성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축조되기 때문에 성곽의 축조 이전 시설물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 및 일정 기간을 두고 재사용되었을 경우 초축 이전 유물과 초축 및 후대 유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성곽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로 초축 시기를 추정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곽 및 산성은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성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일 지역 내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점에는 시기를 달리하는 성곽들이 축조되었다. 따라서 배치상태로 고대 교통로 및 국경선을 설정하기 이전, 개별 성곽의 축조시기와 편년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⁶⁰⁾

58) 고려문화재연구원, 2014, 「연천 대전리산성 발굴조사 결과약보고」.

대전리산성의 성벽은 크게 초축성벽 및 기단보축→2차 기단보축·장방형 석축→수축성벽→보축성벽 순으로 변한다. 이중 2차 기단보축과 장방형 석축의 선후관계는 알 수 없다. 특히 장방형 석축은 덕진산성 치에 설치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장방형 석축과 유사하다.

59) 박중익, 「경남지역 고대석축 산성 연구」, 『경사사학』 10.

60) 안성현, 2011, 「창녕 화왕산성 성격 연구」, 『愚堂 李榮奭博士 停年退任紀念論叢』, 愚堂李榮奭博士 停年退任紀念論叢刊行委員會, 189쪽.

IV. 덕진산성 축성의 의미

임진강 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⁶¹⁾, 그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발표자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덕진산성과 동파리 보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동파리보루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논리 전개는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심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 규모, 출토유물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두 유적은 초평도의 서쪽과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주변의 여울은 상류인 북쪽으로 가면서 얕아지므로 여울을 통제하기에는 동파리보루가 유리하다. 다만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가시권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파리보루의 동쪽으로 일월봉(190.8m)의 지맥이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진강이 만입된 구릉정상부에 위치하므로 남쪽은 덕진산성에 막혀 조망권이 불리하다. 이에 반해 덕진산성은 초평도 북안의 저구릉성 산지 중 남쪽으로 돌출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은 물론 문산읍 장산리 일대의 조망권이 탁월하다.

규모는 전술한 바와 같이 덕진산성 600m정도인데 반해 동파리보루는 200m정도로 소형이다. 내부 역시 후자는 산정상부를 두르는 전형적인 테회식으로 아차산 주변 및 무등리 1·2보루와 유사하지만 덕진산성은 남봉과 북봉 사이에 곡부를 포함하고 있어 미약하지만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덕진산성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막새와 기와편·토기편, 동파리보루에서는 기와편과 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질이나 양으로 보아 연천 호로그루에 비하여 빈약한 것은 사실이므로 기와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설마천로가 문산천로에 비하여 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된다.⁶²⁾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파리보루의 정확한 초축시기는 알 수 없으나 덕진산성과 동시기에 사용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동파리보루가 먼저 축성되었다면 덕진산성이 동파리보루에 편제된 보조성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내성의 북쪽 봉우리가 아닌 남쪽 봉우리에 축성하는 것이 주변을 조망하는데 유리하다. 따라서 임진강 중·하류역의 통제를 위하여 덕진산성을 먼저 쌓고, 이후 임진강 남안에서 초평도를 거쳐 도강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동파리보루를 축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⁶³⁾ 따라서 덕진산성은 임진강 중·하류역을 방어하는 거점성이었으며, 행정적인 치소보다는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1) 崔種澤, 1999,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第8輯, 高句麗研究會, 257~288쪽.
백종오, 2000,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연보』 3, 경기도박물관, 59~95쪽.
徐榮一, 2002,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研究」, 『文化史學』 第17輯, 韓國文化史學會, 63~80쪽.
심광주, 2002,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第12輯, 高句麗研究會, 453~500쪽.
62) 권순진, 2012,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再考」, 『軍史』 第83號,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163~196쪽.
63) 안성현, 2014, 앞의 책.

V. 맺음말

과주 덕진산성은 간략하게 이루어진 지표 및 시굴조사를 근거로 축조시기와 성격에 대해서 무리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연차조사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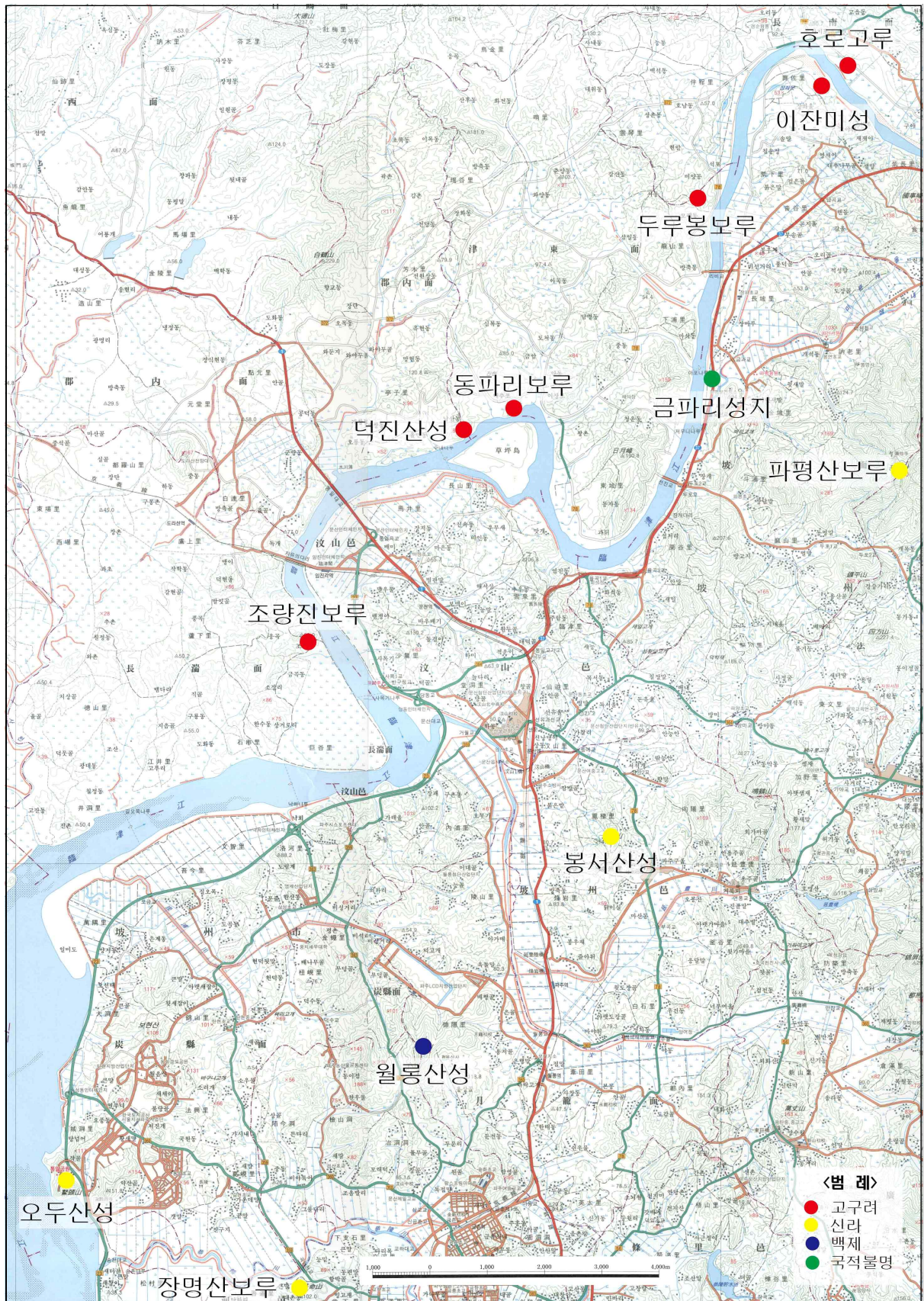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서 축성된 내성과 통일신라시대에 가축된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성임이 밝혀졌다. 또한 고구려는 현재 내성과 동일한 규모의 토성을 축조하였다. 초축당시 덕진산성의 규모는 600m정도로 임진강 북안에 축조된 성곽들 중 은대리성을 제외하고는 최대형이며, 임진강 중·하류를 통제하는 거점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이 시기의 성내부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평탄지는 협소하였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임진강을 도강하기 유리한 여울목 주변에 덕진산성에 편제된 동과리보루를 축조하여 방어력을 높였다.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성벽은 석축으로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졌으며, 성내부의 경관 역시 이전 시기와 상당히 다르게 변모하게 되는데, 곡부를 비롯한 내부에 대대적인 대지조성이 이루어진 후기와 건물지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이전과는 달리 군사적 기능과 더불어 치소의 성격을 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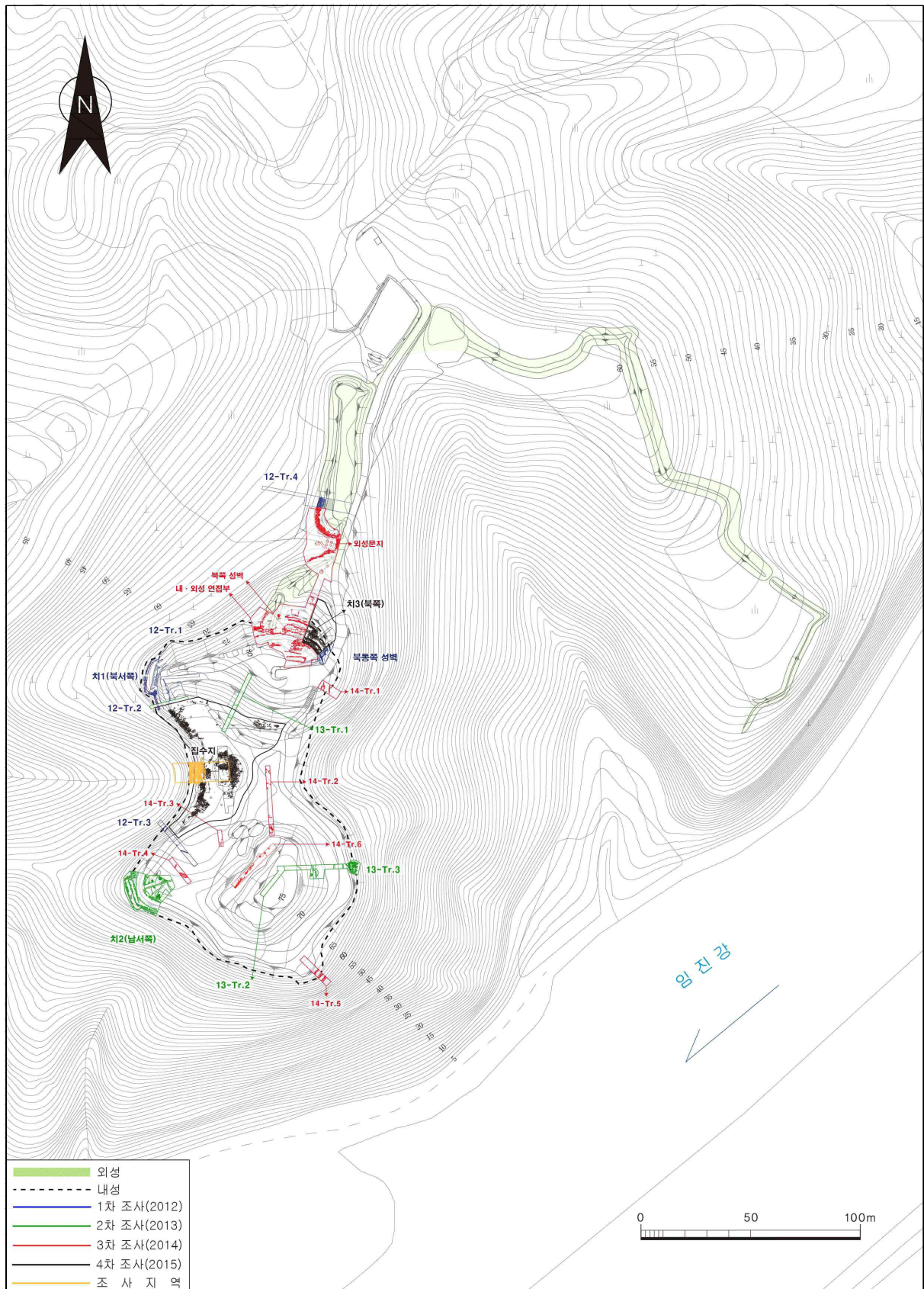
한편, 이와 못지않게 덕진산성의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 및 보루의 시기별 경관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와 석축부의 성격, 토성의 구조 등을 재해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학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덕진산성에 대한 이제까지 조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내성의 서쪽 곡부의 변화양상과 초축성벽의 성격, 남쪽 봉우리의 구조와 시굴 트렌치에서 확인된 건물지에 대한 조사. 그리고 외성의 문지와 성벽 및 내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산성의 내부 경관을 바탕으로 한 성격과 더불어 시기별 임진강 유역의 관방과 물류체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⁶⁴⁾

64) 도면과 사진은 주에 명기한 자료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별도의 출처를 달지 않았음을 밝힌다.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 관방유적분포도



도면 2. 덕진산성 전체 현황도(1:2000)



사진 1. 북동쪽 성벽 붕괴부 정리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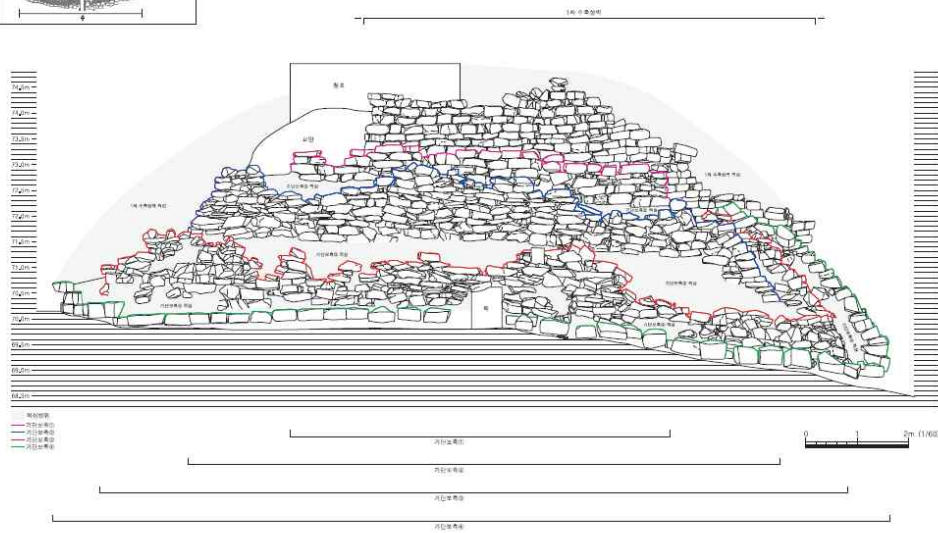
사진 2. 붕괴부 유물 출토상태



사진 3. 성벽 붕괴부 출토 유물 세부



사진 4. 성벽 붕괴부 출토 유물 세부 1



도면 3. 북서쪽 치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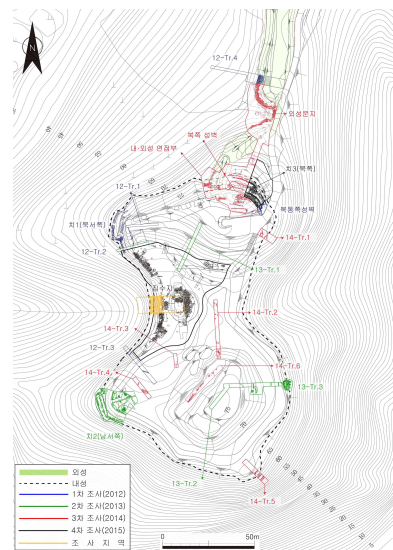
사진 5. 북서쪽 치 입면



사진 6. 북서쪽 치 입면 세부



사진 7. 덕진산성 주변 지형



도면 4. 덕진산성 내성 현황도



사진 8. 구의동 보루 전경



사진 9. 구의동 보루 돌출부 및 성벽



사진 10. 구의동 보루 돌출부 및 성벽



사진 11. 구의동 보루 돌출부 측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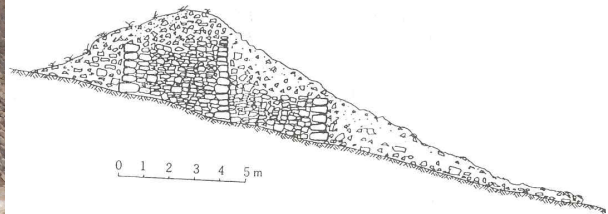
사진 12. 곡부 서쪽 성벽 노출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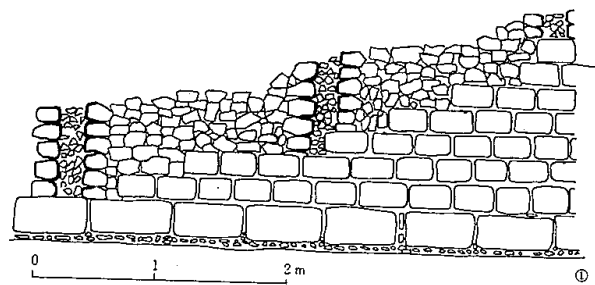
사진 13. 곡부 서쪽 성벽 노출 후 전경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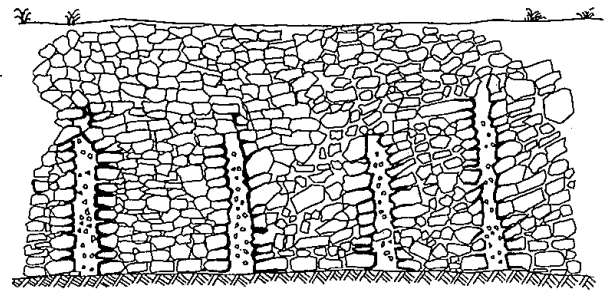
사진 14. 함안 성산산성 내벽 전경



도면 5.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 단면



도면 6.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 외벽



도면 7. 대성산성 소문봉 주변 성벽 중간벽



사진 15. 거창 정장리 토성 성벽



사진 16. 거창 정장리 토성 성벽 토층



사진 17. 울주 화산리 토성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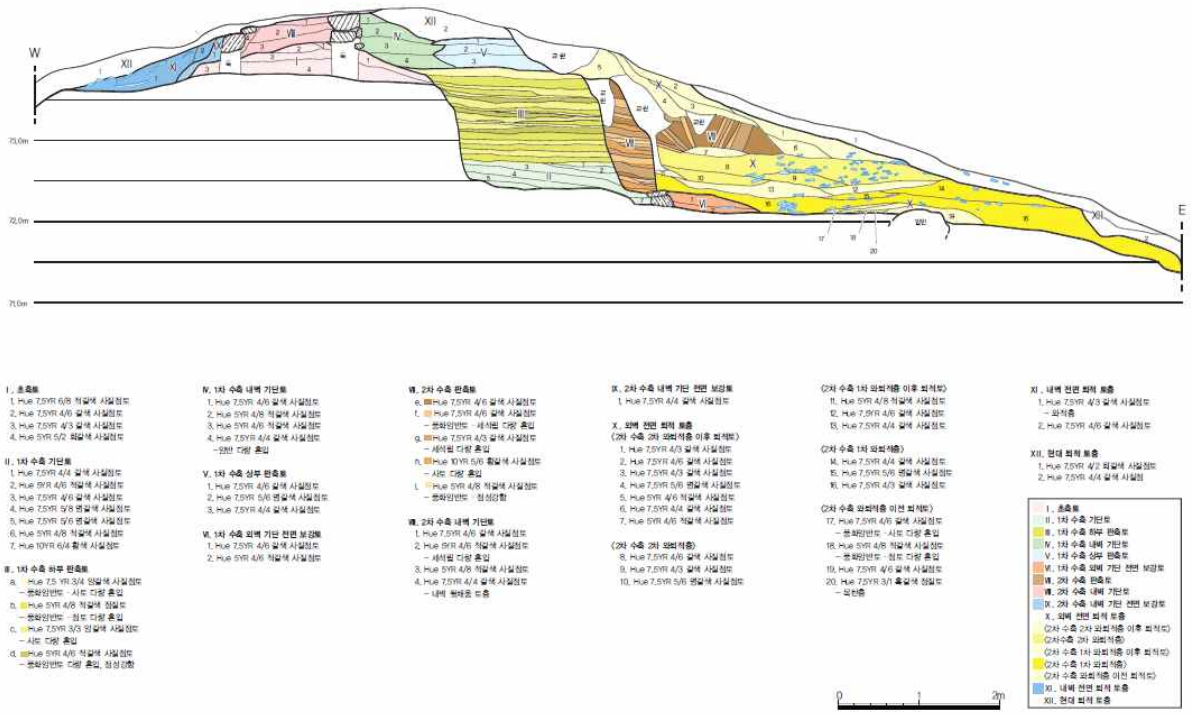
사진 18. 울주 화산리 토성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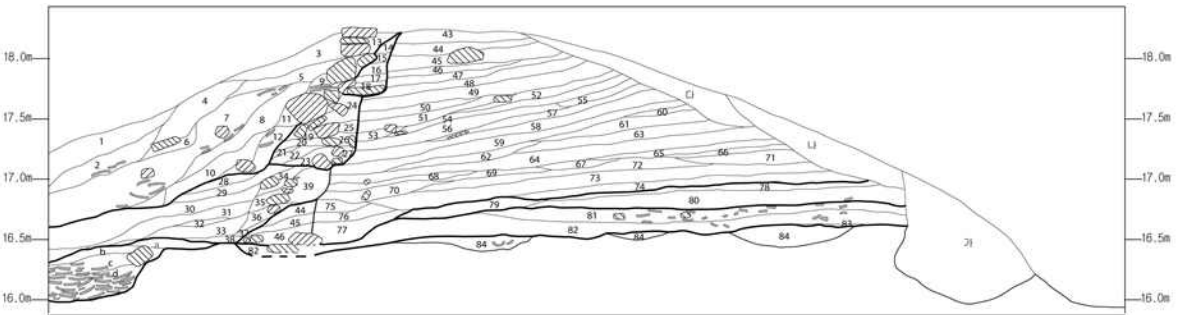
사진 19. 부산 구랑동성지 성벽 단면



사진 20. 회원현성지 성벽



도면 8. 기장 고읍성 성벽 토층



도면 9. 고성 고읍성 성벽 단면



사진 21. 덕진산성 북쪽 봉우리 유구 노출 후 전경

사진 22. 덕진산성 북벽 노출 후 전경



사진 23. 덕진산성 집수지 및 서쪽 성벽 노출 후 전경



사진 24. 덕진산성 집수지 및 내벽부 노출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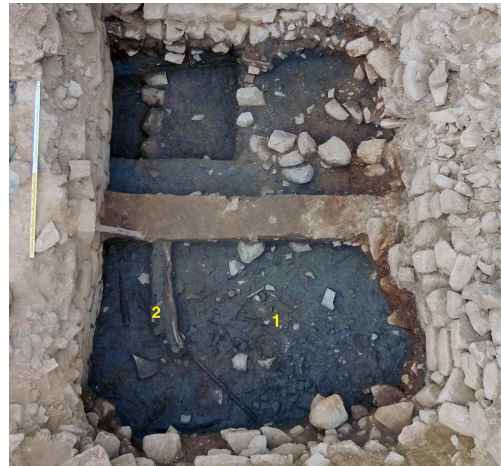


사진 25. 집수지 노출 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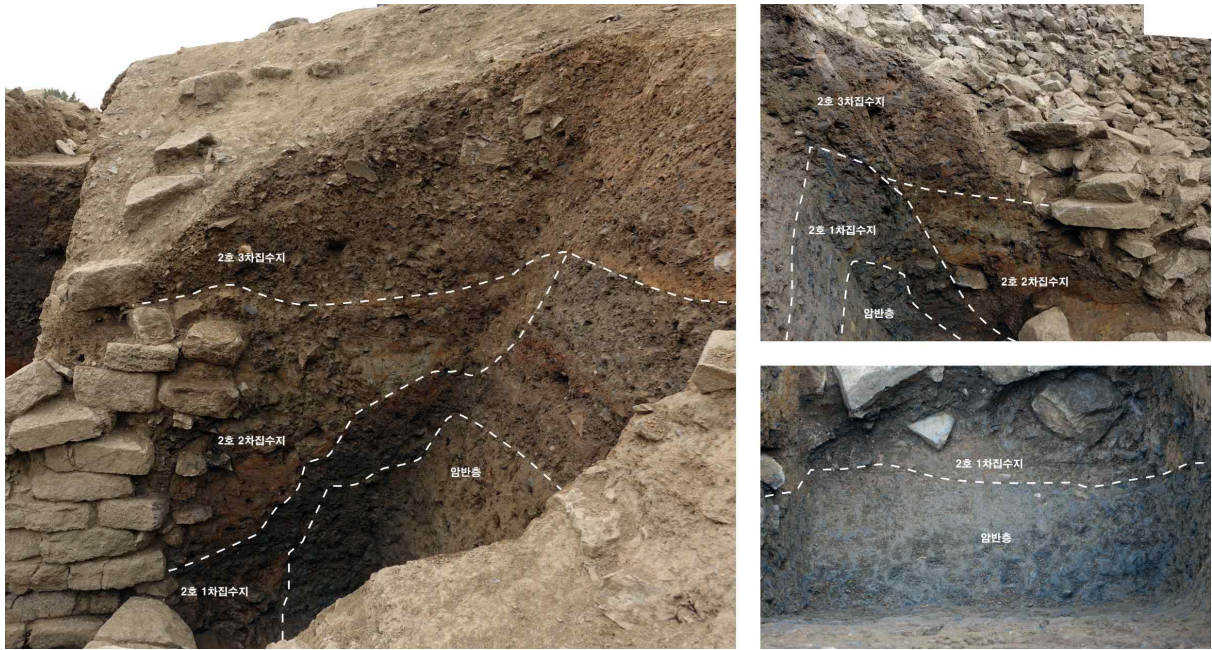


사진 26. 덕진산성 2호 집수지 트렌치 토층(우:서쪽, 좌상:동쪽, 좌하:바닥면)



사진 27. 2013-1Tr 전경(북쪽봉우리 남쪽)



사진 28. 2013-3Tr 전경(남쪽 봉우리 동쪽)



사진 29. 2012-3Tr 전경



사진 30. 주거지 내부 출토 장동옹(6세기)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원)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서영일(한백문화재단연구원)

- I. 머리말
- II. 지리적 특성과 교통로
- III. 관방체계 특징과 변화
- IV. 덕진산성의 위치와 활용
- V. 맺는말

I. 머리말

한반도는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는 대하천의 유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충적평야지대가 농경과 취수에 유리하여 인구가 집중되고 대규모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고대부터 한반도의 역사적 중심지는 대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 등 대하천 유역에 형성되었다. 고조선과 고구려는 대동강 유역, 백제는 한강 유역과 금강 유역, 신라와 가야는 낙동강 유역 등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

임진강과 예성강 유역은 대동강 유역과 한강 유역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과 예성강 유역은 일명 마식령산맥(임진북예성남정맥)으로 서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구 지역은 모두 한강 하구에 속하고 있어서 하류지역은 지역 구분이 무의미하다. 또한 한강 하구(일명 조강)는 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영종도, 연평도 등 여러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서로 이어지고 있어서 내륙수로와 연안해로가 교차하는 해상교통의 요지가 되어왔다. 즉, 해주만에서 아산만에 이르는 연안지대와 한강 하구(임진강과 예성강 포함) 일대는 해로는 물론 그 배후 기지가 되는 기항지와 이를 연결하는 육로가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한강 하구 일대는 삼국이 서로 쟁패를 펼쳤던 격전장이 되었다.

한편, 임진강은 한강의 지류이기도 하면서 한강 유역의 북쪽 경계지대이기도 하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쪽으로부터 한강 유역(현재 서울분지)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진강 일대에 방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곳이다.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는 일명 한북정맥이라고 부르는 산줄기가 놓여 있다. 한북정맥이 서울분지의 북쪽을 가로막아 자연 방어선을 형성하지만 한북정맥을 관통하

는 추가령구조곡과 한강 북쪽 강안지대가 임진강유역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이 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그 전면에 위치한 임진강 유역이 결국 한강 유역을 방어하는 최전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까지 임진강 유역에서 조사된 삼국시대 관방 유적도 대체로 임진강을 따라서 양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진강 유역의 전략적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임진강 하류지역 북안, 한강 하구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덕진산성이 삼국시대 임진강 일대 관방체계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다만, 임진강 일대의 관방체계에 대해서는 선학들의 연구가 많아서 덕진산성의 축조와 활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덕진산성이 축조되어 활용되었던 배경으로서 임진강과 덕진산성 주변의 지리적 위치와 여러 교통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덕진산성과 초축 및 활용 문제의 배경으로 임진강 일대 관방체계의 형성과 변화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방체계 속에서 덕진산성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추론하고자 한다.

II. 지리적 특성과 교통로

『산경표』는 한반도의 산줄기를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및 13개의 정맥 등 모두 15개의 산줄기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류한 산줄기는 수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질구조선을 중심으로 분류한 근대의 산맥체계와는 차이가 있다. 전통 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권은 수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서로 교류되었다. 따라서 『산경표』의 지리 인식은 근대 지리인식과 차이는 있지만 역사 지리적인 측면에서 활용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산경표』의 분류 기준을 따르면 임진강 수계는 임진북예성남정맥과 한북정맥 사이에 형성된 수계이다. 임진북예성남정맥은 백두대간의 두류산(1324m)에서 갈라져 나온 해서정맥이 남서방향으로 내려오다 황해도 곡산군 동촌면 화개산(1041m)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다. 여기부터 남쪽으로 진행하면서 황해도 금천 수룡산(716m), 천마산(762m) 등을 거쳐서 개성부근에서 서해와 접하게 된다. 한북정맥은 강원도 세포군 삼방리의 추가령 부근에서 백두대간과 갈라져 나와서 남쪽으로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의 백암산(1110m), 철원의 적근산(1073), 화천 대성산(1175m), 포천 백운산(904m) 등을 지나고 운악산(936m)에서 서남쪽으로 진행하면서 북한산을 지나 한강 하구에서 끝난다. 이상 두 산줄기는 예성강, 임진강, 한강 등의 분수계를 이루어 수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임진강 본류는 함경남도 안변군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하류에서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들어간다. 한반도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독립적인 하천으로 총 길이는 272km이고 유역면적 8,135km²에 이르는 비교적 큰 하천에 속한다. 임진강 수계의 2/3에 해당되는 중상류지역은 강의 높은 산지를 감입곡류하여 흘러서 강 주변으로 넓은 충적지는 크게 발달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넓은 분지가 형성된 곳은 강원도 이천 일대이다. 이 지역은 임진강이 곡류하면서 형성된 분지로 임진강 좌우로 충적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임진북예성남정맥의 높은 산들도 낮아져서 동서

방향으로 저지대와 구릉이 통로처럼 형성되는 곳인데 예성강 중상류(신계) 지역에서 임진강 중상류(연천, 철원)로 연결되는 교통로가 지나는 길목이 된다. 임진강 하류는 한탄강과 합류하는 연천군 마전부터 그 하구 쪽으로 비교적 넓은 평지가 나타난다.



장단과 파주 일대는 임진강 양안을 중심으로 낮은 구릉과 평지가 이어지고 있다. 임진강의 강폭은 하류의 경우 약 2,000m 이상이지만 덕진산성 부근의 초평도와 임진나루 일대를 지나면 서부터 급격히 좁아지기 시작한다. 연천 마전 부근에 이르면 강폭이 약 50m 정도로 좁아진다.

도면 1. 산경표에 의거한 중부지방의 산줄기

하류는 유속이 완만하고 조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강 양안으로 빨이 발달하였다. 반면에 중상류 지역은 단구가 발달하였고 양안 지대가 협곡을 이루는 곳이 많다. 대체로 임진나루를 기준으로 그 하류로는 범람원과 빨이 발달하였고, 그 상류로는 단구와 협곡이 발달하였다. 임진강 하류지역은 도강을 위해서 배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으로는 사용하려면 도강 장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기에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중상류 지역은 강폭이 좁고 곳곳에 여울이 발달하였다. 이런 곳이 임진강을 건너는 도강처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갈수기에는 수량이 적어 강폭이 더 좁아지게 되므로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한다.

그러나 강폭이 좁고 여울이 발달되었다고 모두 도강하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의 양안 지대는 대부분 단애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장단 일대에는 약 30Km 정도 수직에 절벽이 형성되어 있어서 도강이 유리한 지역은 제한적이다. 비교적 도강에 유리한 곳은 지류가 흘러드는 곳인데 지류가 단애를 침식하여 강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된 곳이다. 반면에 단애가 발달된 곳은 일종의 천연적인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도강이 가능한 지역에는 관방을 설치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강 양안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였다.

임진강 수계의 동쪽은 추가령구조곡이 형성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서울에서 원산 방향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왔다. 근대 지리인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진강 수계를 기준으로 한반도는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으로 나누어진다. 임진강 수계는 자연히 한반도 중부의 북쪽 경계지대이고 북부 지역으로 가는 통로가 되며 북부와 중부의 문화적 접이지대가 된다. 또한 임진강 수계는 장단과

과주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농경지가 적고 인구 밀도도 높지 않아서 농업부양력은 높지 않다. 하지만 고대문화의 중심지였던 한강 유역과 대동강 유역의 접이지대가 되고 북방계 문화가 유입되는 통로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또한 추가령구조곡은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북부 동해안 지역(함경도)과 중서부 해안 지대를 연결하는 통로였다. 연천과 철원 일대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현재의 서울 일대(한강 하류지역)를 거치지 않고 중부 내륙(북한강과 남한강 상류지역)을 지나서 남부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내륙교통로의 관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임진강 유역의 지리적인 조건과 고대 문화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에서 삼국 간의 치열한 항쟁은 토지와 인민의 확보라는 경제적인 요인 보다 세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군사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는 이러한 측면에서부터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에 임진강은 문화적 접이지대에서 시작하여 고구려-백제 및 고구려-신라 등이 각각 대립하는 국경지대로서 삼국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던 곳이었다. 이에 따라 임진강을 따라서 다수의 성곽이 설치되었으며 일종의 관방체계도 형성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방체계나 각각의 관방 유적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인 교통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지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임진강 유역 중 덕진산성과 관련되는 과주 일대의 고대 교통로와 관방 유적의 분포를 살펴보겠다.

임진강 하류지역 과주 일대는 남쪽 옛 과주 일대는 대체로 높은 산줄기가 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지만 북쪽 장단 일대는 비교적 낮은 구릉과 평지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다.¹⁾ 즉, 임진강 남쪽으로는 동북쪽에 감악산(675m) 과평산(496m) 등 비교적 험준한 산들로부터 뺀 산줄기가 남쪽과 서쪽으로 이어진다. 이 중 과평산 일대에서 남쪽으로 뺀 산줄기는 고령산(622m), 사패산(552m) 등지로 이어지면서 북한산 일대까지 뺀어나가고 있다. 이 산줄기는 약 해발 400m 이상의 잔구성 봉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양주와 과주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령산에서 분기한 또 다른 산줄기 하나는 서쪽으로 뺀어나가서 심학산(193m)에서 한강과 접한다. 이 산줄기는 동쪽의 산줄기에 비하여 해발고도가 낮고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산줄기가 과주와 고양시의 경계를 형성한다. 과주시 일대를 다시 지형에 따라 지역적으로 세분하면 동쪽부터 적성, 과주, 교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교하는 이름 그대로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역이다. 곡릉천변에 형성된 평야지대가 대부분이고 교하읍 일대와 오두산(임진강과 한강의 합류지점) 일대에 구릉성 산지가 발달되어 있다. 한강 하구를 이용한 수로가 발달하였지만 육로로 도강은 어렵다. 오두산에는 관미성으로 비정되기도³⁾ 하는 오두산성이 있다. 오두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식 산성인데 내성은 삼국시대에

1) 과주와 장단은 조선시대까지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있었지만 남북분단으로 휴전선이 생기면서 장단이 과주에 포함되었다.

2) 이 세 지역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행정적으로 구분되는 지역이었지만 1914년 적성군과 교하군이 과주에 통합되면서 현재까지 과주시에 포함되어 있다.

3) 윤일령,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관미성 위치고」.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⁴⁾ 외성은 고려시대 이후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지로 보아 한강 하구를 감제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조시기 및 활용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유동적이다.

과주는 현재 과주시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문산천과 그 지류에 의하여 형성된 침식평야와 낮은 구릉지로 구성되어 있다. 산지의 비율이 낮고 경작에 유리한 지역도 많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따라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유적이 밀집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현재 과주읍에 과주목이 설치되었는데 관서지방에서 한양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교통과 국방의 요지였다. 과주읍 북쪽 봉서산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봉서산성이 있다. 과주목 일대는 조선시대 한양 북쪽 관문에 해당되었고 국방상 요충지였다.

적성 지역은 감악산과 파평산 북쪽 임진강변에 형성된 평야와 구릉지대이다. 임진강을 따라서 비교적 넓은 충적 대지가 펼쳐지고 있다. 이 지역은 임진강을 배가 없이도 도강할 수 있는 여울이 곳곳에 발달하여 고대부터 임진강으로 도강하는 대표적인 교통의 요지였다. 임진강 북안의 호로그루, 당포성 등이 대표적인 도강처에 설치된 관방시설이다. 임진강 남쪽에 칠중성, 아미성, 수철성 등은 적성에서 양주로 통하는 교통로에 설치되었던 성곽들이다. 특히 칠중성과 호로그루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치하는 관방유적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대치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였다.⁵⁾ 성곽의 분포 및 문헌기록으로 보아 적성지역은 삼국시대 임진강 방어의 핵심지역으로 추정된다.

이상 지형과 관방유적의 분포를 고려하면, 임진강 하류 지역에서 한강유역으로 통하는 육상교통로는 과주와 양주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를 기준으로 크게 두 노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하나는 과주에서 고양을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는 통로이고 다른 하나는 적성에서 감악산 동서의 고갯길을 지나 양주 분지를 지나서 서울로 진입하는 통로(이하 적성로)이다. 고려시대 중기 이전까지는 후자가 그 이후는 전자가 간선로였다. 이 두 교통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과주에서 고양을 거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로는 조선시대에는 관서로 또는 의주로라고 불렀다. 이 길은 덕진산성과 관련된 길로 임진나루를 통과하여 고양을 지나 현재의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길이다. 과주의 동쪽과 남쪽은 한북정맥을 통과하는 고갯길이 발달하였고 북쪽은 임진강을 도강하는 도진이 발달하였다. 전술한 것과 같이 임진강은 하류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며 뺨이 넓게 발달하여 도강에 불리하다. 선착장이나 항구가 들어서기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덕진산성 상류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강폭이 좁아지게 되며 강변의 뺨도 좁아지게 된다. 그 중 비교적 강으로 접근하기가 쉽고 배를 정박하기에 유리한 조건의 지형이 등장한다. 그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곳이 임진나루이다. 임진나루는 임진강이 서쪽으로 흐르다 임진나루 주변의 구릉에

4) 일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두산성에서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경희고고미술사연구소, 1992, 『오두산성』.)

5)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초기부터 호로하가 낙랑 또는 말갈 등과의 접경지역으로 등장하며 전투기록도 있다. 호로하는 호로그루 일대 임진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책에는 7세기 중반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임진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칠중성이 양국이 치열하게 항쟁하였던 대표적인 전투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여기에 한강 수로를 포함시키면 크게 총 세 개의 교통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막혀서 강이 북쪽으로 곡류하는 지점이다. 북쪽 장단 방향은 충적지가 발달하고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임진나루 주변은 강에 의하여 침식된 단애를 이루지만 나무가 있는 곳은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에 의하여 침식되어 'V'자형의 통로가 형성되어 강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임진나루를 지나서 서울방면으로 가는 지름길은 혜음령이다. 혜음령은 고양과 파주의 경계로 창릉천과 곡릉천에 의하여 형성된 계곡부를 연결하는 고개이다. 해발고도는 높지 않지만 주변이 400m 이상의 산지로 쌓여 있어서 인구밀도가 낮고 양 방향에 형성된 계곡을 구불구불 지나서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였다. 따라서 고갯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여행자들이 묵어 갈 수 있는 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혜음령 북쪽에 분수원, 광탄원, 혜음원 등이 있었고 그 남쪽에는 벽제관이 있었다.

기록이나 유적으로 보면 임진나루와 혜음령을 연결하는 길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관서로였다. 하지만 이 길은 고려 중기 이전에는 그리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다. 기록이나 유적이 모두 고려 중기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이전 개경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은 장단-적성-양주 등을 지나서 서울 광나루를 지나서 적성로가 간선이었다. 그런데 고려시대 남경이 설치되면서 혜음령과 무악재를 거쳐서 남경으로 통하는 길이 간선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길은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가능하다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빠른 길을 사용하려는 습성이 강하다. 남경으로 가는 여행자들은 양주로 우회하는 것보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혜음령을 거쳐서 가려고 하였을 것이다.⁷⁾

적성로는 감악산 동서의 고갯길을 통과하면 양주분지를 지나 서울분지까지 평탄한 지형이 연속되어 통행의 불편이 없었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대표적인 군사도로로 활용되었고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한강과 임진강 유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교통로로 사용되었다. 당시 서울의 중심지역은 현재의 광나루와 강동구 및 하남시 일대였다. 따라서 임진강을 도강하여 서울 동남부 지역에 이르는 길은 양주분지를 통과하는 길이 지름길이었다. 적성지역 남쪽은 마차산-감악산-파평산으로 이어지는 높은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다. 이 중 감악산 동서쪽에 고갯길이 양주분지로 통하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 이를 편의상 적성동로와 적성서로라 칭하겠다.

적성서로는 감악산 서쪽의 어룡고개(설마재)를 통과하는 길이다. 어룡고개는 감악산과 파평산 사이에 형성된 안부로 북쪽으로는 설마천 남쪽으로는 신천의 지류인 입암천이 시작되는 분수계이다. 고개 정상부에서 남북으로 설마천과 입암천에 의하여 침식된 길고 구불구불한 계곡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양 계곡이 교통로로 사용되었다. 비교적 험하기는 하지만 적성 지역과 양주분지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이다. 어룡고개 북쪽 입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적성현(칠중현)인데 감악산에서 뻗은 가지능선이 끝나는 곳에 칠중성이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을 도강하여 오면 고갯길로 진입하기 전에

7) 이 길은 적성로에 비하여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고갯길과 산지가 많았다. 더구나 『동문선』에 실려 있는 「혜음원신창기」에 의하면 이 길은 노변시설이 거의 없어서 통행에 불편이 많았다. 남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경과 소통이 용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혜음령 길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한 사업이 노변에 여행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고 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혜음원의 창건은 바로 국가의 이 같은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차단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⁸⁾ 칠중성 전면으로는 육계토성이 있고 서북쪽으로 임진강 북안에는 호로그루가 있다. 장단에서 호로그루-칠중성-어룡고개-양주 분지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이어졌다.

적성동로는 감악산 동쪽에 위치한 적성면 적암리 및 어유지리 일대를 거쳐서 양주로 통하는 길이다. 장단 방향에서 당포성을 거쳐서 임진강을 도강하면 어유지리를 지나서 적암리로 진입하게 된다. 적암리 남쪽으로는 감악산과 마차산 사이에는 간파천에 의하여 형성된 협곡지대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 적암리에서 양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협곡을 따라 남하해야 한다. 협곡의 좌우는 비교적 험준한 마차산과 감악산 줄기가 막고 있다. 특히 적암리에서 간파리로 진입하는 곳은 간파천이 회절하면서 병목처럼 좁아지고 좌우로 절벽과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통행을 차단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이 지점에 서남부 구릉 상면에 고구려가 활용하였던 아미성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반대편 마차산의 지봉에는 신라가 주로 활용하였던 수철성이 있다.⁹⁾ 이곳이 양주분지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전략요충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부터 남쪽으로는 다시 호리병처럼 넓어지는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분지의 남쪽은 점차 좁아지고 고도도 높아져 늘목리 일대에서는 고갯길을 이룬다. 이 늘목리 고갯길을 넘으면 양주 분지의 북단에 위치한 봉암리로 진입하게 된다. 봉암리에서는 동쪽으로 동두천을 거쳐서 양주로 가는 길과 서쪽으로 입암리를 거쳐서 적성서로와 합쳐져 양주(대모산성)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¹⁰⁾

적성동로와 적성서로가 합쳐지는 곳은 양주 은현면 일대이다, 두 길의 합류점에 태봉산보루가 있다.¹¹⁾ 그 남쪽으로 약 7km 지점에는 도락산과 불곡산의 고구려보루군이 자리잡고 있다. 도락산과 불곡산 보루군은 아차산보루군과 함께 가장 많은 고구려보루가 밀집되어 있다. 이 일대는 적성로의 전략적 요충지로 아차산 보루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다. 다시 그 남쪽에는 양주 대모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고구려군이 서울분지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방어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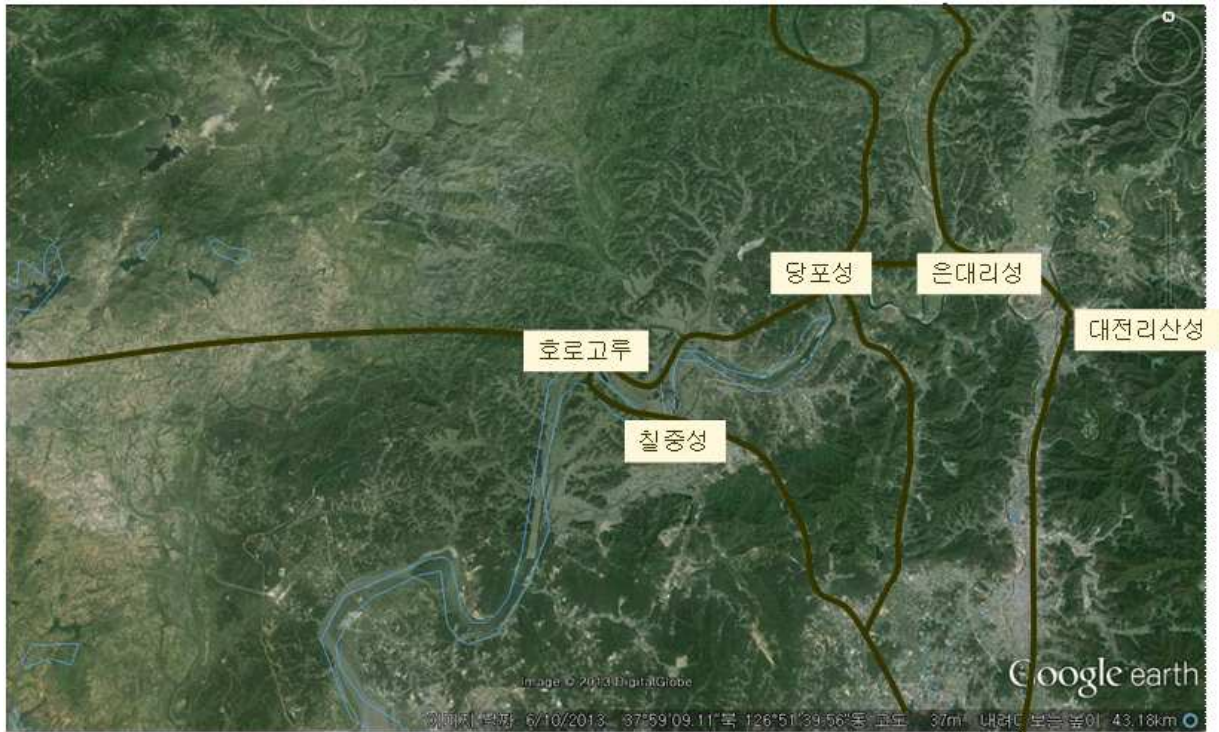
결국 덕진산성이 위치하는 지역은 임진나루를 통하여 현재의 서울과 개성 지역을 왕래할 때 요충지가 되는 곳이다. 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에는 적성(호로그루-칠중성) 일대가 이 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지로서 관방시설이 밀집된 곳이었다. 덕진산성은 우회로에 속하며 적성로에 비하여 전략적 가치는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8) 한국전쟁 때에도 영국군이 여기에서 서울로 남하하던 중공군을 저지한 적이 있다.

9) 경기도박물관, 2008, 『아미성·수철성』.

10) 한편, 당포성 일대에는 임진강 북안을 따라 광동리보루, 아미리보루 등이 있다. 이곳에서 좀 떨어진 거리지만 무등리보루, 우정리보루 등도 당포성에서 임진강을 따라 북상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당포성 일대는 강폭이 좁고 여울이 발달하여 특별한 장비 없이도 비교적 도강이 가능한 곳이다. 특히 당포성 건너 임진강 남안은 넓은 충적대지가 펼쳐져 있어서 지형적인 장애물이 적다. 백제나 신라가 고구려를 방어하기에 적당한 지역은 아니다. 이 지역에 성이 없는 것도 이러한 가설을 추정케 한다. 고구려군에게는 저항을 크게 받지 않고 도강할 수 있는 요충지인 것이다. 적성동로 역시 적성서로 못지않게 군사적인 중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1) 태봉산보루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태봉산(156m) 정상부에 위치한다. 아미성과는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다. 둘레가 143m 크지 않고 해발고도도 낮지만 독립구릉이고 주변이 저지대여서 사방을 조망하기에 편리하다. 철제 갑주편을 비롯하여 토제도침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2. 임진강 유역 간선로

III. 관방체계의 특징과 변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임진강 일대에도 소국이라 할 수 있는 정치체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록이나 고고학자료를 보더라도 이 소국들이 자체적인 방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의 방어체계를 형성하였던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임진강 일대에 관방체계라 할 수 있는 유적들이 형성되었던 것은 백제가 등장한 이후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백제는 초기부터 낙랑 및 말갈 등과 빈번히 충돌하였다. 그 과정에서 柵 또는 城 같은 방어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기기록의 신빙성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계의 대세이다. 하지만 백제의 전투기록과 성곽의 축조는 백제가 소국에서 영역국가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기년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백제의 국가적 성장을 단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주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백제가 언제 임진강 유역에 진출하였고 어떠한 형태의 관방시설을 설치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백제가 국가로서 형태를 갖추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경에는 임진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현재 이 시기에 축조되었던 산성으로 추정되는 것이 포천 고모리산성이다. 고모리산성에서는 3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에 이르는 백제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동적이지만 대체로 이 시기에 산성이 축조되어 운

영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¹²⁾ 이와 유사한 유적으로 파주 월룡산성이 있다. 월룡산성은 일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¹³⁾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축조 시기나 활용기간은 유동적이다. 다만 성벽의 축조방식이 고모리산성과 같이 자연지형을 이용하였던 점과 토축이 중심이고 수습되는 유물도 한성백제기에 해당되어 고모리산성과 유사한 시기에 활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문헌기록에 의하면 백제의 관방체계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은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근초고왕대 예성강 유역으로 북진하였고 아신왕대에는 고구려의 반격이 강력했다. 늦어도 이 시기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여 한성은 물론 그 북쪽으로 방어체계를 정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삼국사기』에는 석현 등 10성, 관미성, 수곡성 등의 백제의 성이 등장하였다. 이 밖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사이에는 임진강 유역 백제성곽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광개토왕릉비」이다. 여기에 58성 700여촌이라는 기록도 주목된다. 물론 ‘城’이 무엇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를 방어시설로서 성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동시기 『삼국사기』의 관미성은 전투 기록을 보면 산성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다른 성곽들도 고구려와 백제 양국이 공방을 펼친 기록들로¹⁴⁾ 본다면 백제가 임진강 유역과 예성강 유역 일대에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한 관방체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기도 지역에서의 고대 산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강 이북은 물론 한강 이남에서도 백제유물이 출토되는 산성은 많다. 앞에서 서술한 고모리산성, 월룡산성 등은 물론 포천 반월산성 발굴조사에서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에 이르는 백제 저장구덩이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칠중성, 양주 대모산성 등에서도 소량이지만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 한강 이남에서는 설봉산성, 설성산성을 비롯하여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산성이 있다. 백제가 한성 외곽 지대에 관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였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이 시기 임진강 이북지역에도 백제의 관방시설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북한 지역에 포함되어 직접 조사가 불가능 하지만, 문헌기록으로 보면 대체로 개성 북방의 임진북예성남정백을 따라서 백제의 산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먼저 주목되는 것이 수곡성이다. 『삼국사기』에 수곡성은 4세기 말 고구려와 백제의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수곡성의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문헌기록을

12) 고모리산성에서 수습된 백제토기는 3세기 후반에서 5세기초에 걸쳐져 있다. 경질무문토기편이 아주 소량이지만 출토되고 있어서 그 소멸단계에 해당하는 3세기 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속단하기 어렵다. 대체적으로 고모리산성 토기 중, 호·옹류는 연질이 경질보다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는 짐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3세기말부터 4세기 전반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장란형토기와 심발형토기는 구순 끝이 위로 향하면서 잘린 듯 처리되어 있는 구순처리방식이 출천 중도유적, 하남 미사리유적, 포천 성동리유적, 파주 주월리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매우 흡사하다. 고모리산성 백제토기를 주변 유적과 비교하면, 고모리산성은 늦어도 3세기 후반에 축조되었다가 5세기초에는 폐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1, 『포천 고모리산성 시굴조사보고서』).

13) 경기도박물관, 2009, 『월룡산성』.

14) 『삼국사기』 권 18 고구려본기 6 광개토왕 즉위조; 동서 권 25 백제본기 3 아신왕 2년조; 동서 권 25 백제본기 3 진사왕 2년조 등

15) 현재의 석축성이 백제의 축조이나 신라의 축조이나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해도 백제가 군사적으로 이들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검토하면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 황해도 신계현 고적조가 주목된다. 여기에는 “고을 남쪽 30리 지점에 있었던 협계폐현이 고구려의 수곡성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역은 현재 황해도 신계군 침교리 일대에 해당된다. 침교리 일대는 예성강 중류지역으로 예성강 남안에 비교적 완만한 구릉과 평지가 펼쳐진 분지 지역이다. 강을 건너서 서흥과 평산 방향으로, 강을 따라 북상하여 신계, 곡산 등지로, 동쪽으로는 토산, 이천, 연천 등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결절되는 곳이다. 적성이나 연천 등지에서 임진북예성남정맥의 고갯길인 백치를 통과하여 이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석현성도 주목된다. 진사왕 8년 고구려군이 관미성을 점령하기 전에 공취한 10여 성 중 하나이다. 역시 현재 위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체로 개성이나 토산 부근으로 비정되고 있다.¹⁶⁾ 그런데 석현성은 나당전쟁기에도 칠중성, 매초성 등과 함께 당군과의 격전지로 기록되어 있다.¹⁷⁾ 당시 신라와 당은 임진강 일대에서 항쟁하고 있었으므로 석현성도 임진강 유역에 속하였거나 예성강 유역에서 임진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도면 3. 수곡성의 위치와 교통로

그런데 석현성이 관미성을 점령하기 전에 고구려에 빼앗겼다는 정황으로 본다면 관미성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위치하였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석현성의 위치는 임진북예성남정맥의 끝자락이며 장단-개성 등을 통해서 금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예성강 하류 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16) 이병도, 을유문화사, 1977, 『국역 삼국사기』 하, 36쪽.
 진용신 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한국고지명사전』, 132쪽.
 1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7 문무왕 15년조.
 18) 석현이란 명칭으로 보아 고갯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듯하다. 그렇다면 석현성은 고구려가 개성-장단 방향으로 들어오는 길과 관련되며 수곡성 루트와 함께 한성으로 진입하는 간선교통축이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덕진산성일대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석현성과 함께 함락되었다는 나머지 9개의 성의 위치도 대부분 임진북예성남정맥이나 임진강 또는 예성강 하류 지역의 백제 성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진사왕 2년 백제는 청목령에서 팔곤성을 거쳐 서해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서해에 위치한 성곽이 관미성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청목령에서 서해에 이르는 관방은 석현성, 팔곤성 등을 포함하여 ‘석현 등 10성’과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4세기 말 경 백제는 예성강 하구 일대와 임진북예성남정맥을 방어선으로 삼아 다수의 성곽을 축조하여 고구려와 대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성강 하구 일대와 임진북예성남정맥에 성곽을 축조하였다면 성곽의 위치는 일단 고갯길이나 도강처 같은 교통의 요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촌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분지의 중심 되는 구릉지대나 강안 충적지에도 성곽이 위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육계토성과 같이 임진강의 강안지대에 축조된 성곽일 수 있다. 임진강 유역에서 백제와 관련된 방어시설의 존재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추론이 어렵다. 다만 기록으로 유추하여 본다면 백제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경 고구려에 대비하여 임진강과 그 북쪽의 임진북예성남정맥에 위치한 고갯길, 도강처, 평야지대의 구릉 등지에 성곽을 축조하여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임진강 북쪽지역에서 백제와 관련된 관방유적은 확실하게 조사되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서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고구려나 신라의 관방유적은 다수가 발견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진강 남쪽 일부 성곽에서 백제토기가 출토되었다는 보고는 있지만 이를 성곽과 관련시켜 보기에 조심스러운 점도 있다.¹⁹⁾

일단, 백제는 임진강 라인 보다 예성강 라인을 더 중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근초고왕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는 예성강 하구지역 현재의 연백평야(연안과 배천) 일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는 백제가 예성강 하구의 장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성강 하구는 한강 하구와 연결되며 한강 수로에서 서해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가 한성에서 한강 수로를 활용하여 서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예성강 하구 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백제의 격전지였던 관미성도 대체로 한강 하구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제는 고구려를 임진강 보다는 북쪽의 임진북예성남정맥 일대에서 방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⁰⁾

19) 오두산성, 월릉산성, 육계토성, 칠중성 등에서 백제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 이 중 월릉산성을 제외하면 백제의 축조와 활용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육계토성은 내부에 백제 마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나 이 마을이 토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칠중성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백제와 관련성을 살피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박물관, 2007, 『과주 육계토성』). 칠중성과 오두산성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아직 백제가 활용하였던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20) 하지만 이 시기 임진강 일대에도 백제의 관방시설이 들어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 도강처를

475년 고구려는 한성 함락 이후 백제는 임진강 유역에서 철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구려 역시 임진강 일대를 영역으로 지배한 흔적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고구려는 한성 점령 후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갖추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강을 일차적인 방어거점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아차산 일대 및 양주 분지 일대에 보루군을 축조하였다. 또한 임진강 북안을 따라서 관방시설을 배치하였다.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보루와 성곽은 하안단구 상면이나 강변 구릉지에 강줄기를 따라 방어선 또는 국경선을 이루는 횡방향의 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다. 임진강 북안 고구려보루들의 입지를 보면 모두 임진강을 도강하는 나루나 여울이 입지한 곳이다. 남쪽에서 고구려로 진입하는 도하지점을 차단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장성의 형태로 성벽이 이어지지 않지만 보루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자연히 국경 초소 및 검문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이 고구려가 설정한 당시의 남쪽 국경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고구려의 관방체계는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양주 분지와 아차산 일대를 남진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방체계(관방 유적의 분포상)는 그 서쪽에 위치한 한강하구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여진다. 한강선을 돌파당한다고 하더라도 임진강선을 고수한다면 한강하구나 경기만을 통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양주 분지의 고구려 보루와 아차산 고구려 보루는 임진강선에서 교통로를 따라 한강 유역으로 창을 찢어 넣은 형태이다. 성곽에 비교한다면 성벽(고구려의 방어선 또는 국경선)에서 전면으로 돌출한 치(아차산 고구려보루군)에 비교될 수 있다. 임진강 이남의 고구려 보루군은 고구려 남쪽 변경 지역의 방어와 남진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게 한강에서 임진강 사이에 위치한 한북정맥과 한강 북쪽 지역은 일종의 신라나 백제와 완충지대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의 핵심적인 방어선은 임진강 일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²¹⁾

임진강 일대에서 고구려와 신라가 접경을 이루는 것은 대체로 7세기 전반 경 이후로 추정된다. 신라는 603년 북한산성을 공격하였던 고구려를 격퇴하고²²⁾ 604년 南川州를 폐하고 다시 北漢山州를 설치하였다.²³⁾ 629년 현재 포천 반월산성으로 비정되는 娘臂城 전투에서 승리한 후²⁴⁾ 여세를 몰아 임진·한탄강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신라와 고구려가 칠중성 일대에서 접전을 펼쳤던 것으로 보아 임진강이 양국의 경계선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중심으로 전방의 백제 성곽을 지원하기 위한 성들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백제토기가 출토되는 관방유적들이 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 그런데 고구려의 관방체계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후반까지 서서히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방체계는 상대에 대한 전략적 선택으로 각 시기의 세력변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6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와 백제의 대립이 지속되던 시기와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대립하던 시기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백제와 신라가 각각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22) 『三國史記』 권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9년조. ‘王遣將軍高勝 攻新羅北漢山城 羅王率兵過漢水 城中鼓噪相應 勝以彼衆我寡恐不克而還.’

2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6년조.

2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51년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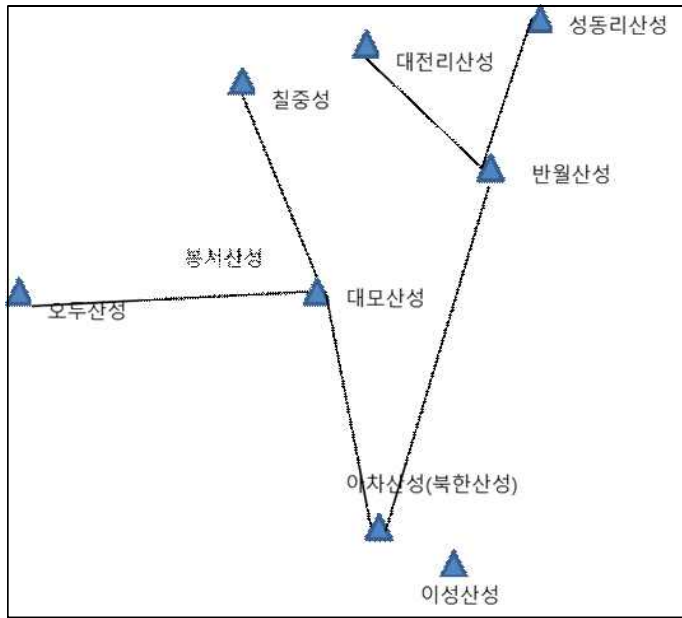


도면 4. 고구려 남진 방향

와 동시에 신라는 한강 이북 지역에 대한 산성의 축성과 수축을 통하여 신점령지에 대한 관방체계를 정비하였다. 이 당시에 신라가 축조하거나 수축한 산성으로는 양주 대모산성, 포천 반월산성, 성동리산성, 고소성, 연천 대전리산성, 수철성, 파주 칠중성, 오두산성 등이 있다. 임진강 하구에서 시작하여 임진강 남안과 한탄강 남안을 따라서 횡으로 방어선이 설정되었다. 신라 산성은 임진강 강안 보다는 그 배후에 위치한 구릉지에 축조되었다. 주로 한북정맥을 관통하는 교통로를 방어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북정맥 이남 지역은 양주분지, 포천분지 등 교통로가 모이는 지점에 산성을 수축하여 활용하였다.²⁵⁾ 크게 4개의 축을 상정할 수 있는데 파주-고양, 적성-양주, 연천-동두천, 철원-포천 등이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의 핵심축이었다.

신라의 관방체계는 주성(아차산성, 이성산성)-군성(대모산성, 반월산성)-현성 등이 체계를 이루면서 방사선 형태로 확대되었다.²⁶⁾ 각각의 성곽은 한산주와 연계되어 움직였으나 유사시에는 고립된

25) 여기에서 수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산성의 초축이 백제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백제가 축조했던 방어시설을 신라가 수축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면 5. 7세기 후반 임진강 유역 신라의 관방체계

이들은 과주, 적성, 연천, 철원 등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 서울로 통하는 각 교통로의 시작 지점에 위치하여 1차적인 방어점에 위치하여 1차적인 방어 거점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대모산성 전면에 칠중성은 임진강 유역 방어의 핵심적 요충지로 고구려의 공격이 집중되었던 곳이다. 이는 칠중성에서 설마치고개를 통과하여 불곡산과 도락산 방면으로 남하하는 것이 아차산성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중성은 현급의 산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진강 하류의 거점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칠중성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오두산성, 봉서산성 등 해안방어성 등이 있고 동쪽으로는 한탄강 유역의 수철성, 대전리 산성 등이 있는데 칠중성이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다. 고구려가 칠중성을 산발적으로 공격한 것은 신라의 임진강 전선을 동서로 분리시켜서 상호 지원을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봉서산성은 덕진산성에서 임진나루를 건너거나 한강 하구에서 임진나루 부근으로 상륙하거나 호로고루 방면으로 도강하여 서쪽으로 우회하여 고양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고구려군을 차단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 오두산성이 해안방어에 최적화되었다면 오두산성을 돌파한 고구려군을 요격하

상태에서도 상당 기간 해당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규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임진강 일대에서는 소성들과 보루가 강을 따라서 방어선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점차 점령지역이 안정화되면서 본격적인 주-군(거점성)-현(소성) 3단계의 지방조직으로 변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⁷⁾

대모산성에는 대전리산성, 칠중성, 봉서산성, 오두산성, 고봉산성 등 縣城에 비견되는 산성이나 수철성과 보루가 여기에 영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6) 현재 아차산성으로 추정되는 북한산성이 한강 유역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차산성은 북한산성의 주둔지로 한강 유역 방어의 총 사령부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북한산성을 기점으로 그 전면에는 군성에 해당되는 반월산성과 대모산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들은 각각 개성 방면과 철원 방면의 방어 거점성으로 그 전면에 위치한 현성들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형태는 북한산성을 기준으로 방사선 형태의 중심방어체계가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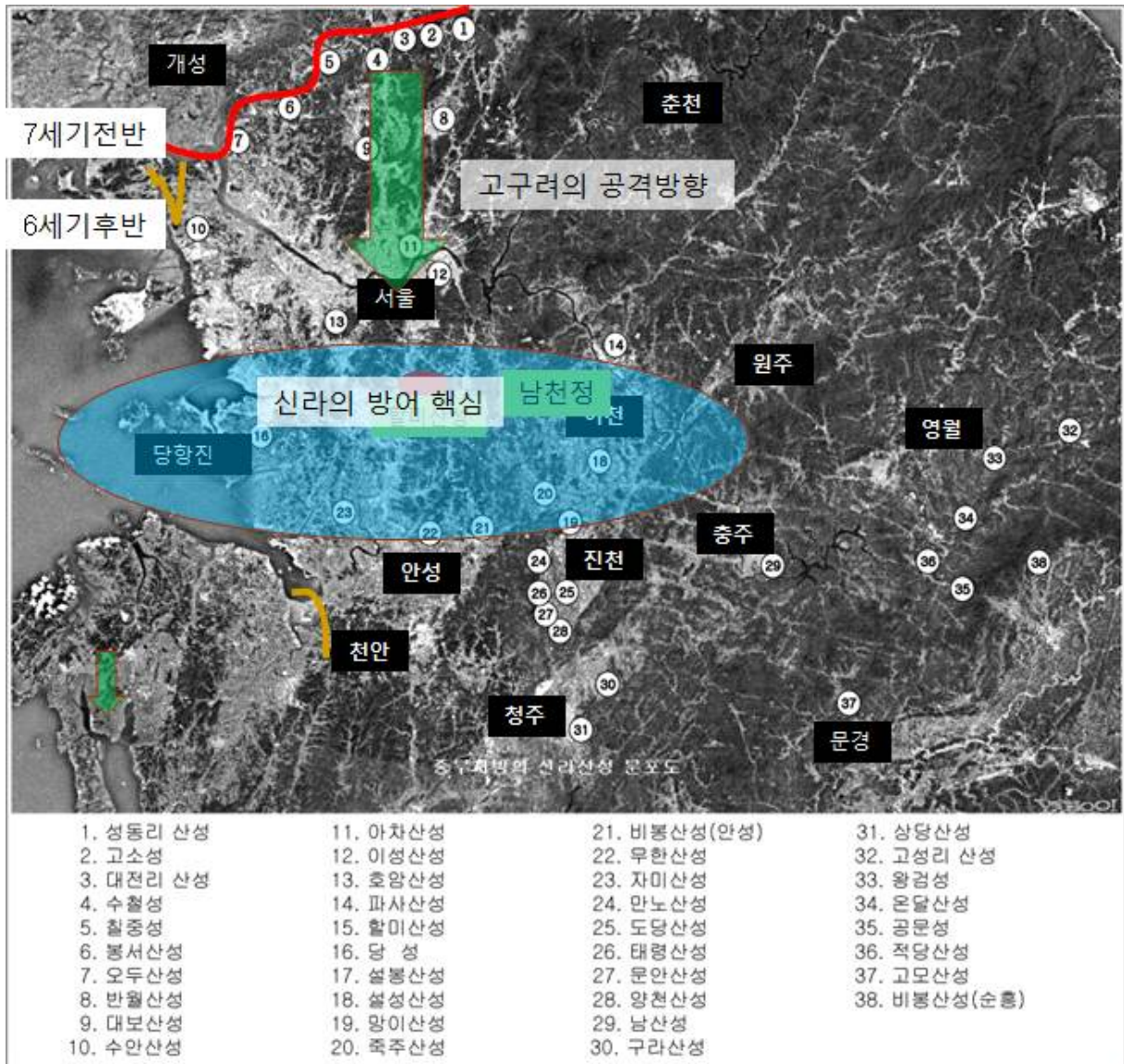
27) 신라의 주군제는 주-군-촌의 편제에서 주-군-현의 편제로 발전하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이 6세기 중엽이후 신영역의 방어와 전쟁수행을 위해서 행정성-촌제와 병존하여 실시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김창식, 「신라현제의 성립과 기능」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세미나 발표문』, 2007.)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현은 접경 지대의 방어와 영토 확대를 위해 촌의 병력 동원과 군사 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세기 후반 이후 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에서의 군현의 설치와 성곽의 축조 등 문헌과 현제 조사된 고고학 자료를 고려하면 주성-현성-촌의 형태와 주성-군성-현성-촌의 형태가 공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자가 비교적 전방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동시기에 그 후방의 행정적 지배가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후자의 형태가 대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는데 봉서산성이 적절한 위치가 된다. 봉서산성 배후에는 고양 고봉산성이 위치하는데 고봉산성은 고양에서 양주나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에 해당된다.

반월산성은 포천-철원방면의 전략로를 방어하기 위한 거점성이다. 장단방면에서 연천 대전리 산성을 지나 양주분지로 진입하는 교통로를 동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한다. 또한 철원에서 포천을 거쳐서 아차산 동쪽으로 진입하거나 의정부 방면을 거쳐서 서울 동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유리한 곳이다. 반월산성 북쪽에도 한탄강 남쪽 지역을 따라서 고소성, 주원리산성, 성동리산성에 이르는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또한 그 북쪽으로 포천과 철원의 경계가 되는 관인면 냉정리에 냉정리산성이 있다. 이는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신라 산성이다. 반월산성이 속한 현급 산성은 성동리산성이었다. 나머지 성곽들은 일종의 보루에 속하는 소성으로 성동리산성의 위성에 속한다. 성동리산성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냉정리산성이 있고 서쪽으로는 고소성, 주원리산성 등이 횡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냉정리산성은 철원방향을 감제하기 위한 것이고 고소성과 주원리산성은 연천에서 전곡을 거쳐 포천으로 우회하는 교통로와 철원에서 성동리산성을 우회하여 포천으로 가는 것을 방어하고 감제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7세기 전반경에 신라는 임진강과 한탄강 남안을 따라서 동서방향으로 연결되는 국경지대를 설정하고 그 통로에 위치한 구릉을 중심으로 산성을 배치하여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관방체계를 완성하였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북한산성에서 임진강 유역의 신라 산성까지 교통로를 따라서 부채살 형태의 중심방어선도 구축하였다. 즉, 1단계의 방어선은 임진강과 한탄강 국경지대를 설정하고 그 통로에 위치한 구릉을 중심으로 산성을 배치하여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관방체계를 완성하였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북한산성에서 임진강 유역의 신라 산성까지 교통로를 따라서 부채살 형태의 중심방어선도 구축하였다. 즉, 1단계의 방어선은 임진강과 한탄강 남안의 주요 도강처를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현성이나 보루들이었다. 이것들은 일차적으로 임진강 유역에서는 칠중성으로 모이지고 한탄강 유역에서는 성동리산성으로 모아졌다. 이들은 각각 중성현(칠중성)과 양골현(성동리산성)의 현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단계의 방어선은 군성급에 해당되는 대모산성(내소군)과 반월산성(마홀군)이다. 대모산성은 칠중성을 위성으로 삼아 양주분지와 임진강 하류 지역 방어의 거점성이었다. 반월산성은 성동리산성을 위성으로 삼아 포천분지 및 한탄강 유역 방어의 거점성이었다. 3단계는 북한산성이나 이성산성에 해당되며 한강과 임진강 유역 방어체계의 정점이었다. 이에 대한 지원은 국원소경이 담당하였으며 국원소경 역시 한강 이남의 거점성을 위성을 거느리고 있어 독립적인 방어체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임진강 일대 관방체계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그 위력 발휘하여 7세기 전반 이후 고구려가 한강 유역으로 재진출하지는 못하였다. 그 만큼 임진강 일대 신라 관방이 치밀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나당전쟁기에 들어서도 임진강은 여전히 신라의 방어 전면에 해당되었다.



도면 6.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과 방어 전략

IV. 덕진산성의 위치와 활용

임진강은 한강의 지류에 속하며 넓은 의미에서 한강 유역에 포함된다. 한강 유역은 한반도의 X자형 교통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사방으로 연결되는 개방성이 높은 지역이다. 한강 유역 일대가 한반도 육상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 교통에 있어서도 한강하구는 서해안의 연안해로의 거점이었다. 서해는 일종의 지중해로 중국대륙과 한반도 사이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왔다. 서해의 연안해로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대동강하구, 한강하구, 금강하구, 영산강 하구 등이다. 이 지역은 배후에 비옥한 농경지대가 있고 내륙수로가 연결되며 기항지로서의 조건도 좋아서 해상세력이 성장하기 유리하다. 이 중에서도 한강 하구 일대는 만이 발달하고

한강, 예성강, 임진강 등 하구가 밀집되고 연안지대에 크고 작은 섬들이 연육교처럼 이어지면서 해양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연안해로는 물론이고 서해를 가로질러 중국대륙으로 직접 이어지는 횡단해로가 가장 가깝게 연결되는 곳이다.

한강 유역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해상 중심지가 대동강 유역이다. 대동강 하구도 대동강과 재령강 등이 흘러들어 오고 배후에 넓은 평야 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해상세력이 성장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육로와 해로를 통하여 대륙과 직접 연결되며 대륙의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거점지역이기도 했다. 중국이나 몽골 고원 등 초원지역의 문화가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대동강 유역은 고조선에서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고대문화의 보고였다. 통일신라시대 이전까지 대동강 유역의 경제와 문화 역량이 한반도 일대의 역사 발전을 선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진강 유역은 바로 대동강과 한강 유역에 형성되었던 고대 문화권 사이에 접이지대가 된다. 한강 유역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한 백제가 대동강 유역을 지나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접이지대를 넘어서야 하였다. 백제의 대외진출이 보다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대동강 유역을 향하여 먼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고조선 이래 한반도의 선진문화의 중심 지역을 차지해야 국가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역시 처음에는 압록강 중류지역에서 시작되었으나 전성기의 국가적 발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대동강 유역으로 남진하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각각 자국의 발전을 위하여 대외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서로 접촉하고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전반 이후로 추정된다. 그 중간에 위치한 낙랑과 대방이 313년에 멸망하고 중심 세력이 약화되었던 시기이다. 이때부터 두 나라는 대동강 유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는 상호 각축을 펼치게 되었다. 4세기 후반 고구려가 평양 일대를 차지하면서 황해도 연안과 대동강 하구로 진출하려던 백제와 충돌하게 된다.²⁸⁾ 이 시기부터 양국 사이에는 예성강 하구 일대를 차지하기 위한 대결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강 하구 일대 관미성은 백제와 고구려의 세력이 교차하는 국방상의 요충지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4세기 후반의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은 한강 하구 일대를 중심으로 지루하게 전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초기에는 백제가 우세하였지만²⁹⁾ 4세기 말 광개토왕의 등장 이후 백제가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백제 왕도가 침탈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양국이 치열한 공방전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백제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예성강선을 돌파하여 임진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광개토왕대 고구려의 임진강 유역 진출은 결과적으로는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하기 위한 전단계의 군사작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강유역

28)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황해도 황주 출토 백제토기는 이 시기 백제가 일시적이거나 재령평야 일대에 진출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영일, 2008, 「한성백제의 교통로 상실과 웅진천도」, 『향토서울』 72, 서울시사편찬위원회, 48쪽.

29) 369년 백제는 지금의 황해도 배천 지역에 진출한 고구려군을 공격하여 격퇴시키고 예성강 상류 지역(황해도 신계, 곡산)까지 진출하여 수곡성을 축조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해서정맥을 돌파하여 서흥, 황주 일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도면 7. 고구려 남경의 변화(화살표는 고구려군의 공격방향)

을 차지하고자 하는 열망은 적었다. 광개토왕은 점령한 지역 대부분을 돌려주고 철수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백제가 반격함으로써 전선을 임진강 일대에서 고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이 한성을 함락시키고 아신왕의 항복을 받고도 철수한 것은 고구려의 백제 공격이 한강 유역의 영유에 목적을 두지 않았던 사정을 보여 준다. 광개토왕은 백제가 대륙과 연결되어 고구려의 배후에 위협 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 유역 보다는 한강 하구일대를 봉쇄하는 것만으로 백제의 대외진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덕진산성이 축조되어 활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단 백제와 고구려가 각축하였던 관미성의 위치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관미성의 위치로는 과주 오두산성, 강화 교동도 등이 거론되고 북한학계에서는 임진강 하구 북안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 중 어디가 되던 덕진산성 일대는 관미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역이다. 덕진산성 일대는 임진강 북안에서 한강 하구로 나갈 수 있는 내륙 수로의 기항지가 된다. 오두산성, 교동도, 예성강 하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고구려나 백제가 한강 하구를 놓고 쟁패하는 과정에서 덕진산성이 군사기지로 주목될 여지는 충분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구나 유물이 덕진산성 발굴조사에서 규명되지 않아서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

고구려의 남진은 5세기 후반 장수왕대에 이르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장수왕은 광개토왕과는 다르게 한강 하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는 475년 성을 함락시킨 후 광개토왕 때와는 달리 한성을 불타우고 백제의 귀족과 주민들을 잡

아서 고구려 내지로 이주시켰다. 이는 한강 하류 지역의 백제 중심지를 폐허화시키고자 하였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한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 일대를 영역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한성 일대를 영역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장수왕의 전후처리 방식은 한성의 초토화 작전이었다. 백제도 남은 한강 유역의 주민을 남쪽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이에 대응하였다. 장수왕이 한성과 한강 유역 일대를 영역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토화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고구려 주민을 이주시키고 점령지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연속적으로 실시했어야 한다. 하지만 장수왕은 백제를 웅진으로 내쫓는 선에서 만족하였던 것 같다.

이 같이 475년 이후 전후 사정상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영역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킨 의도는 무엇일까? 고구려의 국력을 소비하면서 한강 유역을 공략하였던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영토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목적은 결국 한강 하구의 해상권을 백제로부터 탈취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고구려가 황해도 남부 연안지대를 차지하는 것만으로 경기만의 해상권을 장악하기는 어렵다.³⁰⁾ 한강 하구와 더 남쪽으로 아산만 일대까지 진출해야 경기만의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경기만은 일종의 내해로 황해도 장산곶에서 태안반도의 안흥량까지 내륙으로 깊숙이 만곡되어 있다. 아산만에서 장산곶까지 어느 지역에서든 바다로 접근할 수 있다. 고구려에 입장에서는 1단계는 예성강, 2단계는 임진강, 3단계는 한강, 4단계는 아산만과 안성천 일대까지 진출해야 경기만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2단계에 해당되는 임진강 유역에 진출하게 되면 최소한 경기만의 절반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진강 하구 일대는 고구려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백제에 있어서 임진강 유역은 북방에서 백제의 중심지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된다. 임진강 유역 방어선은 왕경 한성의 방어체계에 있어서 외곽부에 해당된다. 더구나 한강수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강하구와 강화도 일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예성강 하구와 해주만 일대까지 장악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를 대동강 하구에 묶어두고 경기만에서 장산곶을 거쳐서 서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백제에게는 한강 하구를 활용하는 것은 대외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배후가 되는 예성강 하구의 개성과 연안 일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해서정맥(멸악산맥) 이남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였을 것이다. 369년 고구려와 치양(황해도 배천) 일대를 중심으로 전투를 펼쳤던 것이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30) 이러한 사정은 현재 남북간의 NLL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황해도 남부해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화도와 한강 하구 일대에서 연평도로 이어지는 연안해로를 장악해야 한다.



도면 8. 한강수로와 백제·신라의 방어선

배천 일대는 예성강 하구 서쪽의 연백평야 지역으로 교동도와 강화도를 마주하고 있고 해주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서해 연안해로의 요충지이다. 고구려군의 치양 진출은 백제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었다.

예성강 하구 지역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백제가 사수해야 할 지역은 예성강 남안의 임진 북예성남정맥 일대이다. 그 중에서도 예성강 하구와 연결된 개성과 그 북방의 금천 지역이 가장 요충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진사왕 2년 청목령에서 팔곤성을 거쳐 대해까지 방어선을 구축했다는 지역이 바로 이 일대로 추정된다. 임진북예성남정맥 북쪽은 예성강과 산맥이 거의 평행을 이루며 이 중으로 천연적인 방어선이 형성되어 있다. 예성강을 도강하여 임진북예성남정맥의 험한 고갯길을 넘어야 개성으로 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기가 유리하였을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은 임진강과 한북정맥의 산악지대이다. 하지만 이 일대는 한성의 외곽지대이다. 고구려군이 여기까지 진출하면 한성은 왕도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제는 임진강 유역의 방어선 보다 예성강 유역의 방어선을 고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쳤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 한강 유역은 왕경 중심부가 아니라 군사 거점일 뿐이다. 경기만으로 나가는 항구를 당항진에 두었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 대한 중요성은 백제보다 약하였다. 임진강 유역과 한강하구는 당항진의 배후가 되는 한강 이남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어거점이었다. 당항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강을 방어선으로 설정하여도 가능하다. 다만 보다 더 서해 연안해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강 유역 보다 임진강 유역과 강화도 일대까지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강화도 이남 지역에서 고구려 수군이 활동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제와 같이 예성강 유역까지 진출하는 것은 그 노력에 비하여 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백제와 다르게 예성강 보다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를 정비하는데 공을 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에 임진강에서 한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현성급의 작은 산성들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부채살 형태의 방어 체계를 구성하고 고구려의 주력을 임진강선에서 저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이 신라의 입장에서 임진강 방어선은 당항진에서 연평도에 이르는 연안해로를 비교적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는 신라가 경기만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고구려의 이해와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당항진을 차지하지 못할 바에는 경기만의 해상권을 양분할 수밖에 없고 그 구체적인 전략 요충지는 임진강 하구가 된다. 따라서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임진강 방어선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백제 관계와 고구려-신라 관계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임진강 일대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방시설이 서로 대치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진강 하구 지역에 위치한 덕진산성과 주변 일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일단 임진강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신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덕진산성은 신라 보다는 고구려에게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입장에서 임진강 북안으로 교두보를 확보할 필요는 크지 않다. 오두산성, 봉서산성 등 임진강 남안 구릉지에 군사 거점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신라의 임진강 이북 진출을 막고 신라의 한강 유역 방어거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덕진산성의 활용이 필요하다. 고구려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적성지역(칠중성) 일대와 임진나루에서 고양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임진나루 일대는 봉서산성, 오두산성 등을 공략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가 된다. 바로 고구려가 임진강과 한강 하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셈이다. 덕진산성 동쪽에 위치한 동파리 보루 역시 이 일대를 고구려가 군사적 차원에서 중요시하였던 사정을 보여준다. 덕진산성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발굴조사가 진행되어야 명확해 질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정황이나 신라 산성의 분포를 본다면 현재 덕진산성에서 출토되는 고구려 유구와 유물은 적어도 오두산성, 봉서산성, 고양 고봉산성 등 파주와 고양 일대의 신라 산성에 대응하여 축조되어 활용되었던 사정을 짐작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덕진산성이 신라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아지게 된 것은 666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로 볼 수 있다. 특히 나당전쟁기가 주목된다. 신라는 나당전쟁 초기 고구려 부흥군과 연합하여 황해도 일대까지 신라군이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덕진산성도 신라에 의하여 수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을 도강하여 개성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임진나루 북쪽에 위치한 덕진산성을 교두보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라군이 석문전투에서 당군과 정면대결하다 패퇴한 이후 신라군은 예성강 이남까지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성강 이남 임진강 북쪽 일대를 방어거점으로 삼아 당군과 대적하였다. 신라군과 당군의 교전은 임진강 유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675년 당군은 칠중성과 매초성 방향으로 남하하여 양주 방면으로 진출하려

고 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수군을 동원하여 오두산성으로 추정되는 천성 방향으로 공격하여 왔다. 675년 당 수군은 먼저 한강하구로 진입하여 천성, 왕봉하(한강하구) 일대에서 신라군과 대결하였다. 이 때 오두산성, 봉서산성, 고봉산성 등 한강 및 임진강 하구 일대에 주둔한 신라군을 중심으로 당군의 공격을 격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칠중성과 매초성 일대로 진입하는 당의 육군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대모산성, 반월산성과 그 아래 소속된 현급 산성에서 발진한 신라군이 방어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당전쟁은 675년 당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일단 종식되었다. 하지만 신라는 여전히 당의 재침에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진강 이남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북상하여 예성강 유역까지 방어선을 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덕진산성, 호로그루 등 임진강 북안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은 7세기 후반 이후 신라에 의하여 재수축되면서 임진강 방어선의 거점성곽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그 이북 지역까지 조사가 미비하여 당시 신라가 과연 임진북예성남정맥 일대 과거 백제의 대고구려 방어선까지 북상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덕진산성이나 호로그루의 발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7세기 후반이후 신라토기가 증가하고 있는 사정으로 보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덕진산성은 이 시기를 전후로 성벽이 대대적으로 수축되면서 장단 지역의 거점산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군의 재침이 있을 경우 한강 하구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임진강 남안의 오두산성과 같이 당군의 상륙을 저지하고 임진나루를 통하여 임진강을 도강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대적인 수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 유역으로 통하는 두 교통로 가운데 호로그루는 양주 방면, 덕진산성은 파주-고양 방면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V. 맺는말

임진강 유역은 강 양안을 따라서 고대성곽이 밀집되어 있어서 삼국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안으로는 고구려와 관련된 방어시설이 남안으로는 신라와 관련된 방어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었다. 하지만 임진강 유역의 관방체계가 가지는 역사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지역은 현재 남북분단으로 대부분 군사지역으로 민간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임진강 유역에서 고대의 관방시설이 조사되고 그 역사적 성격이 조금씩 이나마 밝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 군사지역에 대한 광역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휴전선 일대와 그 이북의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삼국사기』에 4~5세기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기록에 등장하는 많은 성곽의 위치가 이 지역에 해당된다. 그나마 임진강 주변에서 고구려 관방유적이 다수 조사됨으로써 임진강 일대 고대 관방체계에 대한 이해는 크게 증진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덕진산성, 호로고루, 당포성 등 일부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연구 성과도 축적되었다. 고구려의 방어체계가 임진강을 따라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서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세력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가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많이 남아 있다. 임진강 북쪽의 고구려나 백제의 관방 유적이 지금까지 알려진 임진강 일대의 관방유적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만으로 그 전모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에 대한 연구는 평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곽의 배치나 입지 등을 통한 상호관련성을 살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발굴 조사된 관방 유적에 대한 성격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시간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공간적인 활용문제가 규명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개별 관방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진척되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연구를 위한 가설 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가 형성되고 활용되었던 배경을 지리적인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덕진산성의 축성법 검토

■ 심광주(서울시 문화재위원) ■

德津山城 築城法 檢討

심광주(서울시 문화재위원)

- I. 머리말
- II. 德津山城의 築城法
- III. 德津山城의 築城主體와 築城時期
- IV. 맺음말

I. 머리말

덕진산성은 임진강 北岸의 야트막한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덕진산성 바로 앞에는 초평도가 있고, 초평도 좌우에는 개성으로 가는 관문을 지키던 임진진과 장산진이 있었다. 따라서 덕진산성이 있는 곳은 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임진강을 건너는 주요한 남-북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戰略的 要衝地에 해당한다.

덕진산성은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¹⁾, 이후 1999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의한 조사에서 고구려 성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지표조사 당시 지역 주민들이 경작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중장비로 산성의 동북쪽 일부를 훼손하였는데, 절개부의 단면에서 고구려 토기편과 탄화미가 수습되었다.

고구려 유물은 강에서 이격된 북쪽 봉우리의 정상부에서만 확인되므로 조사단은 고구려 보루는 덕진산성의 북쪽 봉우리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의 기와편과 성벽의 축성기법으로 보아 두 개의 봉우리를 아우르는 확장된 石築城壁은 삼국통일 이후 임진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한 신라가 쌓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석축성벽에서 동쪽으로 확장하여 강변까지 연결시킨 外城은 축성기록이 남아 있는 조선 광해군대에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²⁾

덕진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2004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서북쪽의 성벽과 치, 성내부의 집수시설 유구 일부를 확인하였다. 조사단은 가공된 성돌로 쌓은 석축성벽을 고구려축성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최종 단계의 성벽을 고구려성벽으로 추정하였다.³⁾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2) 한양대학교박물관·문화인류학과, 1999,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15쪽.

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04, 「과주 덕진산성 현장설명회 자료」

이후 2012년부터 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동북쪽 진입로 부분과, 북서치 남서치 및 남벽구간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남쪽 봉우리 정상부에서 덕진단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덕진산성 성벽은 내부에 토축 구조물-체성벽(일부구간은 2중벽)-보축성벽(일부구간은 2-3중의 보축성벽)-개축성벽이 확인되었다.

중부고고학연구소 조사단은 최종단계의 성벽을 고구려 성벽이라고 한 화랑대연구소의 견해와 달리 성벽 내부의 토축구조물을 고구려성으로 보았으며, 고구려 토성을 이용하여 신라가 석축으로 개축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⁴⁾ 이처럼 조사기관에 따라 축조주체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은 아직 조사구간이 협소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구려의 축성법에 대한 각 조사단의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곽은 건물이나 고분, 제방 등 다른 유적들에 비하여 技術 依存度가 높은 構造物이라고 할 수 있다. 축성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과 측량, 축성재료 선택, 축성기초 조성, 체성벽과 여장 쌓기, 집수 및 배수시설 설치, 성문과 성내 건축물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과 많은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공정은 개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며, 각 공정이 결합되어 완성된 최종단계의 성곽에는 축성집단의 기술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상호 독자적인 축성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축성법을 통하여 그들의 독자적인 원천기술과 기술의 융합 및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음을 계속 주장해 왔다.⁵⁾

축성 주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철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지만, 실상은 발굴조사를 하더라도 성곽의 축성주체를 정확히 밝혀내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성곽은 기본적으로 행정적·군사적으로 입지가 양호한 곳에 쌓기 때문에 시대를 달리하며 수개축하거나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일지역에 목책→토루→석축 등 축성방법을 달리하는 구조물이 계속 구축되거나 수차에 걸쳐 보축이나 수축이 이루어진 경우 여러 시기의 유물이 출토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축성 기법에 반영되어 있는 축성집단의 技術的 屬性에 대한 이해 없이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추론으로 축성주체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⁶⁾

지금까지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축성주체별 축성법의 차이에 대한 많은 내용이 밝혀졌다. 고구려 성곽만 해도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는 대략 40여개소가 확인되었다. 그 중 시굴이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월평동유적, 남성골산성, 흥련봉1·2보루, 용마산2보루, 아차산3·4보루, 시루봉보루, 천보산2보루,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전곡리토성, 무등리2보루 등 14개소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4) 중부고고학연구소, 2012, 「과주 덕진산성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중부고고학연구소, 2013, 「덕진산성 2차 학술발굴조사 약보고서」.

中部考古學研究所, 2014,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查』.

5) 심광주, 충북대학교박물관,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기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3, 「계양산성의 축조방법과 축성시기」, 『인천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고구려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6) 심광주, 한림대학교박물관, 2012, 「양주 대모산성의 축조방법과 축성시기」, 『양주대모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전문가 학술회의 자료집』, 43~44쪽.

백제성곽이나 신라성곽은 고구려성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성이 발굴되어 축성법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이미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의 성곽에 대한 이러한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덕진산성의 축성기법을 검토해 봄으로써 덕진산성의 축조주체와 축성시기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자 한다.

II. 德津山城의 築城法에 대한 檢討

1. 立地와 規模

성곽의 立地와 規模는 築城 方法과 築城 時期 및 城郭의 築城 目的을 알게 해준다. 덕진산성이 위치하는 곳은 임진강이 曲流하며 서해로 합류되기 직전 강폭이 넓어지며 상류로부터 퇴적물을 실어 날라 형성한 草坪島의 북쪽 임진강에 접해 있는 야트막한 구릉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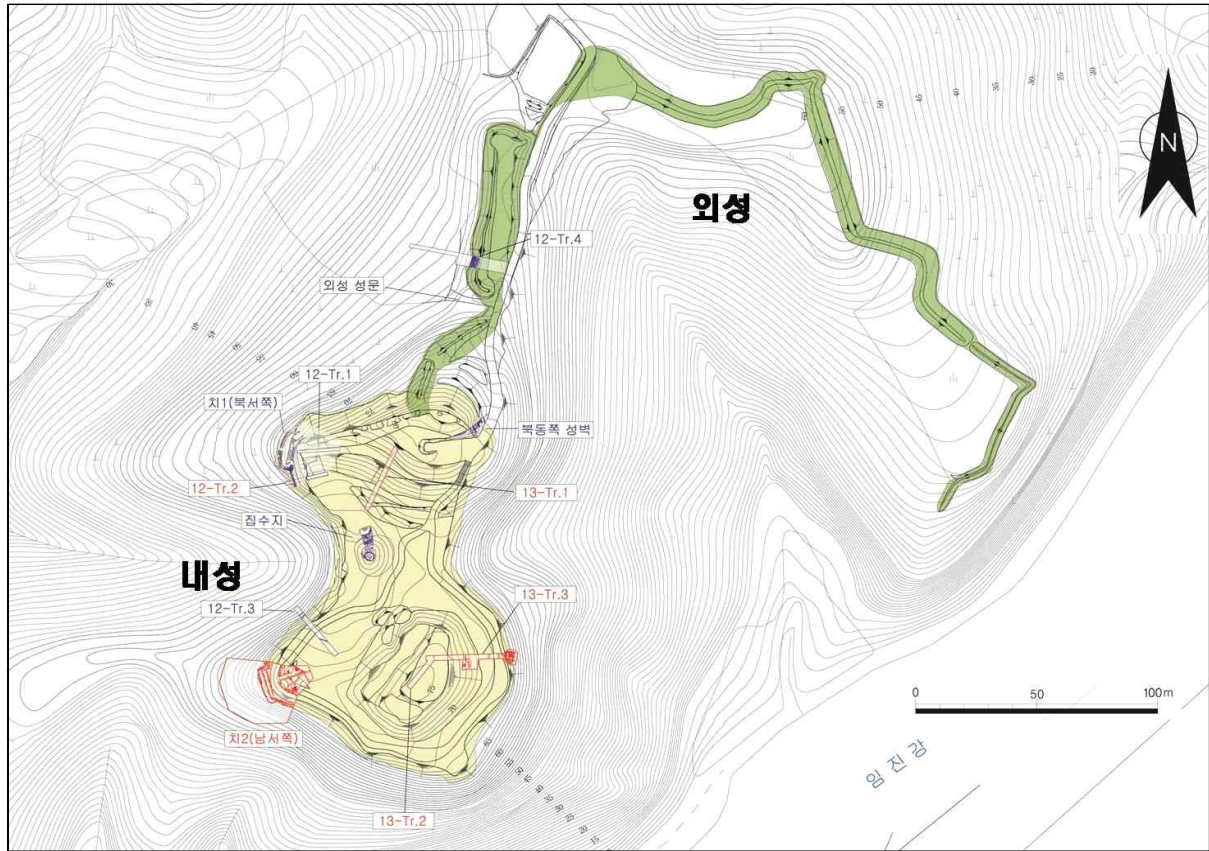
초평도는 고대부터 임진강을 건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초평도 남쪽 임진강의 남안에 설치되었던 長山鎭과 臨津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도 이곳이 파주-장단-개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을 말해준다. 따라서 덕진산성의 1차적인 축성 목적은 임진강을 도하하는 길목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진강의 북안에 위치함으로써,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이었던 시점에는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방어하는 國境城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이후 통일신라의 국경이 예성강을 건너 대동강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때에는 덕진산성은 평양에서 한강유역에 이르는 교통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據點城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진산성은 임진강에 접해 있으며 돌출된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구릉상에 구축되었다. 기반암은 중생대에 형성된 적성층이다. 적성층은 퇴적암으로서 압축강도가 약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하지만 가공하기 어려워 정연하게 성벽을 쌓기에는 부적당하다. 적성층의 상부에는 신생대에 화산 폭발로 형성된 玄武巖이 피복되어 있으며, 현무암의 柱狀節理 현상에 의하여 침식된 사면은 40°~45°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덕진산성은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용이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덕진산성 안에는 해발 75m와 해발 82m의 돌출된 두 봉우리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두 봉우리의 정상부 사이의 거리는 200m 정도이다. 성벽은 두 봉우리를 감싸 안고 그 사이의 谷間部를 통과 하도록 쌓아 성곽의 평면 형태는 땅콩껍질 모양을 하고 있다.

성벽 基底部의 통과선은 남쪽성벽이 해발 65m, 북쪽성벽은 해발 70m 지점이며, 남북 모두 정상부에서 10m 정도 아래쪽 능선 사면을 감싸고 있다. 지형도를 보면 성벽 상면을 따라가며 그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고, 그 아래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축성으로 인하여 자연경사면이 인위적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도면 1. 덕진산성 위치도(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과주 덕진산성』 25쪽 도면)

덕진산성의 이러한 입지적인 여건은 축성재료와 축성방법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말해 준다. 평탄한 구릉의 정상부나 완경사 사면이나 능선을 따라가면서 성을 쌓는다면 木柵이나 土城의 축조도 가능하겠지만, 덕진산성처럼 급경사 사면에 목책이나 토성을 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청원 남성골산성⁷⁾이나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안성 도기동유적⁸⁾에서 확인된 木柵은 능선상의 평탄면과 경사면을 이용하여 2중의 목책열을 조성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는 적의 시야로부터 성 내부를 보호하고, 2열의 목책열 상부를 연결하여 석축성처럼 목책 상부에서 적을 방어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⁹⁾ 그러나 덕진산성의 지형여건은 급경사 사면으로서 목책을 구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土城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목책이나 석성에 비하여 넓은 築城基底部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토성 역시 평탄한 구릉 정상부를 돌아가며 구축되거나 완경사 사면이나 능선의 정상부를 활용하여

7) 차용걸 외, 2004,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충북대학교박물관.

차용걸 외, 2008,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2006년도 추가발굴조사』, 중원문화재연구소.

8)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4, 「안성 도기동 436-1번지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기남문화재연구원, 2015, 「안성 도기동 산51-5번지 일원 창고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집」

9) 심광주, 2014, 「고구려 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33쪽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토성은 아무리 견고하게 관측하더라도 安息角의 범위를 넘어서는 급경사를 유지할 수 없다. 덕진산성 일대의 자연경사면은 토성 외사면의 안식각보다 이미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곳에 성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자연경사면보다 경사각을 높여 방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축성 방법은 돌로 쌓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덕진산성에 구축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내성 성곽은 초축시기부터 석축성이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성곽의 규모를 살펴보자. 석축성의 전체 둘레는 600m 정도이다. 이 규모는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들이 대체로 100m~300m 정도의 보루들이며, 연천 호로고루가 401m, 연천 무등리보루가 325m 정도임을 감안할 때 남한의 고구려성으로서는 비교적 대규모에 속한다. 반면 신라 郡縣城의 규모가 대체로 1km 내외임을 고려하면¹⁰⁾ 덕진산성은 신라성으로서는 군현성 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성에 해당한다.

더구나 덕진산성은 입지 여건상 성내에 두 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어 성 내부의 공간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성내에 건물이나 집수시설 등 각종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남북쪽 소봉 정상부와 완경사면, 그리고 두 봉우리 사이의 곡간부에서 이어지는 평탄면으로 최대한으로 잡더라도 4,20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공간도 특수한 축성방법에 의한 공간 확장을 통하여 확보된 것이라는 것이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2. 土築部의 性格

2012년과 2013년도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서쪽성벽 2개소에 대한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토축부와 석축성벽 단면이 노출되었다. 서북쪽에서 확인된 단면을 보면, 자연경사를 이루는 암반면 상면까지 체토를 하고, 암반을 굴광하여 2단의 층단을 두어 석축체성벽과 보축성벽의 기저면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암반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굴광하여 영정주를 세우고 영정주를 기준으로 수직토층선이 구분되는 중심토루와 내피토루가 확인되고 있다.

중심토루의 너비는 3.8m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평관축이 아니라 바닥 경사면을 따라 일정한 두께로 각각의 층위가 형성되어 있다. 내피토루가 확인되는 성내부쪽과 달리 성외부 쪽으로는 중심토루 경계면을 따라 석축부가 조성되었는데 잔존하는 중심토루의 경사각은 북서쪽 성벽에서는 60°~70°, 동북쪽 단면에서는 80°정도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남쪽과 북쪽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곡간부를 지나는 곳에서는 토축부의 깊이가 깊어지고 안쪽으로 이어지는 폭도 넓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4차 조사시 집수시설 구간에서 확인된 토층양상을 보면, 곡간부는 높이 4m 이상, 너비 10m 이상으로 넓고 깊게 성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조사단에서는 석축부보다 먼저 구축된 것이 분명한 토축부를 土城의 유구로 보았고, 이 토성을

10) 심광주, 2003, 「신라성곽」, 『京畿道の 城郭』, 경기문화재단, 224쪽.

고구려에 의하여 초축된 성벽으로 추정하였다.¹¹⁾ 그런데 노출된 단면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보면 이 토축부를 과연 별개의 성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덕진산성의 축성기저부의 입지적인 여건상, 축성 기저부의 경사가 급하고 성 바깥쪽으로 토축부의 安息角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토성을 구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내부에서 확인되는 토축부는 토성이 아니라 석축부가 결합되어 석축성벽을 쌓는 土芯石築工法에 의한 구조물로 추정하게 되었다. 내부의 토축부가 토성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벽 단면에서 확인되는 중심 版築部와 내부의 補強土 만으로는 토성의 기능을 할 수 없다. 12-1트렌치에서 보면 바닥에서 주혈이 확인되고 토축부 조성을 위한 영정주의 흔적이 토층 단면에서 확인되며, 수평관측에 가까운 중심부 토축의 너비는 대략 4m 정도 유지하고 있다. 내벽쪽은 중심토축에 덧붙여서 경사가 완만하게 내벽부를 보강하였는데 비하여, 외벽부는 경사 60°~7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벽부 역시 외피를 보강하지 않으면 物理的으로 中心土壘가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치2의 내벽구간의 토층 단면에서도 확인된다. 치2구간은 해발 75m인 남쪽 봉우리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상의 완경사 지역으로서 바닥면은 부식암반층을 따라 완경사를 이루도록 정지하고 내면에 직경 1m 이상의 주혈을 파고 직경 20cm 이상의 영정주를 세웠던 흔적이 확인된다. 영정주 사이에서는 너비 4m 정도의 경사를 이루는 관축토층이 확인되고, 외면은 70° 정도의 경사를 이루는 가운데 석축 체성벽의 뒤채움돌과 맞물리고 있다.



도면 2. 덕진산성 서벽 단면 (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과주 덕진산성』 79쪽 도면)

11) 中部考古學研究所, 2014,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304쪽.

조사단에서는 외피토루 부분을 切土하고 석축으로 개축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호로고루나 당포성, 이성산성 2차 성벽 등의 예를 보면 토성이나 기존 성벽에 덧붙여서 성벽을 구축할 때 이처럼 토축부를 절토하지 않고 붕괴된 사면이나 성벽 보강토 위에 그대로 성벽을 쌓아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조사단에서는 석축체성벽 외부의 보강토를 기존 토성의 판축구간 일부로 추정하고 있지만, 체성벽 보강토 단면상에 체성벽 기저부를 놓기 위한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고, 보강토가 체성벽에 맞물려 있는 양상임을 고려하면, 체성벽 외부의 보강토는 체성벽 축조 이후에 덧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벽의 기저부를 보면 토축부와 석축부가 일련의 공정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2-2 트렌치 바닥면을 보면 풍화된 암반면을 정지하여 성벽 기저부를 조성하고 있는데, 토축부로 조성할 구간과 석축 조성부 및 보축성벽 구간을 단차를 주어서 구분하고 있다. 토축부는 거의 평탄하게 정지하였으며 토축부에서 약 20cm 깊이로 단이지게 너비 2m 정도의 범위를 수평으로 정지하고 이곳에 체성벽과 뒤채움부를 석축으로 쌓았다.

체성벽 바깥쪽에는 1m 정도 높이로 점토를 다져서 체성벽을 보강하였으며, 체성벽에서 1.5m, 바깥쪽에는 다시 30cm 정도의 단차를 두고 암반 바닥을 정지하고 보축 성벽 기저부를 놓았다. 보축 성벽 바깥쪽에는 다시 체성벽처럼 일정한 높이까지 점토로 보강하였다.

3. 서쪽 성벽에서 확인된 初築 城壁

1·2차 발굴조사가 완료된 시점만 하더라도 필자는 덕진산성에서 고구려 성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는 동벽구간에서 확인된 하단 보축성벽이 유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²⁾ 그 이유는 체성벽의 축조방법은 토축부에 석축을 덧붙이는 고구려의 ‘土芯石築工法’으로 확인되었지만, 체성벽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기의 석축성벽과 축조기법이 유사하여 고구려축성기법을 融合한 통일신라시기의 성곽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덕진산성 1차 성벽은 체성벽보다 큰 地臺石을 놓고, 장방형으로 가공된 화강편마암 성돌과 체성벽에 덧붙여 쌓은 낮은 보축성벽은 7-8세기대 신라성곽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축성벽의 축조방법이 일반 신라성벽의 보축성벽과 달리 속에는 흙으로 다짐을 하고 표면만 석축을 하였다는 점과 부정형의 할석으로 습식쌓기 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전형적인 신라 양식과는 달랐지만 이 역시 통일신라가 고구려의 축성법을 受容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축성법이 혼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금번 4차 발굴조사에서 집수시설이 있는 서벽구간의 외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체성벽 안쪽에서 체성벽과 별개의 새로운 성벽이 확인되었다. 노출된 성벽의 길이는 8m 정도지만, 상부에

12) 심광주, 2014, 「덕진산성과 임진강 유역 고구려와 신라의 축성법 비교」,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中部考古學研究所, 352쪽.



도면 3. 4차 조사에서 확인된 서벽부 전경(좌), 체성벽 안쪽의 초축성벽(우)

노출된 성벽선을 보면 북서치에 바로 인접된 지점까지 이 성벽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성벽의 중간벽처럼, 이 성벽도 체성벽을 조성하기 위한 중간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성벽을 잠정적으로 초축 성벽 잔존유구로 보고자 한다.

첫째, 이러한 겹벽 형태의 유구는 신라나 통일신라 성벽에서 확인된 사례가 없다. 석축성벽의 너비가 성벽 높이의 70%에 달할 정도로 넓은 사다리꼴 석축으로 이루어지는 협축식의 신라 성벽은 대부분 내벽과 내벽 사이에 치밀하게 뒤채움을 쌓은 일체형 구조이며, 이처럼 겹벽으로 구축한 신라성곽은 확인되지 않는다.

통일신라 시기로 접어들면서 석축성벽은 夾築式 성벽에서 片築式 성벽으로 변해간다.¹³⁾ 견고한 석축부의 두께가 점차 얇아지게 됨으로써 통일신라 석축 성벽에 2중벽을 구축할 필요성은 더욱 사라지는 반면, 기존 성벽의 체성벽에 덧붙여 새로운 성벽을 쌓는 축성법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처음부터 중간벽이 있는 겹벽은 신라성곽의 축성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고구려성벽의 경우 체성벽의 석축부를 두껍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겹벽 구조의 축성법을 사용하였다. 평양의 대성산성이나 연천 당포성, 연천 호로그루의 체성벽에서 중간벽이 있는 겹벽구조가 확인된다.¹⁴⁾ 흥련봉1보루에서는 1단의 성돌로도 겹벽형태로 체성벽을 보강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만일 이 초축벽과 체성벽이 동시기에 축조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축성기법은 고구려적인 축성기법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둘째, 초축성벽에서 기둥흙이나 체성벽과 동시축성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두꺼운 겹벽 형태의 고구려성벽의 중간벽에서는 대체로 기둥흙이 확인되고 있다.

13) 심광주, 2013,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대진리산성, 매초성인가』, 경기문화재단, 82쪽.

14) 심광주, 2014, 「고구려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한강문화연구원, 44쪽.

이는 석축성벽을 쌓기 전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세우로 나무기둥을 기준으로 석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기둥홈은 대략 2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로고루에서는 중간벽과 체성벽이 분리되지 않도록 심석을 사용하여 두 벽을 연결하고 있음도 밝혀졌다.¹⁵⁾ 그러나 덕진산성 초축성벽은 그 자체로 온전한 성벽의 외벽처럼 마감되었으며 기둥홈이나 두 성벽의 분리를 막기 위한 심석이나 점토 모르타르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셋째, 초축 성벽은 1차성벽의 면석과 석재의 종류와 가공방법, 축조방법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면석에 사용된 성돌의 재질이 체성벽과 전혀 다르다. 초축성벽에 사용된 석재는 덕진산성의 기반암을 이루는 현무암과 변성 퇴적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석재들은 단단하기는 하지만 압축강도가 약하고, 방형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속성을 보이는 석재로서 질리가 발달하여 일정한 두께로 잘라내기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축한 통일신라의 체성벽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면석에 사용된 石材의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성돌의 형태는 정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이다. 따라서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성돌과 성돌 사이에는 빈틈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빈틈에는 작은 췌기돌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축성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성돌을 쌓는 과정에서 점토를 사용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점토나 강회 몰탈을 사용하여 물이 자연배수가 되지 않도록 쌓는 방법을 습식쌓기라고 한다. 이러한 형태의 습식쌓기 기법은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구려성곽의 축성방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적인 축성기법이다.¹⁶⁾ 초축성벽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축성기법은 덕진산성의 체성벽 보다는 보축성벽의 축성기법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서북벽과 동북벽, 남서벽이나 남동벽에서는 이러한 구조의 성벽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곡간부를 지나는 서벽구간이 특별히 취약하기 때문에 체성벽을 보강하기 위하여 안쪽에 별도의 내벽을 구축하였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축조기법을 달리하는 성벽의 존재야 말로 지금까지 덕진산성의 초축시기를 통일신라라고 보았던 견해를 본질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된 고구려성벽을 신라가 체성벽을 신라식으로 개축하였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단정하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1차 체성벽 내부에서 발견된 이 초축성벽은 덕진산성의 축성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든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15) 심광주, 2014, 「고구려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44쪽.

16) 심광주, 2014, 「고구려성곽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기법」, 『아차산 일대 보루군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안』, 한강문화재연구원, 46쪽.

4. 1차 體城壁

발굴조사를 통하여 덕진산성의 전 구간에서 확인되는 석축성벽은 1차성벽과 2차성벽의 두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쌓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성벽은 계속 붕괴되기 때문에 성곽은 축성이후 지속적인 수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수축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벽에 가해지는 전체적인 증축이나 개축을 대상으로 할 때 덕진산성 석축 성벽은 크게 1차성벽과 2차성벽의 2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성벽과 2차 성벽은 모두 통일신라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1차 성벽은 신라가 임진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初築하였거나 고구려성벽을 修築하여 신라식 성곽으로 구축한성벽을 말한다. 체성벽과 보축성벽으로 구축된 이 성벽을 통일신라의 성곽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면 4. 체성벽 비교(좌 : 덕진산성 동벽구간, 중 : 덕진산성 보축성벽, 우 : 무등리2보루)

첫째, 체성벽의 기저부에 대형의 地臺石이 사용되었다. 석축성벽이 바깥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성돌을 놓을 지점의 압반을 정지하여 턱을 조성하고, 체성벽성돌보다 4배 정도 큰 대형의 지대석이 사용되었으며, 지대석에서 10cm 정도 안쪽으로 퇴물림을 하여 체성벽을 쌓아 올렸다. 이처럼 대형 지대석이 체성벽에 사용은 이성산성 2차성벽, 부소산성 통일신라시기 성벽, 안성 망이산성 등 통일신라시기에 등장하는 신라 축성기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¹⁷⁾ 이에 비하여 아차산4보루나 시루봉보루, 무등리2보루, 호로그루, 당포성 등의 고구려성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지대석이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 체성벽 축조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화강편마암이다. 체성벽은 한층 한층 바른층쌓기를 하면서 정교하게 쌓아 올라갔는데 이렇게 성벽을 정연하게 쌓기 위해서는 두께가 일정한 규격화된 성돌 사용이 불가피하다. 지질도를 보면 덕진산성이 있는 지역의 기반암은 중생대 적성층과 신생대의 현무암층으로 가까운 곳에는 화강편마암 암맥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체성벽 축조를 위

17) 심광주, 2013,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대전리산성, 매초성인가』, 경기문화재단, 80쪽.

해서는 화강편마암을 채석할 수 있는 곳에서 성돌을 운반하여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신라의 축성장인들이 현무암이나 가공하기 힘든 퇴적암으로 성돌을 쌓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현상은 호로그루의 고구려 성벽 바깥에 덧붙여 쌓은 통일신라의 성벽에서도 확인된다.¹⁸⁾

셋째, 성벽의 장방형으로 가공된 석재로 건식쌓기를 하였다. 체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성돌의 두께가 15cm 내외의 두께에 30~40cm 너비의 장방형으로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들여쌓기가 거의 없이 경사각 85° 정도의 수직에 가까운 성벽을 구축하였다. 성돌과 성돌 사이에 빈틈이 거의 없으므로 성벽을 쌓으면서 켜기돌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진흙 몰탈을 사용하지 않아 빗물이 성벽 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건식쌓기를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축성기법은 기존의 신라나 통일신라성곽 축성기법과 비교할 때 차이점도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삼국시대 신라 성벽에 비하여 석축부의 두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1.6m 정도 두께의 편축식 성벽으로 구축되었으며, 세장한 형태로 가공된 뒤채움돌이 사용되지 않아 뒤채움 석축이 면석을 정교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일반적인 통일신라의 편축식 성벽의 경우 토축부가 40°~50° 정도의 완경사를 이루는데 비하여 덕진산성 체성벽은 60°~80° 정도의 급경사를 이루는 토축부의 단면에 기대어 축조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토축부가 석축부보다 먼저 조성되어야 하며, 토축부가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영정주가 토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석축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축성법은 일반적인 신라의 축성법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덕진산성의 석축성벽은 첫째 고구려가 초축하였을 가능성, 둘째 고구려가 초축한 성벽을 신라가 수축하였을 가능성, 셋째 고구려의 축성법으로 신라가 초축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5. 雉

덕진산성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3개의 치가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덕진산성에서 확인된 3개의 치는 모두 체성벽을 먼저 구축하고 체성벽에 덧붙여 쌓았다. 치의 기초부와 체성벽의 기초부는 거의 같은 레벨에 위치하며, 체성벽과 치를 구축한 석재와 축조방법이 동일하므로 체성벽을 쌓은 시점과 치를 쌓은 시점이 공정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시간적인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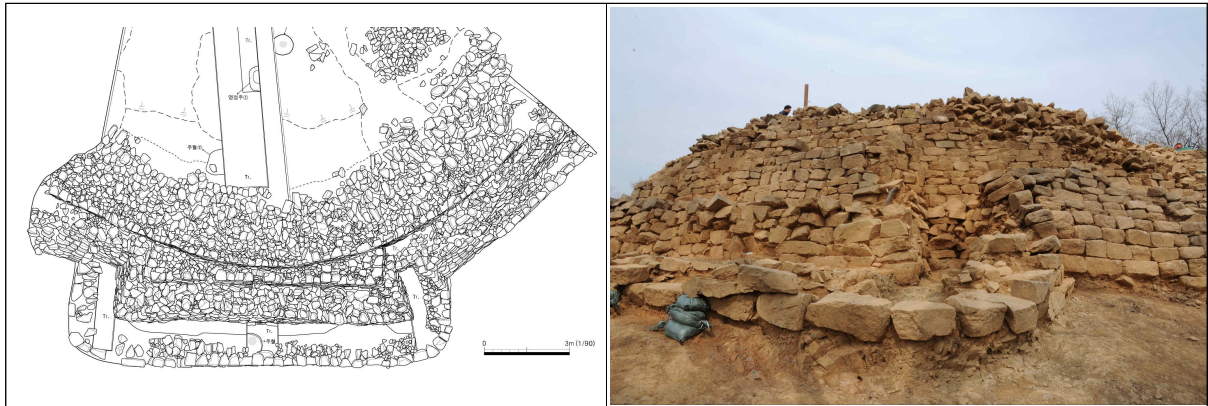
그런데 북서치와 북동치와 달리 남서치의 경우에는 치에 기둥흙이 남아있다. 기둥흙의 간격은 210cm 내외인데 이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먼저 세우고 나무기둥을 기준으로 석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18) 지금까지의 남한지역에서의 고구려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 사례를 검토해 보면 축성에 사용된 석재는 모두 현지에서 공급되었으며, 이처럼 원거리에서 축성장인들이 선호하는 석재의 성돌을 운반하여 쌓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다는 점도 이 성벽을 고구려 성벽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치는 성벽이 능선을 통과하는 회절구간에 설치되었으며, 치의 상태가 잘 남아있는 남서치의 경우 전면부에서 바라볼 때 돌출된 길이는 양측면이 1.3m, 중간 부분은 0.5m, 너비는 8.8m 정도이다. 이정도 규모로는 너무 협소하여 치의 원래 기능 중 하나인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 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덕진산성의 치는 방어력을 높이기 보다는 체성벽을 보강하여 성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치는 호로그루와 당포성 동벽의 고구려 성벽에 덧대 쌓은 신라 성벽에서도 확인되며 이성산성 동문구간에서도 확인된다. 반면 아차산 일대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치는 체성벽과 일체형으로 구축되었다.¹⁹⁾ 치의 형태도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라는 점에서 고구려 성벽에서 확인되는 치의 형태는 덕진산성 치와 축조기법을 달리하고 있다.

보축성벽은 치를 감싸고 돌아가고 있어 치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 보축성벽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보축부가 치보다 더 견고하게 구축되어 체성벽을 보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도면 5. 덕진산성 남서치(치2) 평면도(좌), 북동치(치3) 전경(우)

6. 補築城壁

보축성벽은 체성벽에 덧붙여 쌓아 체성벽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구조물로서 신라의 석축성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어 신라 축성법의 주요한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⁰⁾ 덕진산성에서는 전체 구역에서 1차체성벽과 보축성벽이 확인되고 있다. 덕진산성의 보축성벽은 1차성벽의 기저부 바깥쪽 1.5-2m 지점에 구축되었다. 보축성벽의 기저부는 체성벽 기저부 레벨보다 60cm 정도 낮은 지점에서 시작되며, 체성벽까지 단면은 곡선을 이루며 3~4m 높이까지 쌓아 올렸다. 보축성벽의 외부에는 다시 1m 정도 높이로 점토를 덧붙여 쌓아 보축성벽을 보강하였다.

이처럼 보축성벽의 외관상 구조는 기존의 신라 석축성의 보축 성벽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덕진산성의 보축성벽에서는 일반적인 신라의 보축성벽과 구별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확인된다.

1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아차산 4보루 발굴조사보고서』.

20) 박종익, 2013, 「최근 조사된 경상도지역의 석축산성」, 『문화재』 제46권 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26쪽~142쪽.



도면 6. 덕진산성 상단 보축성벽(좌), 하단보축성벽(우)

첫째, 덕진산성의 보축성벽은 체성벽과 전혀 다른 석재가 사용되었다. 체성벽을 쌓는데 사용된 성돌은 화강편마암이지만, 보축성벽에 사용된 석재는 현무암이나 퇴적암으로서 장방형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석재들이어서 대부분 부정형이다. 보축성벽의 하단부는 보강토에 묻혀서 지면에 노출되지 않지만 보축성벽 상부의 2/3 정도는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성곽의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부정형의 석재로 마감하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보축성벽의 축성방법은 점토 모르타르를 사용하면서 습식쌓기로 쌓았다. 체성벽은 정연하게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건식으로 쌓는데 비하여, 보축성벽은 부정형의 석재로 쌓으면서 사이사이의 빈틈을 점토모르타르로 충진하면서 쌓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보축성벽의 내부는 점토다짐을 하고 일정한 높이까지는 표면만 한겹의 석축쌓기로 마감하여, 보축성벽의 내부까지 석축으로 채우는 일반적인 신라 보축성벽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보축성벽은 체성벽 기저부의 레벨보다 낮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단면이 곡선을 이루며 체성벽에 이르도록 쌓아 올렸다. 일반적인 신라의 보축성벽은 체성벽기저부와 동일한 레벨에서 쌓아 올리거나 자연경사면 정도의 레벨차이가 확인되는데 비하여, 덕진산성의 보축성벽은 거의 동일하게 체성벽기저부의 하단에서 약 60cm 정도 낮은 지점의 암반면이나 생토면을 굴광하고 보축성벽을 쌓아 올렸다. 이러한 형태의 보축기법은 호로고루나 당포성 등 고구려 평지성에서 확인되는 특징들이다.

넷째, 겹벽쌓기가 확인된다. 덕진산성 보축성벽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겹벽쌓기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겹벽쌓기는 동벽구간에서 확인되는데 1겹으로 쌓아 올린 보축성벽의 외부에 점토모르타르를 충진하며 다시 한겹의 석재를 쌓아 올린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겹벽쌓기는 흥륜봉 1,2보루에서도 확인된다.

다섯째, 2단의 보축성벽이 확인된다. 2단의 보축성벽이 확인되는 구간은 동벽치가 있는 구간인데, 상단 보축성벽에서 2.3m 이격된 지점에서 다시 상단 보축성벽과 동일한 축조기법으로 쌓은 하단 보축성벽이 확인된다. 특정 구간에만 이러한 형태의 보축성벽이 확인되는 것은 동벽구간이 주出入口이자 완경사 구간이므로 방어력 보강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7. 2차 체성벽

덕진산성의 전 구간에서 확인되는 성벽은 가장 바깥쪽에 구축된 2차성벽이다. 2차성벽은 1차성벽의 기저부에서 바깥쪽으로 대략 2m 정도 이격된 지점의 1차성벽 보강토 상면에서부터 전체구간에 쌓아올린 성벽이다. 이 2차성벽은 덕진산성의 성벽 중 가장 바깥에 구축된 성벽이었으므로 현재 가장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2차 성벽은 자연붕괴로 무너지기도 했지만, 외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2차성벽의 성돌이 많이 재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광해군대 외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석재의 필요에 따라 2차성벽의 상당부가 인위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2차성벽의 성돌은 하단에서부터 1-2단 정도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높이 1m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북서쪽 치의 모서리구간에는 3m 높이로 성벽이 남아 있다.



도면 7. 덕진산성 1차체성벽(좌), 2차체성벽(우)

2차 성벽을 보축으로 보기도 하지만, 1차성벽의 외면에 덧붙여 쌓은 성벽으로서 성벽의 상부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개축된 2차성벽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성벽의 외면에 덧붙여 쌓는 축성기법은 통일신라시대 축성법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호로고루와 당포성에서도 고구려성벽의 바깥쪽에 덧붙여 쌓은 통일신라시대 성벽이 확인되었으며, 덕진산성이나 이성산성의 경우 초축된 신라성벽의 바깥쪽에 통일신라시기에 덧붙여 쌓은 성벽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존성벽의 바깥쪽에 덧붙여 쌓은 것은 수축하여 원위치에 다시 쌓기 보다는 덧붙여 쌓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2차성벽의 성돌은 1차성벽의 성돌의 재질과 가공방법 및 축성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1차성벽은 화강편마암으로 장방형으로 가공되었지만 2차성벽은 화강암을 주재료로 하였으며, 성돌의 크기도 커지고 성돌은 하나하나 표면을 가공하였음이 확인된다. 2차성벽에서 보축성벽은 확인되지 않으며, 1차 성벽 보축성벽의 보강토 상면을 약간 정지하고 경사면을 따라 퇴물림하면서 쌓아 올

렸기 때문에 성벽의 경사가 대략 60°~70° 정도로 1차성벽에 비하여 완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2차성벽의 치는 모서리가 직각이나 둔각을 이루는 길이보다는 너비가 넓은 세장형 치에서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평면 반원형의 치로 바뀌게 된다.

Ⅲ. 德津山城의 築城主體와 築城時期

1. 高句麗의 築城 可能性

덕진산성이 고구려성이라는 물적 증거는 의외로 많지 않다. 지표조사 당시 성내에서 고구려토기편이 발견되어 고구려성으로 인식되었지만, 둘레 600m에 달하는 고구려성 치고는 성내에서 출토된 고구려유물이 매우 빈약한 편이다. 발굴조사 결과 고구려 토기편은 대부분 북쪽 봉우리의 정상부에 있었던 고구려 수혈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쪽사면의 보축성벽 하단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출토되었다. 기와편은 북서쪽 치 구간의 성벽 단면 조사 과정에서 토축부 안에서 단 한 점이 출토되었을 뿐이다.

아직 발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만일 덕진산성이 고구려성이라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덕진산성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거리에 있는 동과리보루만 해도 덕진산성 절반 정도의 규모지만 지표상에 고구려기와편이 대량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구려유적에서는 모두 대량의 고구려토기나 기와편이 출토되었음을 고려하면 이처럼 출토유물이 빈약하다는 점도 덕진산성의 석축성벽을 고구려 성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축성법을 위주로 검토하면 덕진산성은 고구려가 축성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덕진산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축성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土芯石築工法’이다. 토심석축공법은 성벽의 기저부나 중심부는 흙으로 쌓고 외벽만 석축으로 하거나 내외벽을 석축으로 하는 기법을 말하며 고구려성곽의 가장 일반적인 축성공법이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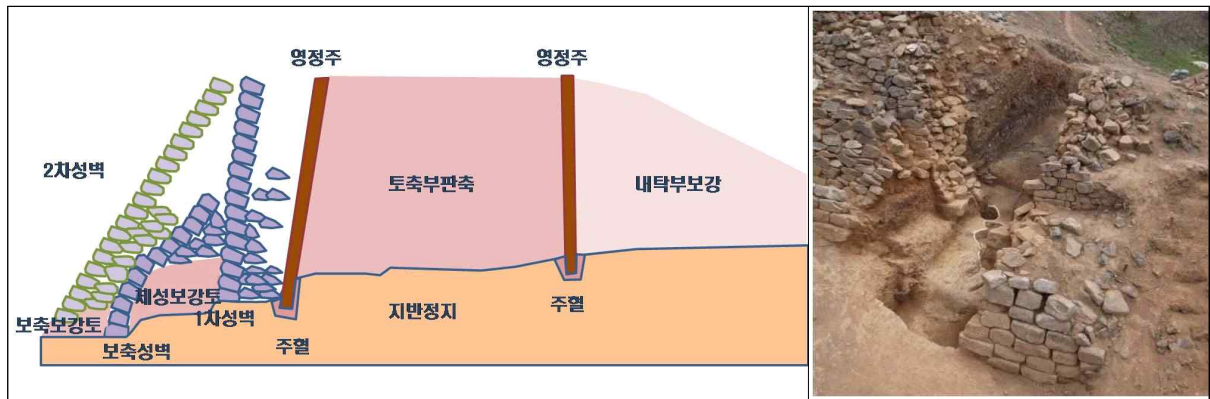
이 공법을 중국에서는 ‘包骨牆’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土石混築’, 또는 ‘石築附加 版築城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²²⁾ 토심석축공법은 토성과 석성의 장점을 결합하여 창안해낸 신공법이다. 토성은 석성에 비하여 축성이 용이하지만 외벽의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석성은 수직에 가깝게 외벽을 쌓을 수 있지만 토성에 비하여 축성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토심석축공법’은 바로 이러한 두가지 축성법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한 축성법이다.

‘토심석축성’의 성벽은 두꺼운 토축부와 얇은 석축부로 구성된다. 얇은 석축부는 내부에서 밀어내

21) 심광주, 충북대학교박물관,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방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4쪽.

22) 朴泰祐, 2006, 「月坪洞山城 城壁 築造技法과 時期에 대한 檢討」, 『百濟文化』 제35집, 94쪽.

는 應力을 버텨낼 수 있는 기능은 없으며, 성벽의 경사를 유지시켜주고 토사가 침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토심석축성의 관건은 내부의 토축부를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 하는데 있다.



도면 8. 덕진산성 축성법 모식도(좌), 덕진산성 서벽단면(우)

토심석축성의 핵심기술은 판축 토성의 축성법을 응용한 永定柱의 活用이라고 할 수 있다. 시멘트 구조물 속의 철근이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파일공법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영정주를 깊게 박아 영정주가 구조체 역할을 하도록 하여 토축부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암반이나 생토면을 1~2m 깊이로 파고 직경 20cm 정도의 원목을 박아서 견고하게 고정시킨 후 영정주와 영정주를 종장목과 횡장목으로 연결하였다.

영정주열이 2열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1열의 영정주만으로는 과도한 토압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측에 또 한열의 영정주를 설치하고 횡장목과 종장목을 연결하여 토압을 분산시키고, 영정주 사이에는 10cm 정도 두께의 판목을 설치한 후 영정주 내부를 판축하여 성토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축성대상지역의 경사가 완만하거나 지형적인 여건상 성토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아차산 4보루처럼 부분적으로 3열의 영정주열이 구축되기도 하였다. 이때 영정주와 종장목, 횡장목은 犧牲木으로 흙 속에 과몰하게 되는데, 조밀하게 설치한 영정주가 토축부의 붕괴나 침하를 막아주어 성벽의 내구성을 높여준다.

판축을 통하여 토축부가 완성되면 외측 영정주의 협판을 제거하고 면석을 포함하여 1-2겹 정도의 석축을 쌓아서 석축성벽을 완성한다. 석축성벽을 쌓을 때에는 이질적인 소재인 흙과 돌의 材料分離 현상으로 성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르타르처럼 점토를 성돌 사이의 빈공간과 토축부와 석축부 틈새를 채워 넣었다. 석축성벽을 쌓은 후에는 성벽의 바깥쪽에 일정한 높이까지 다시 성토 다짐하여 마감하였다.

문제는 덕진산성의 토축부에 덧붙여진 석축성벽이 과연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만 할 것이다. 발굴조사 결과 덕진산성에서는 동벽과 서벽, 남벽에서 토축부가 확인되었다. 토축부는 공통적으로 3~4m 폭으로 확인되는 중심토루의 외면에 석축성벽이 구축

되었으며, 내벽쪽으로는 중심토루에 덧붙여 쌓은 토축부가 길게 이어지는 형태이다.

토축부와 석축부가 접점을 이루는 토축부의 단면경사는 북서쪽성벽에서는 60°~70°, 동북쪽 단면에서는 80°정도로 거의 수직에 급경사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土築構造物은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重力과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摩擦力이 균형을 이루는 경사상태인 安息角이 있다. 가장 양호한 상태의 토축구조물의 安息角은 40~45°이며²³⁾ 잔존하고 있는 토성외사면의 경사각은 대체로 28°~38° 정도다.²⁴⁾

따라서 토축부가 토성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각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만큼 성 바깥쪽으로 토축부가 연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토성의 높이가 6m, 28° 정도의 경사라고 한다면 13.5m, 38°의 경사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8m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덕진산성은 외부경사가 완만한 곳도 보축성벽 보강토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급경사를 이루어 5m 정도의 여유공간 밖에 확보되지 않으므로 토성의 외사면을 완성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덕진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의 원지형이 현무암의 침식으로 이미 30°에서 45°에 이르는 급경사를 유지하고 있어, 토성을 쌓기가 어려운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덕진산성의 토축부는 그 자체로 토성의 기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토축부의 바깥쪽에 석축을 덧붙여 마감하는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된 석성이라고 추정하게 된 것이다.

고구려가 남한지역의 고구려 보루를 대부분 이러한 토심석축성으로 구축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성이나 석성과 비교할 때 토심석축성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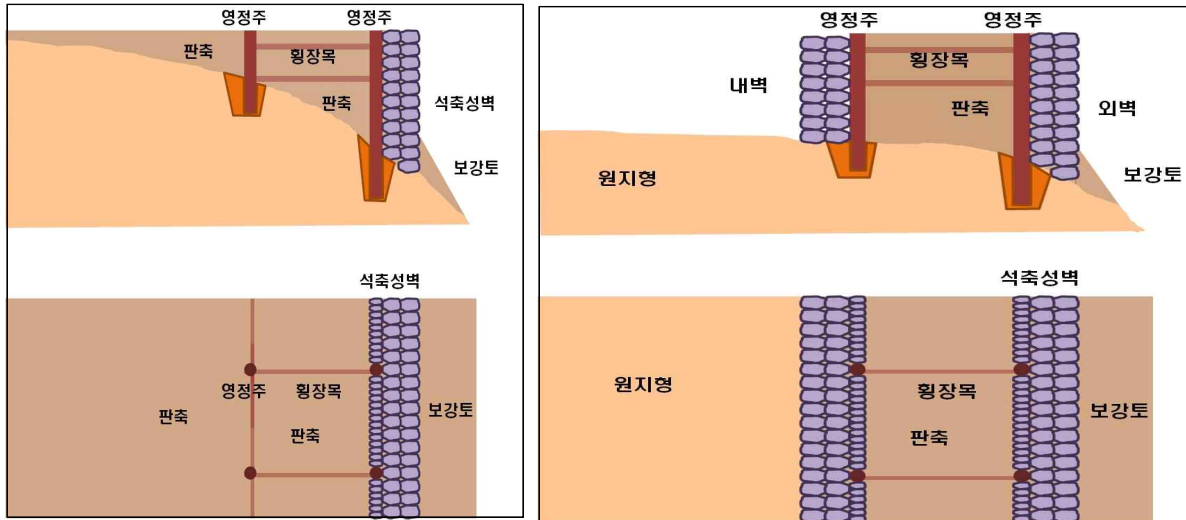
첫째, 축성입지 선정이 자유롭다. 토성은 기본적으로 흙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安息角의 영향을 받는다. 안식각은 토사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아무리 가파르게 쌓더라도 40°를 넘지 못한다. 이러한 양상은 현존하는 토성에서도 확인되는데 풍납토성의 외벽은 28° 소근산성 37°, 부소산성 토성외벽 28°, 증평 이성산성 28° 등으로 대체로 28° 내외의 경사각을 유지한다. 이처럼 28°의 경사각을 유지하게 되면 4m 높이의 성벽을 쌓기 위한 기저부의 너비는 약

23) 흙의 안식각

토 질		안식각	구 배	비 고
보통토	건조	20°~40°	1:2.8~1.2	구배는 높이를 1로 하였을 때 사면의 수평 길이
	수분적음	30°~45°	1:2.7~1.0	
	수분많음	14°~27°	1:0.4~2.0	
점토	건조	20°~37°	1:2.8~1.3	
	수분적음	40°~45°	1:1.2~1.0	
	수분많음	14°~20°	1:4.0~2.8	
모래	건조	27°~40°	1:2.0~1.2	
	수분적음	30°~40°	1:1.7~1.0	
	수분많음	20°~30°	1:2.8~1.7	
자갈	건조	30°~45°	1:1.7~1.0	
	수분적음	27°~40°	1:2.0~1.2	
	수분많음	25°~30°	1:2.1~1.7	

24) 조사결과 확인된 잔존 성벽의 경사각은 풍납토성 외벽 28°, 소근산성 외벽 37°, 사비도성 외벽 28°, 증평 이성산성 외벽 28°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외벽경사각이 공교롭게도 28°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은 토사구조물의 안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6m가 되어야 하며, 풍납토성처럼 8m 이상의 높이로 쌓으려면 성벽 기저부의 폭은 최소한 32m 이상 되어야 한다.²⁵⁾



도면 9. 토심석축공법 축조 모식도(좌 홍련봉 1보루, 우 홍련봉 2보루 협축구간)

그런데 석축으로 외벽을 마감하게 되면 굳이 토성 기저부가 평탄하거나 완경사지역일 필요가 없게 되므로 내부 공간이 협소한 구릉지역에서 성을 쌓기 용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성의 기저부로 경사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고 평탄한 구릉 정상부가 아니더라도 성을 쌓을 수 있게 됨으로써 축성입지 선정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 내부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4m 높이의 성벽을 토성으로 쌓을 때에 비하여 토심석축으로 쌓게 되면, 성내부 공간은 6m 정도를 확장시킬 수 있다. 토성으로 쌓았을 때에 비하여 같은 규모를 토심석축성으로 쌓게 되면, 성벽 상부의 둘레는 14% 정도 증가하는데 비하여 성 내부 면적은 53%나 확장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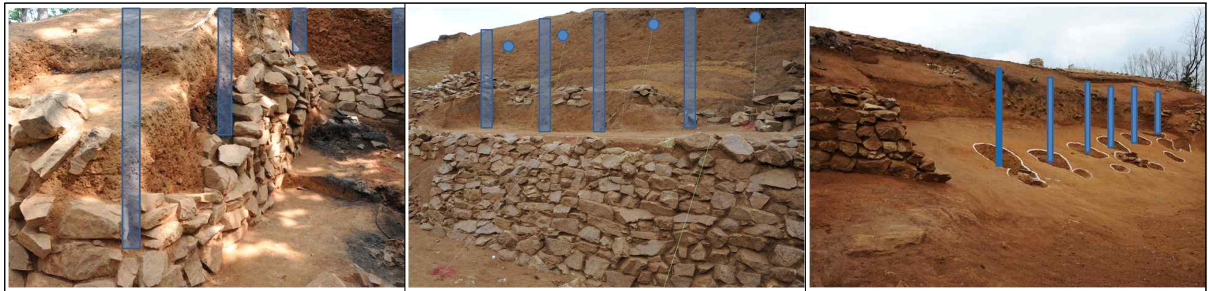
셋째, 防禦力의 획기적인 증진이다. 토성은 외벽의 경사각이 최대 4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부에 목책 같은 부가시설을 하지 않으면 적이 성벽을 밟고 올라가 어렵지 않게 성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반면 석축성벽은 경사각을 80° 내외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사다리 없이 성벽을 올라갈 수 없게 된다.²⁶⁾

넷째, 경제적 효율성이다. 동시기의 신라성처럼 전면석축성으로 구축할 경우 이러한 토심석축성에 비하여 몇 배에 해당하는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석성을 쌓을 때 가장 많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이 성돌의 가공과 운반이다. 협축식 전면석축성의 기저부 너비를 대략 5m

25) 심광주, 충북대학교박물관,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방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8쪽.

26) 심광주, 충북대학교박물관, 2013, 「청주 부모산성과 주변 보루의 축성방법」, 『청주 부모산성의 종합적 고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68쪽.

정도라고 가정할 때 토심석축성의 석축부 너비는 1m를 넘지 않으므로 토심석축성은 협축식 전면 석축성에 비하여 약 20% 정도의 석재만을 필요로 하면서도 석축성과 거의 동일한 방어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土芯石築城은 土城의 축성용이성과 석성의 방어력을 결합한 획기적인 築城工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면 10. 좌:무등리2보루 영정주, 중:홍련봉2보루 영정주와 횡장목, 우: 홍련봉2보루 영정주

이러한 형태의 고구려 축성법은 남한지역의 고구려성곽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확인되었다. 고구려 초기성곽으로 추정되는 나통산성의 서성벽과 고구려도성인 국내성 성벽, 평양의 대성산성 남문지구간성벽, 평양성 나성 구간 등에서도 확인된다.²⁷⁾

고국원왕 12년(342)의 국내성 축성기록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4세기 대에는 정형화된 토심석축공법으로 성곽이 구축되었으며, 이후 토심석축공법은 고구려 영토의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일반적인 축성기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부정형의 석재사용과 濕式工法이다. 일반적으로 사각추형으로 가공된 성돌은 고구려 축성기법의 또 다른 특징이다. 정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을 띠고 있고, 표면의 중간부가 약간 볼록하도록 하였으며 네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처리한 성돌은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성에서는 공통적으로 확인됨으로써 고구려는 일찍부터 발달된 석재가공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호로로루 동벽의 체성벽과 보축성벽에 사용된 석재는 모두 주변에서 쉽게 확인되는 현무암이다. 현무암은 화강암처럼 모스경도 7~8로 가장 단단한 석재중의 하나이다. 고구려인들은 5~6세기경, 이미 이 단단한 현무암을 자유자재로 가공하여 성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성벽의 바깥쪽에 덧붙여 쌓은 신라성벽은 호로고루에서 반경 2km 범위 내에서는 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원거리에서 운반하여 온 화강편마암 석재가 사용하여 성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7세기 후반 임진강 이북지역으로 진출

27) 중국의 李殿福 선생은 고구려 성곽의 축조법을 乾打壘式, 兩面築城, 土石混築, 夯土築城 등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타루식(오녀산성, 환도산성, 흑구산성, 패왕조산성)은 속에 진흙과 자갈을 넣고 외면만 석축을 한 토심석축에 해당하며, 양면쌓기(나통산성)는 돌로 양면을 쌓고 속을 흙과 돌로 채우는 방식으로 역시 토심석축공법에 해당하다. 토석혼축(용담산성, 용수산산성, 고이산성)은 흙과 돌을 섞어 쌓는 것이 아니라 토축구간과 석축구간이 혼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항토축성(심양 탐산산성)은 순수 판축토성을 의미한다(李殿福, 1995, 「高句麗山城構造及其變遷」, 『東北考古研究』 中州古籍出版社; 서길수, 2009, 『고구려축성법 연구』, 학연문화사, 124~125쪽에서 재인용)

한 신라의 장인들에게는 현무암을 가공할 정도의 기술과 도구가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양상은 대전리산성 조사에서도 관측되는데, 6세기 중후반에 구축된 초축성벽의 성돌은 대부분 인근에서 구하기 어려운 화강편마암인데 비하여 8세기 이후에 구축된 2차성벽의 성돌은 모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장방형으로 가공한 성돌이 사용되었다.²⁸⁾



도면11. 축조주체에 따른 성돌 암질과 가공수법의 변화

(좌 : 현무암으로 된 호로그루 고구려성벽, 우 : 화강편마암을 사용한 호로그루 통일신라 성벽)

이처럼 석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석재가공기술과 숙련된 다수의 장인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남한의 고구려 성곽을 살펴보면 호로그루나 당포성, 아차산4보루 등 평지성이나 일부 산성에서는 장방형으로 정연하게 가공된 성돌 사용되었지만, 덕진산성과 무등리보루, 아차산 흥련봉1,2보루 등 일반적인 고구려성에서는 자연석에 가까운 활석이나 일부만 가공된 석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벽의 구조나 여타의 시설로 볼 때 많은 공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흥련봉1,2보루에 사용된 성돌을 보면 편암 계통의 지표석을 잘라내어 2차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축조하여 난층쌓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남한의 고구려 보루를 축조할 당시 고구려 장인들에게는 석재를 가공할 기술이 없었다기 보다는 ‘토심석축공법’의 핵심인 견고한 토축부를 조성하는 것이 석축붕괴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내용이었으므로 석축부는 굳이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8) 심광주, 경기문화재단, 2013, 「축성기법을 통해본 대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발표요지』, 61쪽.



도면12. 습식쌓기의 방법으로 구축된 고구려성벽(좌:홍련봉1보루, 우:시루봉보루)

성돌의 축조방법에는 건식쌓기와 습식쌓기가 있다. 건식쌓기는 신라의 석축성처럼 흙을 사용하지 않고 돌만 사용하는 축조방법이다. 반면 습식쌓기는 점토를 모르타르처럼 성돌 사이사이를 채워가면서 석축한 방법이며 고구려성벽은 대부분 습식쌓기를 하였다.

고구려성은 토축부에 얇은 석축을 덧붙여서 석축으로 성벽을 마감하는 형태여서 돌과 흙의 재료분리 현상으로 인한 석축부의 붕괴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습식공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법으로 추정된다. 토축부 바깥쪽에 석축부를 조성해 가면서 석축부와 토축부 사이는 물론 석축성벽을 쌓으면서 시멘트 몰탈처럼 성돌 사이사이를 점토로 충진함으로써 재료분리 현상에 의한 붕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덕진산성에서는 고구려성벽으로 추정되는 서벽의 내벽부와 보축성벽에서 이러한 습식공법으로 쌓은 석축이 확인된다.

2. 統一新羅의 築城可能性

발굴조사결과 덕진산성의 전 구간에서 확인된 1차 체성벽과 보축성벽을 고구려성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출토유물과 축성기법 때문이다. 덕진산성의 전 구간에서는 토기편과 다량의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유물들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유물들이다. 토기편은 인화문토기합과 호형토기 등이며 기와편들은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유물만으로 보면 덕진산성은 통일신라에 의하여 초축된 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축성기법적인 측면에서도 덕진산성은 통일신라시대의 축성법이 확인된다. 2차 성벽은 통일신라 후기에 기존 성벽 바깥쪽에 덧붙여 쌓은 성벽임이 분명하므로 1차성벽을 중심으로 통일신라에 의한 축성가능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거리에서 운반해온 화강편마암계 성돌이 사용되었다. 원 지반의 종류에 관계 없이 현지에서 공급가능한 성돌을 주로 사용하는 고구려와 달리 신라의 축성장인들은 성돌의 석질에 유난히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른층 쌓기로 정연한 성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두

개로 채석하여 가공할 수 있는 석재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덕진산성이 있는 지역의 원 지반은 중생대 적성층이나 현무암 암반으로서 정교하게 가공하기 매우 어려운 석재들이다. 지질도를 보면 사방 2km 범위 내에는 화강편마암 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덕진산성을 축성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석재를 운반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임진강 유역 일대에 신라에 의한 축성이 이루어지는 6세기에서 7세기 후반까지 신라의 축성장인들은 단단한 현무암이나 심석인 화강암이나 가공하기 어려운 적성층의 암석들을 체성벽 축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반면 체성벽의 뒤채움돌이나 보축성벽에 사용된 석재들은 모두 인근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적성층이나 현무암질의 부정형의 석재들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축성기술을 달리하는 두 집단의 축성기술이 덕진산성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체성벽의 하단부에 사용된 地臺石이다. 지대석은 성벽의 기저부에 놓은 성돌로 일반 체성벽 성돌에 비하여 3~4배 정도 크기가 커서 성벽의 하중을 지반으로 넓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대석은 축성후 흙으로 다시 복토하여 지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체성벽 돌에 비하여 거칠게 가공되는 것이 특징이며 체성벽은 지대석에서 10cm 정도 안으로 들어 쌓았다. 지대석은 삼국시대 성곽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하남 이성산성 2차성벽, 음성 망이산성, 연기 운주산성, 부소산성 통일신라시대 성벽 등 통일기 이후에 등장하는 축성법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²⁹⁾

셋째, 보축성벽이 구축되었다. 신라성벽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물 중의 하나가 보축성벽 또는 基壇補築이다.³⁰⁾ 보축성벽은 체성벽의 기저부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성벽으로 경사지게 보강성벽을 쌓아 체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덧붙여 쌓은 성벽을 말한다. 석축성벽은 돌의 무게 때문에 기저부에 전달되는 압축력과 성벽 내면에서 밀어내는 엄청난 應力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성벽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성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치를 설치하거나 성벽이 곡선을 이루도록 회절시키는 방법, 성벽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며, 성 외벽의 기저부에 일정한 높이로 보축을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보축성벽을 쌓는 방법은 성돌과 같은 형태의 돌을 횡적하여 쌓기도 하지만 형태가 정연하지 않은 석재로 면만 맞춰 쌓는 경우도 있다. 보축성벽의 단면이 삼각형을 이루도록 성돌의 면이 서로 맞물리도록 쌓는 방법도 있고, 하단부에서부터 퇴물림쌓기를 하여 단면이 부채꼴처럼 되도록 쌓는 방식도 있다. 덕진산성의 보축성벽은 전 구간에서 확인되며, 특히 동벽구간에는 2단의 보축성벽열이 확인된다.

그런데 덕진산성은 일반적인 신라 보축과는 약간 다른 점이 확인된다. 보축성벽은 체성벽의 하단부와 같은 레벨이나 약간 낮은 지점에서 체성벽 쪽으로 석축을 덧붙여 쌓는 것이 보통이지만 덕진산성은 체성벽 지대석 하단에서 약 0.6~1m 낮은 레벨에서부터 시작되며 체성벽의 기저부에 일

29) 심광주, 2013, 「축성기법을 통해 본 대진리산성과 주변 성곽의 역사적 위상」, 『대진리산성, 매초성인가』, 경기문화재단, 80쪽

30) 박종익, 1994, 「古代山城의 築造技法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 제15호, 139~142쪽.

정 높이까지 점토다짐을 한 후 그 위에 한 겹의 석축으로 피복하듯이 쌓아 올린 후 상부에서만 석축된 채움을 하여 높이 3m 정도의 보축성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보축성벽은 체성벽 성돌과 달리 가공되지 않은 석재를 사용하여 석축 사이사이를 점토로 충전하며 쌓는 습식공법으로 축조하였다는 점이 다른 신라성벽의 보축성벽과 다른 점이다.

넷째, 편축식 성벽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삼국시대 신라 성곽과 통일신라시대 성곽의 가장 큰 축성법의 변화는 체성벽의 축조방법이 협축식 전면석축성벽에서 편축식 성벽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석축부를 얇게 함으로써 석재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반면 경사면인 경우는 축성대상지의 기초부를 층단식이나 경사형태로 정지하고 석축을 덧붙였으며, 평지인 경우는 토성을 구축하듯이 토축부를 먼저 조성한 이후에 석축으로 마감하였다.

특히 기존 성벽을 재활용하여 덧붙여 쌓는 축성기법이 많이 확인된다. 연천 호로고루나, 연천 당포성은 붕괴된 고구려 성벽의 잔해물을 제거하지 않고, 성벽 바깥쪽에서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았다. 이성산성은 처음에 쌓는 신라성벽이 붕괴되자 그 바깥쪽에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음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축성기법의 변화 과정을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덕진산성도 체성벽 석축부의 두께가 1.6m인 片築式 城壁으로서, 석축부만을 기준으로 하면 통일기 이후의 석축성벽의 축성기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德津山城의 築城主體와 築城時期

덕진산성의 축성법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류하면 더 많은 요소들이 확인될 수 있겠지만 각 축성주체별 특징과 시기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축성요소별 축성주체

항목	확인구간	고구려	통일신라		비고
			1차	2차	
토심석축공법	전구간	○			기본공법
부정형 체성벽	서벽구간	○			습식쌓기
편마암 체성벽	전구간		○		장방형, 화강편마암
화강암 체성벽	전구간			○	가공성돌, 대형화
습식공법	서벽구간, 치	○	○		부정형 성돌사용
지대석	동벽, 서벽		○		암반에 턱
체성벽외 목주흔	동벽		○		2.1m 간격
세장방형치	동벽, 서벽		○		체성벽에 덧붙임
반원형치	동벽, 서벽			○	보축성벽 포괄
보축성벽	동,서, 남벽		○		동벽은 2차 조성
출토유물	토기, 기와	○	○	○	고구려 유물 소량

이러한 덕진산성 축성기법을 살펴보면 덕진산성의 초축시기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발굴이 축성법과 축조주체를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성문지에 대한 발굴이나 1차성벽의 내벽에서 확인된 초축성벽의 시점부와 종점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성벽 내부 토축부에 대한 평면조사를 진행하여 토축부의 조성방법도 밝혀내야 축성주체와 축성시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덕진산성에서는 고구려적인 축성기법과 통일신라의 축성기법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덕진산성의 축성주체에 대해서는 다음 두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구려에 의하여 초축되었을 가능성이다. 입지적인 여건상 임진강 북안에 위치하며 임진강을 도하할 수 있는 주요 교통로상에 고구려성이 위치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고구려의 전형적인 ‘土芯石築工法’이 확인되며 특히 서벽부의 1차성벽 안에서 부정형의 석재를 사용하여 습식공법으로 구축한 성벽이 확인됨으로써 덕진산성이 고구려에 의하여 초축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체성벽과 보축성벽을 포함한 1차성벽이 모두 고구려 성벽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체성벽 하단부의 지대석과 화강편마암의 가공된 성돌로 쌓은 체성벽, 그리고 흥련봉보루나 시루봉보루, 아차산4보루, 천보산보루, 무등리2보루 등 산지에 위치한 고구려보루의 토심석축공법과 비교할 때 덕진산성의 석축부의 두께가 1.6m로서 일반적인 고구려 보루의 석축부의 두께는 0.8m보다 두배나 두껍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고구려 산성형 보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보축성벽이 덕진산성에서만 확인된다는 점도 1차 체성벽을 고구려 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다.³¹⁾

따라서 덕진산성의 초축이 고구려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① 덕진산성에는 토심석축공법으로 서벽부의 1차 성벽 안에서 확인된 형태의 석축성벽이 전구간에 구축되어 있었다.

②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했을 당시에는 고구려 성벽 석축부의 상당부가 붕괴된 상태였다.

③ 신라는 서벽부를 포함한 일부 성벽 잔존구간에는 체성벽을 덧대어 쌓고 붕괴구간은 고구려가 쌓은 석축을 해체하고, 토축부에 기대어 새로운 체성벽과 보축성벽을 구축하였다.

만일 덕진산성이 고구려에 의하여 석축성이 초축되었을 경우 그 축조시점은 언제일까?

덕진산성의 축성시점은 아마도 고구려가 임진강 유역의 방어시스템을 정비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구려는 금강상류지역까지 진출하였다가 6세기 중엽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 공격에

31) 이 글은 축성법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5년 4차 발굴조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동벽 구간의 1차 성벽 뒤채움 구간에서 통일신라 시기의 와편들이 여러점 출토됨으로써 1차성벽이 고구려에 의하여 축성된 성벽이라는 견해는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안성현, 2014, 「덕진산성 축조시기와 목적」, 『坡州 德津山城-1,2次 學術發掘調査』, 中部考古學研究所, 307쪽).

의하여 임진강 이북지역으로 후퇴하게 된다. 고구려는 임진강을 국경으로 하여 이후 120여년 동안 신라와 대치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는 임진강 북안에 방어시설을 재정비하게 된다.

호로고루나 당포성의 사례를 보면 임진강 북안의 고구려 성곽들이 목책에서 석축성으로 수개축되는 시점이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된다. 고구려가 금강 상류까지 진출하던 무렵 임진강에서 한강을 거쳐 금강에 이르는 남-북 교통로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종적인 방어체제가 임진강이 국경이 되면서 임진강의 北岸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의 횡적인 방어체제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덕진산성의 축성시점도 이와 궤를 같이하며 6세기 중엽 이후에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덕진산성에서 출토된 토기편과 기와편을 비롯하여 인접한 동파리 보루에서 출토된 다량의 기와편 역시 이러한 편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둘째는 고구려의 축성기법을 반영한 신라에 의하여 초축되었을 가능성이다. 덕진산성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대부분이 통일신라시기의 유물이라는 점, 그리고 신라는 통일 이후 삼국의 축성기술을 融合하여 새로운 축성법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덕진산성의 석축성은 신라에 의하여 초축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체성벽에서 확인되는 화강편마암 석재와 가공수법, 지대석과 보축성벽 등은 고구려 보다는 신라축성법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서벽부의 1차 성벽 안쪽에서 확인된 부정형 석재를 사용하여 습식공법으로 축조한 성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

물론 중간벽과 외벽을 쌓는 것이 고구려의 축성법의 특징이고, 신라가 이를 반영하여 취약한 서벽구간을 보강하기 위하여 겹벽 형태로 구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신라성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겹벽으로 성벽을 구축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덕진산성을 신라가 초축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① 고구려는 북쪽 소봉을 중심으로 목책과 같은 소규모 방어시설을 운영하였거나 별도의 고구려 방어시설은 없었다.

②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고구려의 축성기술과 신라의 축성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석축산성을 쌓았다.

③ 성벽이 곡간부를 통과하는 서벽부에는 고구려식 축성법을 적극 활용하여 겹벽형태의 성벽을 쌓았다.

④ 체성벽의 석재는 화강편마암을 사용하되, 뒤채움부와 보축성벽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와 고구려식 축성공법으로 마감하였다.

고구려가 초축을 하고 신라가 수축을 하였든, 신라에 의하여 초축이 되었든 신라는 언제 덕진산성을 쌓았을까? 신라가 덕진산성에 석축성벽을 쌓은 시기는 대략 7세기 말에서 8세기초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성덕왕 12년(713)에 개성이 축조되므로, 개성지역으로 진출하는 관문에 해당하는 덕진산성은 최소한 713년 이전에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

진산성에서 확인되는 신라 축성기법의 변화양상은 통일기 이후 신라 축성법의 변화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면13. 덕진산성 1차 성벽(좌), 2차 성벽(중), 운주산성 성벽(우)

또한 덕진산성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엽에 전면적인 개축공사가 시행되었다. 그 증거는 동벽과 남벽, 서벽 구간 모두에서 보축성벽 바깥쪽에 한겹 덧붙여진 새로운 성벽을 통해 확인된다. 개축성벽은 보축성벽 보강토 위에서부터 기존성벽에 덧대어서 성벽을 쌓았으므로, 경사각이 80° 내외인 초축성벽과 달리 60°내외의 완경사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개축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모두 화강암 성돌이며, 크기도 커지고 모양도 사각추 형태로 전면 가공하여 편마암계 성돌을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쌓은 기존 성돌과 확연하게 구별됨으로써 축성법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게 해준다.

IV. 맺음말

덕진산성은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축성방법과 축성주체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축성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성문지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성내 집수시설도 일부만 조사되었을 뿐이다. 성내부의 건물지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덕진산성의 축성법과 축성주체를 밝힌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1·2차 발굴조사가 완료된 시점만 해도 필자는 덕진산성에서 고구려 성곽은 북쪽구릉에만 있었으며, 발굴에서 밝혀진 고구려 유구는 동벽구간에서 노출된 하단 석축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덕진산성 축성법의 핵심이 고구려의 ‘土芯石築工法’이지만 체성벽과 보축성벽의 축조기법은 통일신라의 특징적인 축성법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기술을 받아들인 통일신라시대의 성곽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체성벽 안에서 고구려 양식으로 쌓은 성벽이 확인됨으로써, 덕진산성의 전체 성곽이 고구려에 의하여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초축성벽으

로 추정되는 성벽에 대한 조사도 미진한 상태고, 산성 내에서 고구려 유물은 극소량만 출토되고 있는 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축성법을 중심으로 덕진산성의 중요성과 의미를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표 2 덕진산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와 신라의 축성법 차이

구 분	고구려	통일 신라		비 고
		초 축	개 축	
성돌 재질	현무암	화강편마암	화강암	
가공방법	부정형의 자연 할석	장방형	사각추형 전면가공	
쌓기 방법	습식쌓기, 체성돌쌓기	건식쌓기, 지대석쌓기	건식쌓기, 지대석쌓기	체성벽보강도
축성법	토심석축공법	내탁부+석축+보축	기존성벽에 기대쌓기	편축식
위치	서쪽성벽에서 확인	전체성곽	전체성곽에서 확인	
축성시기	5~6세기	8세기초(713년 이전)	8세기말~9세기 중엽	

첫째, 덕진산성은 고구려와 신라 축성기술의 融合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土芯石築工法’을 근간으로 하는 고구려의 축성기술에 통일신라의 체성벽 축성기술과 보축성벽이 결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축성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삼국시대의 전면 협축식 성벽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편축식 성벽으로의 변화가 석재사용을 줄임으로써 축성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축성기술과의 융합으로 인하여 통일신라 축성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덕진산성에서는 성돌 가공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축성법에 반영되는가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석축성의 핵심 기술은 성돌 가공기술이다. 축성주체와 축성시기에 따라 축성에 사용되는 성돌의 석재와 무게, 가공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덕진산성에서는 통일신라에 의한 초축시 편마암계의 장방형 성돌이 사용된 반면, 개축시에는 대부분 가공된 화강암 성돌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축성에 사용되는 석재는 片巖 → 火成巖으로서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전체 석축성벽이 고구려에 의하여 초축되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4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집수지가 있는 서벽부에서 통일신라의 체성벽으로 추정되는 성벽 안쪽에서 새로운 성벽이 확인되었다. 현무암이나 퇴적암의 부정형 성돌을 사용하여 돌틈 사이를 점토로 충전하며 濕式工法으로 쌓은 축성기법은 지금까지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성곽의 축성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아직 조사가 이루어진 구간은 일부 구간이지만, 전체 석축성벽이 고구려에 의하여 초축되었을 가

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넷째,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초평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구려 성곽을 개축하여 신라식 석축산성을 구축하였다. 4차 조사에서 유구가 고구려 초축성벽으로 확인된 경우 신라는 서벽부를 포함한 일부 고구려 성벽 잔존구간은 고구려 성벽 바깥쪽에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고, 고구려 성벽이 붕괴된 다른 구간은 체성벽을 해체하여 새롭게 쌓으면서 보축성벽을 추가로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는 부정형의 할석으로 마감된 고구려 성벽의 석축부를 해체하고 바닥에 체성벽 성돌보다 큰 지대석을 먼저 놓고 그 위에 편마암계의 성돌을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정연하게 성벽을 쌓았으며 토축부와 면석 사이에는 큼직한 할석 뒤채움돌을 채워 넣었다. 이후 체성벽 외면에서부터 보축성벽 축조지점까지 높이 1m 정도까지 할석이 섞인 점토로 단단하게 다진 후, 보강토 기저부보다 낮은 지점에서부터 보축성벽을 쌓아 체성벽에 연결시키고, 보축성벽 바깥쪽에도 다시 점토로 보강하였다. 보축성벽은 체성벽에 사용된 성돌에 비하여 거칠게 가공된 성돌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덕진산성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무렵 전면적인 개축공사가 시행되었다. 그 증거는 동벽과 남벽 서벽 구간 모두에서 보축성벽 바깥쪽에 한겹 덧붙여진 새로운 성벽을 통해 확인된다. 개축성벽은 보축성벽 보강토 위에서부터 기존 성벽에 덧대어서 성벽을 쌓았다. 개축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모두 화강암 성돌이며, 크기도 커지고 모양도 사각추 형태로 전면 가공하여 편마암계 성돌을 장방형으로 가공하여 쌓은 기존 성돌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처럼 화강암 성돌을 전면 가공하여 성을 구축하는 것은 망이산성, 부소산성 통일신라 성벽구간, 연기 운주산성 등 통일기 이후에 축성되는 신라성에서 주로 확인되는 일반적인 축성기법이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이 종식되고 대내외적 안정기가 지속되는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화강암을 중심으로 한 석재 가공기술이 발달하면서 숙련된 석공이 증가하고, 성곽은 방어적인 기능보다는 아름답고 화려한 외관에 치중하는 권위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섯째, 덕진산성이 다시 한 번 역사의 무대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임진왜란으로 국가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朝鮮時代다.³²⁾ 임진왜란 당시 임진강 유역을 방어하지 못한데 대한 보완책으로 光海君은 덕진산성을 수축하여 통일신라 성벽에 덧붙여 동쪽능선을 따라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외성을 쌓고 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당시 장단부사였던 李曙는 덕진산성에서 반군 700명을 비밀리에 훈련시켜 인조

32) 덕진산성 외성의 축성시기와 축성방법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외성까지 확장하면 논지의 핵심이 분산될 우려가 있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외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반정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다. 국난극복을 위하여 수축한 성이 반정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아이러니 하기는 하지만, 이후 더 이상 수축기록은 없고 병자호란 때가 되면 외성이 거의 퇴락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현존하는 외성은 광해군대에 초축된 성벽이라고 할 수 있다.



도면14. 광해군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외성 상면(좌), 외성 외벽면(중), 외성 단면(우)

덕진산성의 외성 성벽은 이처럼 광해군대 산성 축성기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바깥쪽에는 30-40cm 크기의 부정형 할석을 난층쌓기로 쌓아 석축성벽으로 조성하면서 내부는 흙으로 성토하여 내탁부를 만드는 축성기법은 조선중기의 산성 축성법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성벽 단면을 통하여 확인된 석축부와 내탁부를 교대 교대로 쌓아 올라가며 쌓는 기법이 시기적인 특징인지 덕진산성 외성에서만 확인되는 기법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 이한용(전곡선사박물관) ■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이한용(전곡선사박물관)

- I. 머리말
- II. 덕진산성의 현황
- III.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제정된 문화유산헌장에는 문화재는 그 원형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며, 그 중요성을 널리 교육하고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하며 다섯가지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화유산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문화유산을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도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공유물이자 공공의 자산이다. 넷째,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다섯째,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덕진산성의 보존을 위한 정비·복원과 이를 통한 유적의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은 문화유산헌장에서 천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명확하고 성의 있게 준수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급속한 경제개발의 파고 속에서 문화유산 특히 매장문화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과거를 갖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어떤 유적은 한때 ○○ 아파트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어떤 유적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 밑에 파묻혀 있는 것이 뼈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문화재 보존 현실이다.

그래도 최근 들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 그리고 활용이 관심을 받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문화재를 정비하여 활용한다고 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최근의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를 관광상품으로 포장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문화재의 정비·복원과 활용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첫 번째 사례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유산현장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재 그 자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문화재의 보존원칙을 항상 명심하여 문화재의 정비·복원과 활용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처방과 전시행정에 따른 무가치적인 활용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의 특성과 활용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문화재 활용사업은 짧은 시간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비·복원 및 활용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그 활용가치를 최대화하지 못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덕진산성은 오랫동안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된 버려진 산성이 되어 관리와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속해서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에서야 지뢰가 제거되고 DMZ관광코스의 하나로 개방되어 간간히 방문객의 발길만이 닿을 뿐이다. 덕진산성은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DMZ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스토리텔링화하여 활용 가능한 풍부한 콘텐츠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복원과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유적을 보존하고 활용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덕진산성의 정비·복원과 활용과정에서 어떠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표문의 제목을 굳이 보존과 활용으로 붙인 이유는 유적의 정비·복원작업이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덕진산성의 보존과 활용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기본방향을 충실히 준수하여 진행되기를 바란다.

II. 덕진산성의 현황

파주 덕진산성(이하 덕진산성)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산 1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경기도 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되어 있다. 초평도를 크게 감싸면서 곡류하는 임진강의 북안에 위치하는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성이다. 전체면적은 171,835㎡(내성 길이 약 600m/외성 길이 약 1,200m)이다. 군사시설물들로 인해 내성벽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산 정상부까지 소로가 개설되어 있어 성내부까지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탐방로도 개설되어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덕진산성은 현재 민간인통제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이 제한적이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덕진산성은 해발 70~80m 정도의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동쪽으로 초평도와 과거 임진나루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남쪽으로도 옛 수내나루와 문산읍 장산리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권이 탁월한 곳으로 이곳에 올라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천혜의 요새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전망을 갖추고 있다. 이런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덕진산성 일대는 삼국시대 이래로 현재까지도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덕진산성에서 동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초평도는 약 50만평에 달하는 너른 습지로서 임진강의 유일한 섬이다. 임진강은 초평도를 만나 두 갈래로 갈라졌다가 다시 합류해서 서해로 흘러들어 간다. 물자와 사람의 이동에 매우 중요한 교통로였던 임진강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이곳의 뛰어난 자연조건을 활용해 성을 쌓아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임진강을 도강하는 세력의 방어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덕진산성 주변에는 고구려의 보루로 알려진 동파리 보루를 비롯해 장산진과 임진진 등 조선후기의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해서 축조된 토축성벽을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두 차례 이상 수축하였고 이후 고려~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개·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덕진산성은 우리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이다. 현재도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군사보호구역으로 전략적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덕진산성의 현황은 발굴조사담당기관인 중부고고학연구소의 보고서 및 약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Ⅲ.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덕진산성의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을 크게 1) 학술조사의 기본방향, 2) 종합정비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덕진산성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술조사의 기본방향

덕진산성은 현재 경기도 기념물 218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4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포함해 학술조사가 시행되었지만 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발굴기간도 짧아 덕진산성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며 덕진산성의 사용주체 및 경관 변화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중장기적인 학술조사의 시행은 덕진산성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차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교육 및 체험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유적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의 정비·복원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덕

진산성의 정비·복원 작업에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원활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사적으로의 전환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때도 학술조사의 결과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가사적으로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개발제한 행위 구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관련민원의 해소는 물론 주변지역의 정비복원 과정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덕진산성 주변은 경작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상 여타의 산성유적과 비교해서 본격적인 개발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정비계획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점검하여 유적의 보존과 지역의 개발사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도 학술조사의 결과물들은 주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유적의 발굴조사에 중점을 두는 학술조사와는 별도로 덕진산성과 인근의 관방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 활동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덕진산성 한 곳의 단일유적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덕진산성의 문화재적 가치는 결국 축조당시의 삼국세력간의 역학관계와 방어체계, 교통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바탕에서 더욱 공고히 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향후의 활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는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향후의 국가사적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덕진산성의 전체적인 범위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내성과 관련된 문지나, 출수구, 집수지, 건물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인근지역의 관방유적중 특히 동파리 보루에 대한 기초조사와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덕진산성의 고고·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학술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덕진산성의 정비·복원과 활용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중장기적인 발굴조사와 발굴조사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가 병행될 때 구체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문화재가 학술조사와 정비복원을 거쳐 본격적인 활용의 단계로 접어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특히 산성의 경우는 체계적인 정비의 진행과정이 비교적 오래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정비·복원의 과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효과적인 활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비·복원 및 활용 계획 즉 유적의 종합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변여건과 행정지원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정비·복원과 활용계획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를 정비·복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의 가치를 일반인들이 널리 인식하고 문화재

를 향유하는 기회를 보다 폭 넓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덕진산성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충실한 정비·복원계획과 정비·복원의 단계에 맞춘 맞춤형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거 학술조사와 정비복원 그리고 활용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진행되어야 할 정비·복원 및 활용계획이 포함되는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항목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비·복원 및 활용계획은 덕진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덕진산성의 정비·복원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들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해야할 것은 첫째, 덕진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파주시는 물론 경기도 단위와 국가단위의 개발계획 및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이다. 이를 통해 중복되는 개발계획 수립을 방지하고 상위법과의 충돌로 인해 사업계획의 수행불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지정을 위해서도 관련 계획 및 법규의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면밀한 학술조사 계획의 수립이다. 덕진산성은 현재 경기도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정비·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이다. 국고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순서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덕진산성이 가지는 학술가치가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시·발굴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자문을 거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발굴조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발굴조사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나누어서 유적의 활용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발굴조사가 연중 시행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발굴조사와 정비복원 및 활용단계의 시간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관련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및 지정범위 검토,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검토 등의 후속 작업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가 설정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덕진산성의 유구 정비 복원 계획의 수립이다. 원형 보존할 부분, 정비 복원할 부분, 현상 유지할 부분 등 보존의 원칙과 방향 대상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곽의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복원범위 및 관련예산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마련·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비·복원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 혹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유형별, 연차별, 정비계획을 마련·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비복원이 진행된 후 현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방안도 수립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탐방로 및 긴급사태 대비 동선을 포함한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휴게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의 배치 및 디

자인 계획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제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덕진산성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화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유적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덕진산성은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어 DMZ 관광프로그램의 코스로 일부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DMZ라는 특수한 인문·자연적 환경과 덕진산성의 역사적 콘텐츠를 잘 접목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의 연계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기본 항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덕진산성의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에는 덕진산성의 정비·복원과 활용을 통해 향후에 발생할 학술적인 성과, 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대효과가 제시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 데 필요한 재원과 인력에 대한 세부계획의 검토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산성을 포함하는 성곽유적은 대단위 복원작업이 수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곽유적의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시에는 반드시 복원·정비의 기본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 성곽유적의 정비사업은 국방유적의 복원 및 보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보수 복원된 대부분의 산성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원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지역의 산성만이 가지고 있는 성돌의 형태, 규모, 재질 등 독특한 특징을 잃어버리고, 시공의 편의를 위하여 규격화된 성돌을 사용하여 옛 산성의 보수·정비·복원보다는 새로운 산성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황종현 2007)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유적을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존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현상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야 하며 발굴조사가 완료된 성 내부의 유구들은 현상보존을 위하여 복토하여 보존하는 방법도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적의 진정성과 원형보존을 등한시한 어설픈 복원작업으로 영뚱하게 새로운 성을 쌓는 무의미한 복원시도는 이제 지양되어야 하며 차라리 현상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존과 활용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최종규 2015)

이러한 원칙은 문화재보호법 제3조의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2009년에 시행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서는 학술연구와 고증을 바탕으로 문화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 정비를 하여야 하며 보존계획 수립에 있어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 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2008년에 발표된 『성곽 정비 및 보존 관리 활용 방안 지침마련 연구 보고서』에서는 유적의 진정성과 현실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보존범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성곽의 보존가치와 원

형고증범위까지 고려하여 복원수위를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곽의 시대별, 유형별 사례가 다르므로 다양한 보전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2009년에 발표된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에서도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증 및 학술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보존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하나의 성곽에서도 시대적 지형적 조건에 따라 축조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축성을 지양하고, 수리는 고증에 의하며 보존계획은 원형고증의 정도와 유실상태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김홍곤·최기수 2012)

결국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본원칙은 원형보존에 있음은 여러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 덕진산성 활용의 기본방향

덕진산성의 활용은 기존의 산성들이 복원정비 후 활용되는 사례를 참조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의 활용계획을 수립,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덕진산성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활용의 극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을 정비·복원하는 목적은 우선 유적의 보존에 있다. 하지만 활용계획이 부재한 단순한 유적의 정비·복원사업은 결국 유적의 훼손으로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유적,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유적은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방치된 유적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진산성의 정비복원 사업은 유적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유적의 적극적인 활용 개념은 단순보존 차원을 넘어 다양한 활용방안을 연구 적용함으로써 그저 역사 속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문화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덕진산성은 수십 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관계로 유적과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도 DMZ 관광의 코스로 생태체험, 유적체험, 안보체험 등의 관광프로그램과 접목된 프로그램들이 가끔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덕진산성이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에 적합한 점에 착안하여 향후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흔히 덕진산성과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관광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할 때 단순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과 활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 활용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생명력이 짧은 이벤트성의 활용 프로그램에 머물고 말 것이다.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데는 많은 공적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이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결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많은 사람이 문화재를 관람하고 향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는 적극적인 활용정책이 결국은 문화재 보존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덕진산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덕진산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소위 “지역문화” 진흥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 문화유산, 생활문화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한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역문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한다. 지역문화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해준다. 자기 정체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동질성을 확인함으로써 완성된다. 지역문화는 그 지역민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적 기능 및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창의성과 매력 있는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의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성과 특성 있는 지역문화는 지역주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창의성, 참여와 자주성을 유발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지역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발전 가능한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그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또한 받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숨어있는 잠재력을 발굴하고 그 지역만의 독자성을 정립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역 특수성을 살린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정책이 필요하다. (김민경 2011)

그런 의미에서 파주라고 하는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통합을 위한 지역문화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덕진산성의 보존과 활용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문화관광은 역사 생활 예술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보, 물리적 환경개선, 경제적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신우성 2005)

문화관광을 위한 유효한 자원 개발을 통해 문화자원을 단순히 관광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품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지역사회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관광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활성화된 관광산업은 지역의 정체성을 부각하고 결국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을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고유의 소재

발굴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자원의 가치를 부각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 정비와 볼거리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하기 보다는 마케팅과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 진정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화유산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을 것이다. 문화유산의 보존에 집중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이며 반대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만 집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한다면 결국은 문화유산의 훼손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 하고자 하는 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문화유산은 다른 일반적인 관광자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근시안적인 접근법으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보존되어 온 문화유산의 가치에 기반을 두어 문화재의 파괴나 훼손을 지양하는 체계적인 계획 하에 문화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적절한 보존대책 위에 문화재의 특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콘텐츠를 접목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또 하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문화재의 문화관광자원화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지속성을 갖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결국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파주시 소재 문화유산의 주인은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땅에 어떤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고 있을 때 외부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고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폭넓은 안목이 필요하다. 사람과 문화유산이 균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지역만의 독특함을 살린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결국은 관광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덕진산성은 여러 가지 여건상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덕진산성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덕진산성만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끌어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작업을 통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시에는 여타의 지역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보였던 기존의 정비·복원 및 활용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활용되지 않는 문화재는 결국 잊혀져 가게 되며 잊혀진 문화재는 원형이 훼손되어 마침내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문화재를 방문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문화재보존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덕진산성의 정비·복원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에는 덕진산성이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생태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덕진산성 일대는 오랫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덕진산성은 임진강의 북안에 있는데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임진강은 수변을 중심으로한 자연 생태계가 수려하고 생물 다양성 면에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진강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동식물 등 생태계의 보전은 이 일대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사업과 함께 중요한 당면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덕진산성에서는 초평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초평도는 파주시 장산리 일대를 흐르는 임진강의 대표적인 사주이며 임진강의 유일한 섬이다. 임진강을 따라 흘러오던 엄청난 양의 퇴적물들이 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약 53만여 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초평도는 군부대의 허가를 받은 농민과 어민들만이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원시적인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생태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덕진산성 주변의 초평도 습지와 농경지에는 많은 희귀동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다. 주요한 동식물은 두루미, 흰꼬리수리, 구렁이 등 멸종위기종 1급이 8종 발견되었으며, 독수리, 물수리, 재두루미, 삿,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2급이 22종 등 범정보호종 30여 종과 두루미천남성, 쥐방울덩굴 등 6종의 희귀식물이 관찰될 정도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기수역 습지인 초평도는 DMZ 일원의 생태계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초평도를 포함하여 민간인의 출입통제로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덕진산성은 다른 산성유적들 보다 상대적으로 자연생태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생태환경적 장점을 잘 살려 덕진산성의 정비복원과 활용 과정에는 생태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관광은 생태학(ecology)과 관광(tourism)의 합성어이다. 자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관광의 한 형태로서 풍경을 단순히 보고 즐기던 과거의 관광에서 벗어나 날로 오염되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생태관광의 원칙은 ①환경보전에 공헌할 것. ②지역경제에 문화적·경제적으로 공헌할 것. ③방문객들에게 학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등이다. 날로 고도산업화되는 오늘날 생태관광은 관광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매경닷컴)

생태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자연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객의 생태환경 향유욕구를 충족해 줌과 동시에 생태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이용,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의 개발이 중요한 것이다. 생태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보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관광객 즉 도농 교류를 통해서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다.(이우신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덕진산성의 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몇 가지 기본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덕진산성의 현재 모습 즉 생물다양성과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덕진산성과 주변지역이 가진 고유한 생태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모델을 개발하여 무분별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덕진산성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방문객 관리 프로그램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덕진산성 인근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및 마을 단위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중심형 관광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지역 주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자원 개발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덕진산성의 경우에는 초입에 위치한 해마루촌에서 진행중인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마루촌은 우리의 아픈 상처인 분단이라는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자연환경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덕진산성과 연계된 생태관광프로그램의 거점으로 삼아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양해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웰빙, 로하스 등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삶의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더 다양한 생태관광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개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현장과 잘 어울리는 체험학습이 강화된 체험형 생태관광 자원화의 개발,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미 해마루촌 DMZ 스쿨의 생태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례가 있어 덕진산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확대한다면 차별화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덕진산성은 임진강과 초평도를 아우르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임진강과 덕진산성의 조화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잘 어우러진 매우 특이한 모습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자연유산 속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파주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굳게 닫혀 있던 DMZ 일원을 관광자원화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DMZ 평화공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2010년 파주시는 임진강변의 생태탐방로를 개방했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초평도에서 임진나루까지 3.3km가 확대 개방되었다.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부터 장산리 초평도로 이어지는 6km 정도에 달하는 생태관광코스의 정점이 바로 덕진산성이다. 위에서 제시한 생태관광 자원개발의 기본원칙을 잘 준수하여 관련 계획이 입안, 추진된다면 덕진산성과 그 일대는 생태관광지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4) 안보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덕진산성이 위치한 임진강 일원은 한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마지막으로 당나라와 격전을 벌였던 곳도 임진강 일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한민족 통일국가의 중심지로서 육상물류의 거점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북한과 휴전선으로 마주 보고 있는 분단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인 DMZ와 인근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덕진산성은 안보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안보관광이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영역의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이 대치된 우리의 안보상황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통해 방문객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동시에 특수하게 통제된 지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으로서의 관광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관광이 가능한 지점은 휴전선 인근의 DMZ 및 접경지역에 해당하는데 덕진산성은 안보관광이 가능한 DMZ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과 생태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더해 안보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 가능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임진강 변 인근에 있는 호로그루나 당포성, 은대리성, 무등리보루 등과 함께 삼국쟁패기의 각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안보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아 외성을 확장 수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안보관광자원 개발과정에 있어 조선시대의 국가안보와도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을 몇 가지 관점에서 제시해 보았다. 보존을 염두에 둔 정비·복원의 기본방향은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포함한 학

술조사의 결과에 근거한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덕진산성은 삼국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까지 활용되었던 매우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여 그 학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산성이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포함한 학술조사는 여타의 산성조사 보다 더욱 신중한 조사계획의 수립과 진행이 요구된다.

문화재를 발굴조사하여 정비복원을 하는 목적은 문화재의 가치를 되새기고 문화재를 보다 널리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문화재를 널리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적에 대한 관심은 결국은 유적의 보존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는 우리세대가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보존과 활용을 염두에 둔 학술조사와 정비·복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비·복원을 통해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는 뜻은 결국은 문화재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방법이라는 인식하에 덕진산성 활용의 기본방향을 지역문화자원, 문화관광자원, 생태관광자원, 안보관광자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다.

덕진산성을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나 천혜의 자연조건을 감탄하게 된다. 이곳에 성을 쌓은 사람들의 의지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덕진산성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상황에 의해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성들을 쌓아올렸듯 한발 한발 덕진산성의 비밀을 벗겨나가면서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꾸준히 고민해 나간다면 덕진산성은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향후 진행될 덕진산성의 정비·복원과 활용사업이 유적의 원형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이 글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여기에 더욱 발전된 운영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민경, 2011,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초등학교 미술수업 방안 연구 - 수원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경, 2014,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성곽마을 만들기 연구 - 서울 행촌동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홍곤·최기수, 2012, 성곽유적의 정비복원 대상구간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연구, 한국전통조경학지 30권 1호, 한국전통조경학회.
- 신우성, 2005, 연천군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 전곡리 선사유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포럼 합본호.
- 이시우, 1999, 대전지역 산성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우신, 2012, 접경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마케팅, DMZ 및 접경지역의 브랜드 가치 학술발표회 자료집.
- 최종규, 2015, 용인 할미산성 향후 조사방향과 보존 활용 방안, 용인 할미산성 발굴조사 성과와 보존 활용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 허미형, 2013, 대전리산성 활용을 위한 제언, 연천 대전리산성 학술회의 자료집.
- 황종현, 2007, 산성의 정비복원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보고서

-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파주시·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파주덕진산성 1·2차 발굴조사 보고서』.
- 파주시·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3차 발굴 약보고서」.
- 파주시·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4차 발굴 약보고서」.

자료

- 파주시·중부고고학연구소, 2015, 파주 덕진산성 학술발굴조사 사적분과 회의 자료집.
- 문화재청, 2003. 9, 「유적 정비계획 수립·추진 관련 고려사항」.
- 문화재청 예규 제132호, 2014.3.11. 개정,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 문화재청 훈령 제316호, 2014.3.11. 일부개정,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웹사이트

-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
-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ICOMOS 한국위원회. <http://www.icomos-korea.or.kr>
-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유산헌장 [文化遺産憲章]
- 매경닷컴

토론문

■ 최종택(고려대학교) ■

■ 조순흠(중원문화재연구원) ■

토론문

최종택(고려대학교)

과주 덕진산성은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대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으며, 이후 몇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성의 구조와 축조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최근 중부고고학연구소에 의해 실시된 연차조사를 통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곽의 구조가 복잡하고,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탓에 여전히 성곽의 구조와 축조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이번의 학술회의도 그러한 맥락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해된다. 토론자는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과주 덕진산성’과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토론을 부탁받은바 발표 순서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기로 한다.

‘삼국시대 임진강유역의 관방체계와 덕진산성’은 예성강유역에서 한강유역에 이르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로에 대해 검토한 후 삼국시대 이후 임진강유역 관방체계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관방체계 안에서 덕진산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발표자는 삼국시대 교통로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의 발표도 기존의 연구 성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토론자도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관미성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듯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논의가 있어왔지만 과주 오두산성, 강화 교동도, 임진강 하구의 북안지역 등 여러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고고자료로 관미성이 위치를 특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부탁드린다.

둘째, 발표자는 임진강유역 백제의 관방체계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는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4세기 후반에는 임진강유역과 예성강유역에 백제의 관방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도 황주에서 출토된 4세기 중엽~4세기 후반경의 백제토기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최종택 1990), 황주는 재령강유역에 해당되는 바 이 시기 재령강유역에도 백제의 관방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셋째, 발표자는 475년 고구려의 한성공함 이후 고구려는 임진강 이남에 방어체계를 갖추었으며, 당시 임진강이 고구려의 남쪽 국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발표문 96쪽). 그런데, 최근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통해 475년 한성공함이후 고구려 군은 몽촌토성에 주둔하였으며, 안성, 진천, 청원, 대전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임진강으로 보기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475년 이후 한강 이남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

의 견해도 추가도 부탁드립니다.

넷째, 7세기 신라의 임진강유역 관방은 임진강 남안 배후의 구릉에 축조되어 있으며, 이는 한북 정맥을 관통하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로의 방어와 더불어 임진강의 도하를 저지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진강변의 관방이 중요할 것인데, 임진강 남안에 신라의 관방이 축조되지 않은데 대한 추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발표자는 덕진산성과 주변지역을 관미성과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다. 즉, 덕진산성 일대는 임진강 북안에서 한강 하구로 나갈 수 있는 내륙 수로의 기항지이며, 파주 오두산성, 강화 교동도, 예성강 하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고구려나 백제가 한강 하구를 놓고 쟁패하는 과정에서 덕진산성이 군사기지로 주목될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발표자도 지적한 것처럼 덕진산성에서는 백제의 유물이나 시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고구려의 경우에도 6세기 이후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서 발표자의 견해를 뒷받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발표자는 666년 이후 덕진산성은 신라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나당전쟁 초기 고구려의 부흥군과 신라가 연합하여 황해도 일대로 진출할 당시 덕진산성이 신라에 의해 수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덕진산성 성벽의 구조와 축조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앞의 주장과 관련한 발표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에서는 덕진산성의 학술조사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덕진산성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발표자는 오랫동안 전곡리선사유적의 조사,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한 여러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여왔으며, 본 발표문에도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토론자도 발표내용에 동의하는바 별도의 질의나 토론할 사항은 없으나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자는 역사유적의 보존과 정비에서 원형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매우 지당한 의견이다. 특히 성곽의 보존과 정비에 있어서 원형보존과 정비복원은 많은 경우 가치의 충돌을 겪는데, 덕진산성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덕진산성과 같이 성곽이 오랜 기간 여러 주체에 의해 사용된 경우 어느 시기의 유구를 복원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럴 경우 성벽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발굴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여 전시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파주 덕진산성의 축조 연대와 의미」 및 「德津山城 築城法 檢討」에 대한 토론문

조순흠(중원문화재연구원)

덕진산성은 임진강 북안의 해발 65m 정도의 야트막한 산에 위치하고 있다.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성은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봉우리를 둘러싼 마안형의 산성이며, 외성은 내성의 북동쪽 회절부에서 동쪽으로 마치 활처럼 이어진 능선의 정상부에 축조되었다. 임진강 하류의 주요한 남-북 교통로를 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덕진산성에 대한 조사는 1992년과 1999년 광역지표조사가 실시된 이래, 2004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밀지표조사와 일부 구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덕진산성의 대략적인 현황과 함께 고구려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중부고고학연구소에서 연차적으로 5차례의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발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유구는 서남쪽, 서북쪽, 동북쪽 회절부의 치성과 서쪽 성벽 내측의 집수시설, 외성 문지 그리고 성내의 건물지와 주거지 등이 확인되었다.

안성현 선생님과 심광주 선생님 두 분의 발표자는 5차례의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덕진산성의 축조연대와 주체 등에 대하여 각각의 근거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두 분은 지금까지 고대산성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산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곽연구에 많은 연구업적을 쌓으신 분들로 각각의 발표문은 비교적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분의 발표문은 대체적으로 덕진산성의 초축은 고구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듯 하나, 고구려가 축조한 성벽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점에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발표문은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본 토론자는 두 분의 논지 중 어느 논지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현장을 실견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각각의 발표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문시되는 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두 분에게 공통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먼저 안성현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쪽 곡부에서 확인된 성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사단에서는 1차성벽(1차 수축성벽)의 내측에서 확인된 성벽에 대하여 조사 위치와 성돌의 치석방법 및 석축 방법 등을 근거로 선대 성벽이라 칭하고 고구려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벽은 초축 당시에는 토성이었으며, 후술하겠지만 서쪽 중앙의 곡부는 ㄱ자 형태로 절개한 후 석축으로 개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덕진산

성에 확인된 초축성벽은 1차 수축성벽에 비하여 축조수법이 조잡하지만 적심의 두께가 최소 250cm 이상이라는 점과 상부에는 수축흔이 확연하다는 점, 그리고 1차 수축성벽이 통일신라시대에 수축되었다는 점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성벽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였는데, 1차 수축성벽의 안쪽에서 확인된 선대성벽이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지, 또한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라면 토축부(토성)과의 관계는 서술한 바와 같이 토성이 선축된 후 후대에 토성을 절개한 후 곡부에 대하여 석축으로 개축한 것인지에 대하여 약간의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안식각은 사전적 의미로 “흙을 자연상태로 쌓아 올렸을 때 그 경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논지 상 토성이나 고총고분과 같이 인공이 가미된 토목 건축물에서는 안식각의 경사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표자께서 덕진산성의 성벽은 고구려에 의해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외측에 외피토루가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듯 합니다. 또한 초축 당시 외피토루가 축조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으로 신금성, 구랑동 유적, 정장리토성 등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는 지금까지 삼국시대 토성의 경우 중심토루의 내외측에 내·외피 토루를 축조하여 중심토루를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 또한 토성에서 외피토루가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발표자께서 비교자료로 제시한 토성들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축조된 토성들입니다. 혹시 삼국시대에 축조된 토성으로서 외피토루가 축조되지 않은 예가 있다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셋째, 용어의 문제입니다. 1차 수축성벽의 외측에서 확인되고 있는 성벽 구조물에 대하여 기단보축과 보축성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단보축이란 용어는 신라산성에서 체성벽의 하단부에 삼각형 또는 부채꼴 형태로 덧붙이는 구조물을 일컫고 있습니다. 1차 수축성벽 외측 하단부의 구조물은 기단보축이 분명하나, 가장 외측의 구조물은 후대에 가축 또는 수축되어 성벽으로 기능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이 구조물을 보축성벽으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완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구의동보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구의동보루에 대하여 2페이지 이상을 할애하여 초축과 수축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의동보루의 분석이 덕진산성의 변화 상 또는 고구려 성곽의 경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심광주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고구려산성의 대표적인 축성공법으로 ‘토심석축공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덕진산성의 초축이 고구려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이 필요하다. 첫째, 덕진산성에는 토심석축공법으로 서벽부의 1차 성벽 안쪽에서 확인된 형태의 석축성벽이 전 구간에 구축되어 있었다. 둘째, 신라가 이 지역으로 진출했을 당시에는 고구려 성벽 석축부의 상당부가 붕괴된 상태였다. 셋째, 신라는 서벽부를 포함한 일부 성벽 잔존구간에는 체성벽을 덧대어 쌓고 붕괴구간은 고구려가 쌓은 석축을 해체하고, 토

축부에 기대어 새로운 체성벽과 보축성벽을 구축하였다.”라 하였습니다.

토론자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아무리 붕괴가 심하다 할지라도 일부구간에 있어서는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구간에 대하여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석축부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그 흔적이 일부나마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것입니다만, 덕진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토심석축공법이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고구려의 축성기술을 받아들여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 의해 축성된 성곽 중에서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된 성곽의 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치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덕진산성에서는 서남, 서북, 동북쪽의 능선과 이어지는 회절부에서 각각 1개소씩의 치가 조사되었습니다. 치의 기능에 대하여 “규모가 협소하여 치의 원래 기능 중 하나인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가 없는 구조로 덕진산성의 치는 방어력을 높이기보다는 체성벽을 보강하여 성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축 성벽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외부가 급경사를 이루고 있거나 곡부를 통과하는 성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산성에서 치가 설치된 구간은 다른 성벽 구간에 비하여 비교적 산성 외측으로 완만하게 이어지는 능선에 배치되어 있어 체성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였다고 하기에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1차 보축성벽에 사용된 성돌의 문제입니다. 1차 보축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1차 성벽에 사용된 성돌과 달리 현무암이나 퇴적암으로 부정형의 석재가 사용되었으며, 또한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형의 석재를 사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라산성에서는 장방형으로 채석된 석재는 대부분 체성 축조에 사용되고, 보축성벽의 경우 체성벽에 사용된 성돌과 달리 부정형의 석재가 많으며, 실제 지상으로 노출되는 부분 또한 동일한 석재를 사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1차 기단보축에 사용된 성돌은 서쪽 곡부에서 확인된 선대성벽에 사용된 성돌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1차 기단보축에 사용된 성돌이 고구려의 초축성벽에 사용된 성돌을 재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1차 보축성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신라의 보축성벽은 체성벽과 동일 높이에서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산성에서 확인된 1차 보축성벽은 1차 성벽의 기저부에서 인위적으로 기반암을 L자상으로 굴착한 후 낮은 위치로부터 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조방법은 호로고루와 당포성의 고구려 평지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특징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호로고루와 당포성, 덕진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러한 기단보축의 축조 주체는 신라인지 고구려인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동벽구간에서 겹벽식의 기단보축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3-Tr 3과 14-Tr 1 및 14-Tr 5에서 확인되는 1차 보축성벽의 외측에서 확인되는 석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토론자가 판

단하기에 이 석렬은 겹벽식 구조의 기단보축이 아니라 기단보축 외부에 축조된 2차 성벽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분 발표자께 공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산성의 초축에 대하여 두 분 발표자의 견해에서 가장 이견이 보이고 있는 점은 초축성벽이 과연 토성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토심석축성으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덕진산성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디만,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분 발표자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토론자가 두 분의 논지를 이해하기로는 안성현 선생님께서는 초축은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토성이며, 토성 외측의 1차 성벽은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토성의 외측을 절개하고 석축을 부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심광주 선생님께서는 고구려와 통일신라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시고 있으나, 논지의 전개상으로 보아 고구려에 의해 토심석축공법으로 초축이 이루어지고, 이후 통일신라가 고구려의 축성기법을 받아들여 수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차 성벽의 내측에 존재하고 있는 토축부가 별도의 토성으로 기능하였느냐, 아니면, 석축 성벽의 내부 토축부로 볼 것인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2-Tr 2와 관련입니다. 토론자는 12-Tr 2에서 확인되고 있는 성벽 단면 구조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덕진산성의 초축성벽이 외피토루가 부가되지 않은 토성으로 축조되었느냐, 아니면 초축 당시부터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되었느냐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심석축공법에서 석축부와 토축부의 축조에 있어 공정상으로 선후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시에 축조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시한 사진 1과 2의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진에 표시된 부분에서는 1차 성벽 기저부의 적심석 내측 토축부(토성)의 하부에 놓여진 석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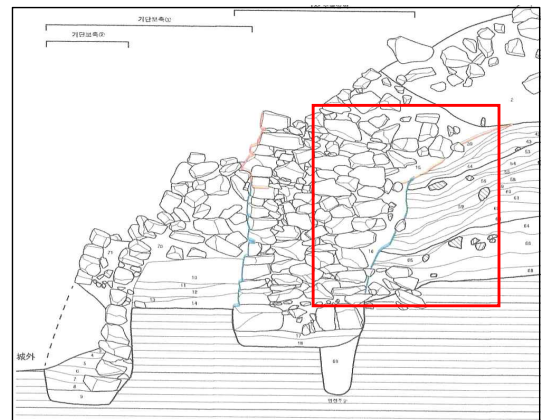
사진 2.

석재는 잔존 상태로 보아 기반암을 L자형으로 정지한 후 토축부(토성)을 축조하기 이전에 놓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두 분 발표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각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토축부의 절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사단에서 제시한 1차 보고서의 도면과 사진에서는 모두 토축부(토성)의 외측을 절개한 후 1차 성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성현 선생님께서는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초축의 토성의 외측을 절개한 후 통일신라시대에 1차 성벽을 축조하여 토성 절개선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듯하며, 심광주 선생님은 토심 석축공법에서 공정상 토축부를 먼저 축조하고 이어 석축부를 축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도면 1과 2, 및 사진 3, 4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면 1과 2로 볼 때 토축부와 석축부의 경계지점은 분명하게 구분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3, 4를 보면 토축부와 석축부의 경계지점이 명확하게 절개된 것인지 아니면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에 축조된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토론자가 현장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토론자가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토성의 절개선 또는 석축부와 토축부의 구분선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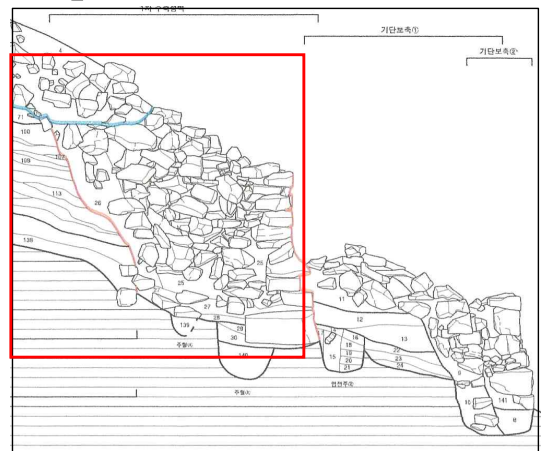
사진 3.



도면 1



사진 4.



도면 2

특히 사진 4를 보면 1차 성벽의 내측 적심시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토축부에 가까운 부분은 비교적 큰 석재를 사용하여 채운 반면 그 바깥은 이에 비해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적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의 석재는 마치 토축부와 물려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 후대에 초축된 토성의 외측면을 절개하고 후대에 1차 성벽을 축조하였다면 토성의 절개면과 1차 성벽의 적심석 사이는 아무리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할지라도 이질적인 성분의 흠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하였을 경우에도 물론 후대에 붕괴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토축부와 석축부의 경계는 일정한 경사각을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1차 성벽의 외측과 기단보축 사이의 하단부 점토다짐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이 점토다짐층을 1차 성벽의 기저부 보강토로 판단하고 성벽의 축조공정은 “1차 수축성벽+보강토 → 2차 수축성벽 → 기단보축① → 기단보축② → 3차 수축성벽으로 볼 수 있다.”라 하였습니다. 안성현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의 점토다짐층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보고서의 내용과 크게 견해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혹 다른 의견이 계시면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심광주 선생님께서는 “보축성벽의 축성방법은 점토 모르타르를 사용하면서 습식쌓기로 쌓았다. 체성벽은 정연하게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여 건식으로 쌓는데 비하여, 보축성벽은 부정형의 석재로 쌓으면서 사이사이의 빈틈을 점토모르타르로 충전하면서 쌓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보축성벽의 내부는 점토다짐을 하고, 일정한 높이까지는 표면만 한겹의 석축쌓기로 마감하여, 보축성벽의 내부까지 석축으로 채우는 일반적인 신라 보축성벽과는 차이가 있다.”라 하였으며, “또한 조사단에서는 석축체성벽 보강토를 기존 토성의 관측구간 일부로 추정하고 있지만, 체성벽 보강토 단면상에 체성벽 기저부를 놓기 위한 굴광선이 확인되지 않고, 보강토가 체성벽에 맞물려 있는 양상임을 고려하면, 체성벽 보강토는 체성벽 축조 이후에 덧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라 하여 1차 성벽 하단부와 기단보축 사이의 점토다짐층을 보축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점토다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론자는 공정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단보축은 1차 성벽의 조성면에서 약 1.2m 밖에 보강토와 기반암을 약 1m 정도 굴착한 후 기저부를 조성한 후 단면 삼각형의 형태로 축조하고 있습니다. 기반암을 굴착하여 조성하는 방법은 호로고루와 당포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있으나, 1차 성벽 하부의 점토다짐층은 도면에서 제시된 상태로 볼 때 공정상 기단보축을 축조하면서 동시에 내부를 다짐한 것이 아니라 기단보축의 기저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반암과 함께 다짐층의 외측을 절개한 후 기단보축을 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축조 공정이라면 1차 성벽과 1차 보축성벽이 동시에 축조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심광주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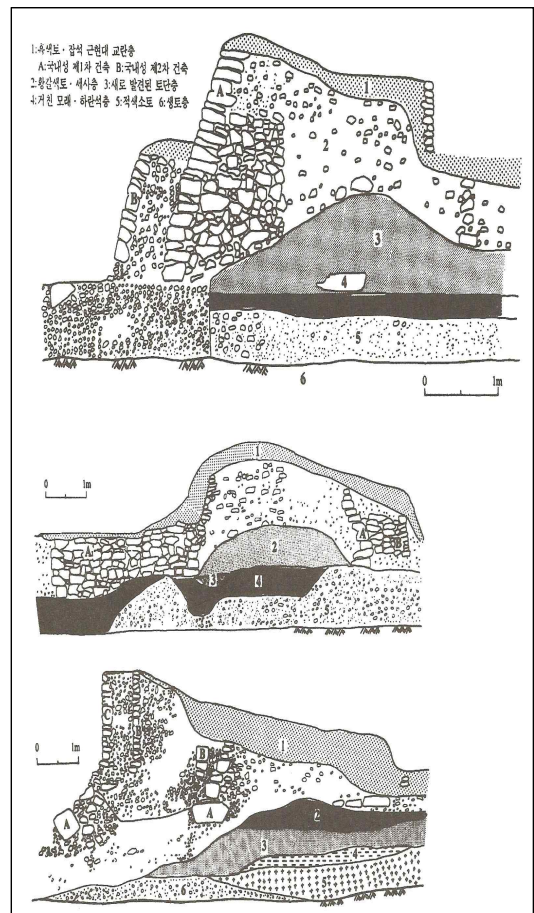
사진 6

한편 사진 5와 6을 보면 이 점토다짐층과 1차 성벽의 사이는 희미하지만 삼각형의 형태로 토층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차 성벽을 축조하기 위한 굴착흔이라면 이 점토다짐층은 1차 성벽이 축조되지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셨던 안성현 선생님께서 보완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토심석축공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토심석축공법에 대하여 두 분 발표자께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안성현 선생님은 외부의 석축성벽을 수축으로 보시는 반면 심광주 선생님은 석축부와 토축부를 동시에 축조하되 공성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극명하게 갈라져 안성현 선생님은 토심석축공법이 토성과 석성의 단점이 결합된 형태라 하였으며, 심광주 선생님은 반대로 토성과 석성의 장점이 결합된 형태라 하였습니다.

두 발표자의 견해에서 공통되는 점은 수축이든 공성상의 문제이든 간에 석축부와 토축부는 성벽을 절개 조사하였을 때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인 듯합니다.

참고로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국내성의 성벽 단면도를 보면 토축부와 석축부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어 토론자는 토심석축공법에서 석축부와 토축부가 동시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견해



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성의 축조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성현 선생님은 외성의 축조시점에 대하여 통일신라시대에 가축된 견해이며, 심광주 선생님은 조선시대 광해군대에 초축된 견해를 각각 피력하였다. 향후 외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벽에 대하여 이렇게 큰 축조시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각의 연구자가 유구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두 분 발표자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파주 덕진산성 학술대회 토론 요약문

심정보 : 오늘 2015년 중부고고학연구소 학술대회로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박현준선생님이 발굴조사한 성과를 발표해주셨고요, 그리고 안성현선생님이 덕진산성의 축조연대와 의미를, 서영일선생님이 삼국시대 임진강 유역 관방체계와 덕진산성, 그리고 심광주선생님이 덕진산성의 축성법 검토, 이한용선생님이 덕진산성 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굴조사와 함께 네분은 잘 아시고,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실 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의 최종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중원문화재연구원에 조순흠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두분의 활약에 기대가 많습니다. 우선 발표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덕진산성의 축조연대와 의미에 대해서 안성현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순흠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조순흠 : 안녕하십니까. 중원문화재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조순흠입니다. 그 제가 토론을 받게 안성현선생님의 축조연대와 의미와 심광주선생님의 덕진산성의 축성법검토였는데요. 집안에 상사가 있어서 토론문을 미리 보내드리지 못해서 인쇄물로 나오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구요. 발표문을 받아보고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같은 산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론을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개별토론으로 각각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나 논지전개로 갔을 때, 개별질문들과 함께 두 분께 공통적인 질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각 선생님들의 논지를 읽으면서 제가 약간 의심스럽게 생각이 들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두분에게 공통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진산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임진강 구간에 있는 나지막한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성은 뭐 두 개의 봉우리를 감싸는 마안형의 형태이고, 외성은 동북쪽 모서리 회절부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축성된 외성이 되겠습니다. 1992년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실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밝혀진 것은 중부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1차에서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내용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아까 조사성과에서 보셨듯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고구려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그런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성현선생님과 심광주선생님 두 분은 5차례의 조사성과를 가지고 논지를 전개하고 계신데, 두 분 모두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안성현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서쪽 곡부에서 확인된 성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사단에서는 1차성벽(1차 수축성벽)의 내측에서 확인된 성벽에 대하여 조사 위치와 성돌의 치석방법 및 석축 방법 등을 근거로 선대성벽이라 칭하고 고구려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안성현선생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벽의 선후관계 및 성격과 구조를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안쪽에서 확인된 선대성벽이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지, 또한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이라면 토축부(토성)과의 관계는 서술한 바와 같이 토성이 선축된 후 후대에 토성을 절개한 후 곡부에 대하여 석축으로 개축한 것인지에 대하여 약간의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안식각은 사전적 의미로 “흙을 자연상태로 쌓아 올렸을 때 그 경사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경사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논지 상 토성이나 고총고분과 같이 인공이 가미된 토목건축물에서는 안식각의 경사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론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발표자께서 덕진산성의 성벽은 고구려에 의해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외측에 외피토루가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런데 토론자는 지금까지 삼국시대 토성의 경우 중심토루의 내외측에 내·외피 토루를 축조하여 중심토루를 보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자 또한 토성에서 외피토루가 축조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발표자께서 비교자료로 제시한 토성들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축조된 토성들입니다. 혹시 삼국시대에 축조된 토성으로서 외피토루가 축조되지 않은 예가 있다면 알려주기 바랍니다.

셋째, 용어의 문제입니다. 1차 수축성벽의 외측에서 확인되고 있는 성벽 구조물에 대하여 기단보축과 보축성벽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구조물을 보축성벽으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완설명 부탁드립니다.

넷째, 구의동보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구의동보루에 대하여 2페이지 이상을 할애하여 초축과 수축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의동보루의 분석이 덕진산성의 변화 상 또는 고구려 성곽의 경관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정보 : 예,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면서 많았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하면서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우선, 토축성벽, 안식각, 삼국시대의 외피토루 없는 사례, 보축성벽의 성격, 구의동보루까지. 중요한 사안에 한해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안성현 :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드리면, 토축성벽이라고 연천 호로고루나 당포성에서 확인되는 성벽과 축조법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축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2012년 트렌치조사를 통해서 절개를 하였는데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축이 내성을 두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를 했는데요. 동시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축된 토성

을 절개하고 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논의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안식각인데요. 안식각이고 내부토랑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토성을 조사하다보면 기단석 상부까지 수축흔이 나타납니다. 그렇게되면 외피토루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구요. 여러사례에서 기단석 상부까지만 수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은 토성이 곧 외피토루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외피토루를 쌓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여드렸듯이 거의 토성벽 수직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안식각이상으로 쌓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수축관측토성인데 외피토루가 없는 경우. 양산 선재리하고 인납토성이 있습니다. 인납토성의 성벽은 6세기대에 수축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하지만 토층상에서 가축된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납토성을 4세기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상으로 보면 6세기대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축성벽 문제인데요. 중요한건 성벽의 성격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신라시대보축성벽이란 용어는 제가 임시로 만든거구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축과 성벽이 같이 결합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단보축은 성벽의 1/3이나 1/2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보축성벽은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편의상 구분한 것입니다. 지금 잔존부 성벽의 2/3부분까지 올라가고 막아버립니다. 연천 대전리나 이성산성, 옥수산성도 똑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상으로 들여쌓았다가 6~7단 높여버립니다. 그것은 심광주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외관, 경관, 통일신라시대에 경기도지역에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벽으로는 보강이 힘들 것 같고 보축성벽으로 성벽을 보강하고 경관도 같이 생각하지 않았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의동보루와의 문제인데요.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성곽전공은 성벽에만 매몰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게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곽이 몇천년 동안 사용되면 초축당시 구조물, 수축당시 구조물로 나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시기에 걸쳐 사용한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고, 덕진산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존하는 대지가 고구려때 완성되었다고 알려져왔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결과 지속적으로 대지조성이 이루어졌고 조선시대에 돼서야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의동보루도 구조상 상부로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 층마다 아궁이나 구들이 확인되며, 각 유구가 존재하는 층이 각 유구를 사용하던 시기의 생활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했고, 제가 구의동 보루를 선택했던 이유는 규모가 작고 발굴이 완료되어서 내부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에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덕진산성도 시기별로 따라서 경관이 달라졌듯이 구의동보루도 시기별로 경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보 : 네. 실질적으로 서벽에서 나타난 1차수축성벽안에 있는 초축성벽에 대한 성격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처음 확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트렌치 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만 초축부에 대한 조사가 상세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지면 이 초

축성벽에 대한 성격이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안식각에 대해서 말해주셨는데요. 안식각은 그냥 흙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성토했을 때를 지칭합니다. 이 안식각을 극복한 것이 판축입니다. 판축으로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것입니다. 이 판축으로 수직으로 쌓아서 올렸는데, 역공법을 사용하면 자연토로 올릴 때보다 세배로 올릴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이라고하면 안식각이 28°나 35°도라면 적이 그냥 뛰어올라오겠죠. 그러면 방어가 안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식각을 극복한 것이 판축기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처음에는 토성축조할 때 기저부에 석렬을 배열하지 않았다가, 기저부가 물에 의해서 유실되기 때문에 석렬을 배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기저부를 보강을 하는 그런 시설이 부가적으로 배치되게 되죠. 지금 1차치성이라고 대개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수직기둥흙이죠. 호로고루나 당포성에서 이 수직기둥흙이 나왔는데, 보통 그 간격이 1.2m라고 합니다. 공산성에서 확인된 수직기둥흙 간격은 1.8m입니다. 몽촌토성 목책기둥간격이 1.8m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아직까지 수직기둥흙이 확인이 안되었는데, 고려시대에 다시 수직기둥흙이 등장합니다. 이 덕진산성에서 나타난 수직기둥흙이 어느시대냐가 규명이 되어야만 이 덕진산성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영일선생님이 삼국시대 임진강유역의 관방체계와 덕진산성에 대해서 발표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 최종택선생님이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최종택 : 이런 저런 서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6개인데요. 사실 관방체계와 교통로부분은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아도 한없이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 느낌에는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가볍게 발표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특별히 세부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아니라고보고 질문 몇 개를 적어왔습니다.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발표중에서도 부연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구요.

먼저 백제의 임진강유역을 예성강에서 한강까지의 한방체계를 고구려, 백제, 신라순으로 시간에 따라 설명하셨는데요. 발표자는 임진강유역 백제의 관방체계가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는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4세기 후반에는 임진강유역과 예성강유역에 백제의 관방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도 황주에서 출토된 4세기 중엽~4세기 후반경의 백제토기가 서울대학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최종택 1990), 황주는 재령강유역에 해당되는 바 이 시기 재령강유역에도 백제의 관방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발표자는 475년 고구려의 한성공함 이후 고구려는 임진강 이남에 방어체계를 갖추었으며, 당시 임진강이 고구려의 남쪽 국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발표문 96쪽). 그런데, 최근의 조사 및 연구 성과를 통해 475년 한성공함이후 고구려 군은 몽촌토성에 주둔하였으며, 안성, 진천, 청원, 대전까지 진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임진장으로 보기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475년 이후와 521년 사이에 고구려가 점령지인, 한성백제지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썼을 것인가와 521년 이후에 아차산일대를 내준 이후에 고구려와 신라의 쟁패가 어떻게 되었을지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난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뒤에 질문들을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일 : 최종택선생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인용문을 인용해가면서 준비했어야 했는데 급하게 준비함으로인해서 핵심만 추리다보니 징검다리식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황주의 백제토기와, 신계지역은 수곡성이 있던 곳으로 문헌상으로 예성강 이서지역에 백제관방시설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경이라는 것이 선이라는 개념보다는 거점을 따라가서 적과 대치하기 보다는 거점을 먼저 점령하는 변화상입의 형태로 보입니다.

황주 백제토기 출토지역이라는 주소를 북한자료와 비교해보니 나오지 않는 것으로보아, 황주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생각되며, 어쨌든 대동강유역까지 백제군이 올라갔던 시기를 근초고왕대로 시 설정하였던 것입니다. 고구려군이 아래까지 내려갔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주방어선을 설정한 백제군이 전초부대를 전진시키면서 시계지역이나 황주지역에서 백제토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라고 보는데. 그 토기가 출토된 유적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475년이후의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고구려군의 핵심은 아차산보루군입니다. 아차산보루군이 단순히 아차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택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의동부터 쪽 밀집방어형태로 있는데, 우리가 구분을 안하고 있지만 보루와 성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성이라는 것이 순전히 군사적 방어라는 데에만 목적이 있고, 아니면 군사적 방어나 함께 행정지배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아차산보루라는 것들은 독특한 것들인데, 이는 순전히 군사적 목적으로만 가동되고 있는데, 더 검토될 필요가 있요가 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것은 지배를 할 백성이 없는 곳에서 대규모 군사적 시설들을 건설할 때, 이 성을 만드는 관리나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작은 여러개의 거점들을 만들어서 밀집시켜서 계속 소규모의 부대를 파견해가면서 거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이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초기에 아차산이 전방이 되고, 후방에 군사적 기지들이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서 계속 전진하게 될 수 있겠죠. 아차산이 그런 흔적이 아닌가 봅니다.

국경들이 전진했다가 빠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아갔다다 다시 정비되면서 방어선이 임진장으로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475년에서부터 7세기까지 200년가량 고구려가 마지막으로

지키려고했던 것은 임진강선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에 따라 변하였던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고구려가 어떻게 지배했을까 하는 것인데, 고구려는 행정적 지배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라와 비교했을 때, 신라는 성을 만들고 그 주변에 고분과 주거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신라가 군사적으로 진출한 모든 유적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분, 마을유적에서 모두 신라토기가 반출되면서 일체화된 상황이 나타나는데, 고구려유적은 고구려군사유적이 나타나고 일부의 소수 고분유적이 확인되고, 주거지에서는 고구려토기가 반출되지 않는 특징이 보입니다. 이는 일부 재지계의 수장층을 중심으로해서 간접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보여 신라처럼 광역적인 지배로 보기에 어렵지 않나 합니다.

심정보 : 고맙습니다. 삼국을 보면 고구려나 백제는 점령했을 때 대체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신라는 항상 주둔지를 설치합니다. 나당전쟁때 김춘추가 당태종과 약속을 할 때, 김춘추는 백제만 멸망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고구려 이남땅을 다 주겠다. 이때 신라가 백제의 북쪽경계를 어디로 봤느냐 바로 임진강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나당전쟁에서 임진강이북에서도 당나라군을 격퇴시키는데 신라는 임진강까지만 가고 경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신라가 인식한 백제의 북쪽경계는 임진강이었습니다. 대체로 발표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광주선생님이 덕진산성 축성법 검토에 대해서 발표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순흠 선생님이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조순흠 :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광주선생님께서 덕진산성의 대표적인 축성공법으로 '토심석축공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모든 성벽은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석축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통일신라시대에 1차 수축을 했다해도 고구려에서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를 하였다면, 하부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야하는데 혹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덕진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토심석축공법이 신라가 이 지역에 진출한 이후 고구려의 축성 기술을 받아들여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 의해 축성된 성곽 중에서 토심석축공법으로 축조된 성곽의 예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1차 보축성벽의 성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1차 보축 성벽의 성돌이 서쪽에서 확인된 초축성벽에서 사용된 성돌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고구려에서 사용된 성돌을 보축성벽을 쌓는데 재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1차 보축성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신라의 보축성벽은 체성

벽과 동일 높이에서 축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산성에서 확인된 1차 보축성벽은 1차 성벽의 기저부에서 인위적으로 기반암을 L자상으로 굴착한 후 낮은 위치로부터 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조방법은 호로그루와 당포성의 고구려 평지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특징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호로그루와 당포성, 덕진산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러한 기단보축의 축조 주체는 신라인지 고구려인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격벽식 구조는 발표상에서 보여주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심정보 : 예.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심광주 : 일단 잔존하는 체성벽 중에서 고구려혼적이 남아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벽에서 확인된 네 벽이 초축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기간 남아 있는데, 그 구간이 잘 남아있어서 고구려의 체성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구요. 두 번째는 체성벽의 두께가 1.6m정도입니다. 남한의 고구려성벽들을 보며는 아차산 4보루를 포함해서 둘 한단이나 두단 정도 해서, 돌의 석축부가 80cm정도가 기본입니다. 근데 1.6m정도 되는 것은 두배에 달하고 있고, 석축부 단면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래 토축부하고 맞물려있는 석재층이 있고,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축벽의 중간쯤에 어디선가 돌아가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을 더 진행하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두번째 질문이 고구려성벽의 융합과정을 얘기하셨는데요. 통일기 이후가 되며는 고구려성벽의 양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기의 성벽이 다 편축화됩니다. 결국은 통일기 중기이후에 만들어지는 편축식성벽들의 기본적인 근원은 토심석축공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번째 수축식 보축성벽과 관련해서 수축식 고구려체성벽을 해체하고 나온 석재를 활용했는가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탁견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원래 수축식 성벽에 성돌하고 보축성벽에 성돌하고 거의 같은 재질에, 같은 가공 수법이 드러나고 있고 쌓는 방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럴 개연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통일신라가 고구려의 축성기법을 받아들이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축벽을 재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주신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축성벽 자체가 일반적인 신라 체성벽과 달리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아래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보축성벽은 신라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보축기법 역시 고구려의 요소라고 보구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 말하자면, 아까 안식각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이러한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 토목공학적인 기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 현대공법으로 제방을 쌓더라도 1:1.5를 넘지 않는 33°이상을 넘지 않게 붕괴되지 않게 쌓습니다. 쌓을 순 있겠죠. 관측을 하면 쌓는 기법이지 유지하는 기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쌓아서 관측을 해서 높이쌓았다 해서 유지하기위해서는 그 바깥쪽 경사가 안식각 내로 뭔가 보강시설을 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쌓

은 돌을 유지시킬 수 있는 보강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대식으로 말하면 보강토 옹벽이구요. 삼국시대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토식석축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축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석축자체로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토심석축공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 중심부에 들어가는 영정주가 단순히 토심석축영정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토축부를 지지하는 구조목으로 작용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기둥홈이 확인된 곳이 잘 모르겠지만, 구멍이 있다고 해서 다 기둥홈이 아니라, 체성벽 바깥쪽에서 확인되는 것은. 석축을 높이 올라가려고 만든 나무기둥을 세워서 비계봉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기둥홈은 성벽중간에 들어가서 확인되는 것인데. 덕진산성의 토축벽에서는 기둥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벽이 아니라 토축벽이라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심정보 : 조순흠선생님께서 공통질문을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해 주시죠.

조순흠 : 도면과 사진을 검토하면서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었는데요. 덕진산성이 당시에 토성이 되었느냐 토심석축이 되었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 도면을 편집을 해왔습니다. 사진.1 부분입니다. 거기서 1차수축성벽의 내측하단부에 보면 하단 밑으로 들어가는 석재가 보입니다. 이는 Tr.12양쪽 벽면에서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진상으로 보면 중심투루가 축조되기 이전에 먼저 들어간 돌로 보아야되지 않을까해서 두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성벽절개 관련인데요. 도면상에서는 토축부를 완전히 절개를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진을 비교해보면 이 절 개선으로 표시된 바깥에 동일재질로 보이는 절개부가 과연 맞는지 조사를 직접 담당하셨던 안성현선생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도면.4를 보시면 적심상태에서 바깥쪽의 적심들은 비교적 작은 석재들이 놓여져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토축부 안쪽으로 보면 돌의 크기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돌 위주로 쌓이고 있고, 토축부와 결합되었는 듯한 것처럼 보이는데. 두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성현 : 91p 사진.19를 보시면 토성으로 토축이 되고 반으로 만 석축으로 개축 된 상태입니다. 절개부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토성부를 잘라내고 돌을 쌓으면 압에 의해서 돌이 눌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선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석축으로 보게되는 이유는 사진.7번을 보시면 고구려시대 수혈주거지가 초축된 토성부를 절개하고 대지를 재조성해서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1번에 나온 부분은 토성을 조성하게되면 대석이나 활석을 깔게됩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였고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공정상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북동쪽 모서리에서만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심광주 : 토론문을 보시면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3을 보시면 기둥홈이 보이는

데, 이 기둥홈이 토축부의 힘을 막아주던 영정주였고, 여기에 쌓여있었던 한단 두단정도가 고구려 성벽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이구요. 그다음에 토축부 하단부에 있는 것은 다른 고구려성에서도 확인되지않지만 하단부는 석축과 연계되게 쌓은게 아닌가 생각되구요. 사진.4를 보시면 큰 지대석에 접해서 기둥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결구시키면 바깥에 있는 목주의 흔적이 영정주로 추정될수 있다고 봅니다.

심정보 : 이한용샘이 덕진산성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종택 선생님이 토론해주시겠습니다.

최종택 : 오늘 학술회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한용선생님의 발표가 아니었나 합니다. 지금 학술조사애기도 나오고 하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하에 조사해야 된다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중에 활용이 가장 적극적인 보존일 수 있다. 현대의 트렌트다란 말을 같이 고민해야하는데, 이는 고고학자들한테 설득이 가능하지만, 대중한테는 설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진산성도 그런 부분에 봉착할텐데 의견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한용 : 시간 관계상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먼저하고 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안성현선생님과 심광주선생님 두분의 견해였었는데요. 안성현선생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성이라는 것은 대규모의 토목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작업공간의 확보가 토목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작업공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토성을 깎아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최종택선생님에 대한 답변은 발굴조사한 유구를 현장에 보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성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이라는 행위자체가 유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굴조사된 상태를 그대로 실내로 보호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복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일정부분의 복원을 한다그러면, 과거와 같은 무조건 화강암을 깎아서 쌓는 복원이 아니라, 호로고루와 같은 사례를 참고해서 일정 유적의 붕괴를 염두해 둔 고층에 의한 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현장에 보존처리되고 있는 유적들에 대한 해결방법이 덕진산성의 보존과정에서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심정보 : 시간관계상 방청객질문은 만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덕진산성이 국가 사적으로 되는데 축조시기가 오늘 학술대회에서 도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순흠선생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초축성벽의 정확한 초축순서가 나오지 않았구요. 이는 파주시가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진산성은 국가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축조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015년 중부고고학연구소 학술대회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발표해주신 5분하고 토론해주신 2분하고 격려의 박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5년 중부고고학연구소 학술대회

파주 덕진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및 활용 방안

인쇄 2015년 12월 일
발행 2015년 12월 일

편집 (재)중부고고학연구소
발행 (재)중부고고학연구소

인쇄 숲과나무
Tel 031) 949 - 46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74(관양동, 7층 701호)
Tel 070) 8650 - 3200 / Fax 031) 422 - 3602

홈페이지 <http://www.jia.or.kr>
